

연구보고서 2024-27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최선영

곽윤경·노현주·양은정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연구진

연구책임자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노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양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27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에코디자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44-1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27>

발|간|사

청년기가 길어지고 있다. 과거 청년과 비교하여 오늘날의 청년들은 교육 수준이 높고 더 많은 인적 자본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성인이 되는 시점은 더 뒤로 미뤄지는 경향이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발간 보고서(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실태)의 후속작업으로, 청년자녀세대와 장년부모세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자료를 생산하여 성인 이행 과정에 대한 가족의 대응과 부모역할의 확대 경향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청년기의 시간적 연장이나 성인 이행 시점의 지연 등 인구학적 현상이 가족관계, 세대관계, 생애과정 전반에 다양한 파생적 효과를 낳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청년기와 청년의 성인 이행 과정에 대한 부모의 지원, 관여, 개입의 수준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간 격차도 큰 편임을 확인해주었다. 특히 이 사실은 불평등의 여러 기제와 사회적, 정치적 결과에 대해 중요한 함의가 있다. 청년 대상의 사회정책이 주관적 경험과 불평등 인식 등의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불평등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선영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수행되었으며, 곽윤경 부연구위원이 함께 보고서를 집필하였고, 본원의 노현주 연구원, 양은정 연구원이 연구에 참여하여 보고서의 완성을 도왔다. 원외에서 송인주 박사는 설문조사 문항구성을 비롯하여 보고서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조언을 통해 연구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특히 대상을 더 넓은 시야에서 파악하고, 함의를 풍부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귀중한 조언을 해주었다. 본원의 류정희 연구위원 역시 연구의 완

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이 연구가 아동, 청년 정책에 기초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연구의 구성과 함의를 가다듬는 방안을 제안해 주었다. 보고서 발간 과정에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조사에 참여해주신 면접 참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혜규





요 약	1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5
제2절 기존 논의	9
제3절 연구방법	13
제2장 초기 성인기와 부모 지원의 배경	29
제1절 교육, 취업, 주거의 인구사회적 변화	31
제2절 교육제도와 가족	48
제3절 청년정책의 개입	54
제3장 초기 성인기에 대한 부모 지원의 다차원성	67
제1절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상적 지원	69
제2절 자녀의 성인 이행과 부모의 전략적 지원	101
제3절 부모 지원의 다차원성과 의미	115
제4장 이상적 세대관계와 현실적 지원 관계	127
제1절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	129
제2절 부모 지원 필요성과 가치	142
제3절 부모 역할 확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	152

제5장 부모 지원의 계층간 격차	159
제1절 주관적 계층 범주의 특징	161
제2절 부모 지원의 다차원적 격차	165
제3절 기대와 전망의 계층화	173
제6장 결론	179
제1절 연구의 결론	181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85
참고문헌	191
부 록	197
[부록 1] 부모 대상 조사표	197
[부록 2] 자녀 대상 조사표	216
Abstract	235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1-1〉 초기 성인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조사 개요	15
〈표 1-2〉 장년부모세대조사의 조사 내용	16
〈표 1-3〉 청년자녀세대조사의 조사 내용	18
〈표 1-4〉 부모 응답자 2단계 추출: 전체 응답자와 청년자녀가 있는 부모 응답자	20
〈표 1-5〉 최종표본 부모 응답자의 특성	21
〈표 1-6〉 자녀 응답자의 특성	22
〈표 1-7〉 자녀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수학상태 분포	25
〈표 1-8〉 추가 면접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청년자녀 참여자	27
〈표 1-9〉 추가 면접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장년부모 참여자	28
〈표 2-1〉 연도별 청년인구 중 졸업자 비율(2000~2020, 5년 간격)	32
〈표 2-2〉 연도별 청년인구(19~34세)의 수학상태 분포(2000, 2010, 2020)	33
〈표 2-3〉 연도별 졸업자의 교육수준 분포(2000~2020, 5년 간격)	34
〈표 2-4〉 연도별 19~34세 청년의 경제활동 비율(2000~2020, 5년 간격)	35
〈표 2-5〉 2020년 수학정도별 경제활동상태 분포	36
〈표 2-6〉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19~34세) 비율과 가구유형(2000~2020, 5년 간격)	42
〈표 2-7〉 청년의 취업상태와 부모동거비율(2010, 2015, 2020)	43
〈표 2-8〉 청년의 부모동거 및 결혼여부 분포(2000~2020, 5년 간격)	44
〈표 2-9〉 연도별 성 및 결혼여부별 부모동거 비율(2000~2020, 5년 간격)	45
〈표 2-10〉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49
〈표 2-11〉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수 및 예산	56
〈표 2-12〉 2024년 청년정책 주요 추진목표	57
〈표 2-13〉 역대 정부의 청년정책추진현황	60
〈표 2-14〉 청년의 일자리/교육 이행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	63
〈표 2-15〉 청년의 주거 이행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	66
〈표 3-1〉 청년응답자의 특성별 부모동거 여부	71
〈표 3-2〉 부모동거 청년의 가족생활 기여 여부	73
〈표 3-3〉 (부모 응답)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74

〈표 3-4〉 (부모 응답) 부모자녀 동거가 부모자녀 관계 및 개인적 삶에 대한 긍정영향 등의 비율	75
〈표 3-5〉 (자녀 응답) 부모자녀 동거가 부모자녀 관계 및 개인적 삶에 대한 긍정영향 등의 비율	76
〈표 3-6〉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현금 지원 받은 경험	77
〈표 3-7〉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지원 금액	78
〈표 3-8〉 지난 1년간 생활비 조달 경로 (1+2+3순위)	79
〈표 3-9〉 자녀와의 친밀도	80
〈표 3-10〉 어머니와의 친밀도	82
〈표 3-11〉 아버지와의 친밀도	82
〈표 3-12〉 (부모 응답)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인식	84
〈표 3-13〉 (자녀 응답)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인식	85
〈표 3-14〉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의지 정도	86
〈표 3-15〉 배우자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의지 정도	87
〈표 3-16〉 자녀에 대한 본인의 정서적 의지 정도	88
〈표 3-17〉 일상적 생활에 대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여/조언 여부	90
〈표 3-18〉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1) 금전 문제에 대해	91
〈표 3-19〉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2) 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92
〈표 3-20〉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3) 외모·체형·옷차림 등	93
〈표 3-21〉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4)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94
〈표 3-22〉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5)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	96
〈표 3-23〉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6) 대인관계(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97
〈표 3-24〉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7) 정신건강에 대해(불안, 우울, 무기력 등)	98
〈표 3-25〉 (부모 응답) 일상적 조언에 대한 자녀의 관여/조언 수용 비율(1)	99
〈표 3-26〉 (부모 응답) 일상적 조언에 대한 자녀의 관여/조언 수용 비율(2)	100



〈표 3-27〉 대학진학 관련 부모의 관여/조언 비율	102
〈표 3-28〉 자녀의 관여/조언 수용 여부	103
〈표 3-29〉 대학교육 및 생활 과정에서 부모의 관여/조언 여부	104
〈표 3-30〉 자녀의 관여/조언 수용 여부	105
〈표 3-31〉 부모의 관여/조언 도움 여부	106
〈표 3-32〉 부모의 관여/조언 여부	107
〈표 3-33〉 (부모 응답) 부모의 관여/조언에 대한 자녀의 수용 여부	108
〈표 3-34〉 (자녀 응답) 부모의 관여/조언 도움 정도	110
〈표 3-35〉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비 조달 경로	111
〈표 3-36〉 부모의 현금 지원 사용처	112
〈표 3-37〉 상황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동의율)	114
〈표 4-1〉 부모의 본인과 자녀의 청년기 비교	130
〈표 4-2〉 과거(청년 시기) 본인에 대한 부모의 관여/조언 여부와 현재 본인과 자녀의 조언 여부 비교	133
〈표 4-3〉 과거(청년 시기) 본인에 대한 부모의 관여/조언 여부와 현재 본인과 자녀의 조언 여부 비교	133
〈표 4-4〉 과거(청년 시기) 본인과 부모의 친밀도	134
〈표 4-5〉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	136
〈표 4-6〉 부모응답자의 이상적 부모상	138
〈표 4-7〉 부모응답자의 이상적 부모-성인자녀 관계상	141
〈표 4-8〉 청년자녀의 부모 조언 수혜와 부모에 대한 정서적 의지	145
〈표 4-9〉 장년부모의 자녀조언제공과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성(부모응답)	145
〈표 4-10〉 청년자녀의 부모조언수혜와 자녀의 주관적 독립정도 (자녀응답)	146
〈표 4-11〉 부모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 (1)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147
〈표 4-12〉 부모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 (2)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갖추는 데	148
〈표 4-13〉 부모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 (3)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149
〈표 4-14〉 부모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 (4) 부모님으로부터 어른으로 인정받는 데	150

〈표 4-15〉 부모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 (5) 남들로부터 능력있다고 인정받는 데	151
〈표 4-16〉 부모지원의 항목별 긍정 영향 점수	152
〈표 5-1〉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 응답 분포	162
〈표 5-2〉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별 가구형태 분포	162
〈표 5-3〉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별 가구형태 분포	163
〈표 5-4〉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별 순자산 수준	164
〈표 5-5〉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별 본인과(또는) 배우자의 교육수준	164
〈표 5-6〉 부모응답자의 자녀 조인 요청과 실제 관여 계층간 격차	168
〈표 5-7〉 자녀응답자의 주관적 계층별 정서적 지원 수혜 비율	170
〈표 5-8〉 주관적 계층별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	171
〈표 5-9〉 주관적 계층별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	171
〈표 5-10〉 주관적 계층별 자녀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	171
〈표 5-11〉 주변 지원 수준 대비 본인 부모님의 지원 수준: 일상적 관여와 조인	173
〈표 5-12〉 주변 지원 수준 대비 본인 부모님의 지원 수준: 정서적 지원	174
〈표 5-13〉 주변 지원 수준 대비 본인 부모님의 지원 수준: 경제적 지원	175
〈표 5-14〉 주변 지원 수준 대비 본인 부모님의 지원 수준: 전반적 지원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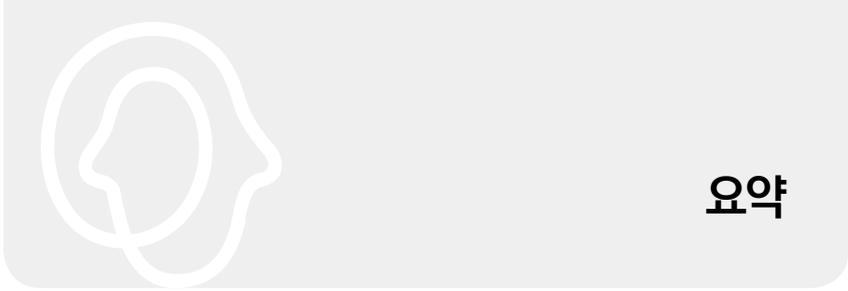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 2-1] 연도별 졸업자 비율의 연령 프로파일 (2000~2020, 5년 간격)	34
[그림 2-2] 2020년 청년의 주로 일함 비율 연령 프로파일	37
[그림 2-3] 연도별 청년의 미혼 비율 (2000~2020, 5년 간격)	38
[그림 2-4] 2000년과 2020년 청년의 미혼비율 연령 프로파일	39
[그림 2-5] 19~39세의 부모동거 및 결혼여부의 연령 프로파일 (2000, 2020)	46
[그림 2-6] 2000년과 2020년의 청년기 교육, 취업, 결혼, 주거 특성	47
[그림 3-1] 생애 과업별 부모의 관여와 조언 정도: 부모 응답과 자녀 응답 비교	122
[그림 4-1] 자녀응답자의 부모조언 필요성과 실제 조언 경험	143
[그림 4-2] 부모응답자의 자녀의 조언요청과 실제 조언 경험	144
[그림 5-1] 자녀응답자의 부모조언 필요성과 실제 조언받은 경험의 계층간 격차	167
[그림 5-2] 부모응답자의 자녀 조언 요청과 실제 관여 계층간 격차	168
[그림 5-3] 부모의 지원수준과 어른되기의 긍정영향 점수	178





요약

지난 20여 년 동안 개인들은 생애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 특히, 의존적인 아동기에서 자립적인 성인기로의 이행—본 보고서에서 ‘초기 성인기’로 정의하는 이 시기—는 점점 더 복잡하고 불안정한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 자녀와 이들에 대한 부모의 지원, 지원에 대한 인식,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가치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부모의 역할 차원이 넓어지고 자녀의 초기 성인기로까지 부모의 역할이 확장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부모의 지원을 경제적 지원에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 지원과 각종 조언 및 관여 등 비물질적 지원까지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할수록 도구적 지원과 일상적 조언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부모의 계층적 지위에 따라 지원 수준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중요한 발견이다. 계층적 지위가 높은 가정일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연대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성인 이행에 과정에 대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 정도도 높았다. 반면, 계층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연대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부모가 자녀가 기대하는 수준보다 낮은 지원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부모와 자녀가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관계는 상호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자립적인 관계였다. 이는 부모의 지원 목표가 단순한 현신이 아니라 자녀의 자립과 성인으로의 전환임을 시사한다. 즉, 초기 성인기에 부모의 지원이 지속되고 확대되는 현상은 부모의 무한한 이타성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성인 이행 환경에 대한 이해와 부모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성인자녀의 이상적 관계는 자립적 관계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의 지원이 자

2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녀가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고 가치있는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부모의 지원이 성인 이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경우,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으며,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지원의 차이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생애과정 관점에서 초기 성인기의 불평등은 생애 전반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평등 완화와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서 초기 성인기와 부모-자녀 간 자원 이전 관계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라는 새로운 생애 단계를 적극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의 지원과 그 다차원적 성격을 단순한 가족 내부의 동학이 아니라 제도적 맥락 속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요 용어: 초기 성인기, 부모 지원, 청년과 계층 불평등, 세대 관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기존 논의

제3절 연구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연구배경

2000년대 초반 이래 개인 생애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이 과거에 비해 복잡해지고 이질성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시점 자체가 늦어진 것이다(Billari and Liefbroer, 2010; Furstenberg, 2010;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남춘호, 남궁명희, 2012; 최선영, 이지혜, 윤태영, 2022). 20대 초반 또는 중반 즈음 취업과 결혼을 거쳐 성인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던 20여년 전과 달리, 이제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 등 성인의 사회적 표시물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성인 이행의 지연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사회적 차원에서 모두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해되는 편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원의 결핍이나 성취의 실패로 인해 다음 생애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주되고, 가족이나 사회의 시각에서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떠맡지 않고 피부양자 상태에 머무는 데 따른 부양 부담의 가중과 같은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성인 이행의 지연을 단순히 성인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소극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성인의 타이틀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대에는 대체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미 성숙했다

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18세 이상에 대해서는 성인의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 사실 성인 이행은 주어진 어느 한 시점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성이 초기 성인기의 개인간 이질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초기 성인기의 성격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규정하려는 시도들은 결국 이 시기가 아동(의존)에 가까운가 아니면 성인(독립)에 가까운가를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기존의 전통적 아동/성인의 이분법을 넘어서지 못한다.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요건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이 생애단계를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생애단계’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 새로운 생애단계를 사회문화적 조건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제도적 환경과의 관련성 하에서 초기 성인기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초기 성인기의 생애과정적 성격은 생애과정을 이끌어가는 힘, 즉 성장, 성숙, 자립, 자율 등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적어도 초기 성인기에 속한 개인이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를 관찰하여 답해져야 한다.

이에 이 연구는 가족의 시각에서 초기 성인기를 관찰하고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를 성인 이행을 뒷받침하던 경제, 제도, 문화의 변화에 개인과 가족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새로운 생애단계로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2023년 수행한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실태>(최선영, 이원진, 권영지, 윤태영, 2023)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자녀의 교육, 취업, 독립, 결혼, 출산 등)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틀에서 연구하였다. 특히 개인과 가족이 성인 이행 과정에서 어떤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이 필요한지 인식하고 판단하며, 그러한 자원을 어떻게 동원하고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행과정으로서 초기

성인기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단지 가족의 도움 없이 개인적인 노력과 자원만으로 어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청년자녀 사이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한 전략적 행동이 초기 성인기를 특징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선영 외, 2023).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2023년 과제의 후속작업으로서, 초기 성인기에 대한 가족의 지원을 중심으로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의 필요성과 결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족관계(세대간 관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초기 성인기라는 새로운 생애단계와 가족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 첫째, 가족이 외부의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다. 저성장,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경쟁 심화, 그리고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문화 등은 가족간의 연대 기반을 약화시켜 가족의 해체나 불안정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이 연구는 가족이 문제를 해석하고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가설을 검토하고자 한다.

둘째, 초기 성인기를 넘어 성인 되기의 의미 변화에 대한 함의가 있다. 통상적으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와 청년 자녀의 긴밀한 의존이 성인이 되는 열쇠가 되는 상황은 성인 되기의 의미를 바꾸도록 만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지속적인 부모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은 의존과 자립의 의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다움이나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현재 한국은 심각한 초저출산 상황에 있다. 지난 20여년 간 결혼과 출산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는 개인들이 주요한 생애과정 의사결정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된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생애단계가 바로 초기 성인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기 성인기 단계 역시 내적 이질성이 존재하고, 사회불평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여부와 수준 등이 사회계층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를 행위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적인 부모 지원이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초기 성인기 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부모-자녀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 성인기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초기 성인기가 단지 특정 역연령 구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사회정책(의 성격)의 산물임을 이해하기 위해 초기 성인기의 제도적 배경을 검토한다. 먼저 19~34세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이 2000년 이후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통계자료를 통해 검토한다. 특히 청년의 부모동거형태 및 경제활동 패턴에 주목한다. 이러한 인구패턴의 변화와 함께, 교육제도의 변화와 청년대상 사회정책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구사회적, 제도적 배경을 기반으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고하고 분석한다.

먼저 19~34세 청년을 지원하는 부모의 비율과 지원의 여러 내용(차원)을 확인한다. 주거지원, 현금지원 등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비물질적인 지원으로서 정서적 지원, 진학을 비롯하여 취업과 경제적 자원 관리 등 조언과 관여를 통한 지원도 함께 살펴본다.

다음으로는 세대간 관계의 차원에서 부모의 지원을 이해하기 위해, 부모의 지원동기, 자녀의 지원 요구, 지원의 부담이나 가치 등 의미를 조사하고 보고한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세대간 관계, 즉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이 연구는 부모지원의 사회계층간 격차에 주목한다. 부모의 재정적 능력에 따라 지원 경험과 지원 범위, 지원의 의미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부모의 지원이 청년 자신의 성인 이행 과정에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자원이라고 인식하는가의 여부, 그러한 인식이 존재할 때 부모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청년들의 인식과 전략 등도 중요한 연구질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원 여부 뿐만 아니라 지원의 계층적 격차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도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제2절 기존 논의

1. 이론적 논의

이 연구는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실태>(최선영 외, 2023)의 후속연구로서 연구대상을 부모의 지원으로 좁히고 객관적 실태와 더불어 부모와 자녀의 인식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범위에 해당되는 이론적인 논의와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는 이전 연구에서 주로 수행하였다(최선영 외, 2023). 아래의 내용은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현대적 친족관계에서 부모와 성인자녀의 관계는 일방적인 의존보다는

상호적인 유대 관계를 갖게 된다. 특히 초기 성인기 자녀와 부모는 서로 조언을 주고 받고 격려와 지지를 나누는 관계를 구축하면서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점차 부모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시작한 청소년기의 자녀는 청년기에 진입하여 자율적 결정과 경제적 독립을 통해, 부모와 더욱 밀접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원이전 방향을 관찰한 국내외 연구들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초기 성인기는 여전히 부모의 지원과 자녀의 의존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기로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성보다는 일방성이 더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른 나이에 독립부모와 계속해서 동거하는 청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공간적 독립도 부모의 재정적 도움과 함께 이루어진다. 교육과 인적자본 개발, 취업준비와 구직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모지원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노동시장 진입시기가 늦어지고, 결혼과 주거독립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기 생애과정의 변화가 이러한 부모지원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Sage & Johnson, 2012; Mazurik et. al., 2020; 최선영, 이원진, 권영지, 윤태영, 2023).

부모와 초기 성인기 자녀가 공유하는 문화의 변화도 중요하다. 부모 세대와 청년세대는 가족 내에서 자녀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정서적 만족을 가족생활의 핵심적 기능으로 간주하는 세대들이다. 이러한 부모와 청년 세대 사이의 정서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청년세대가 성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필요에 대해 부모를 수용적으로 만드는 문화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송인주, 2023).

노동시장의 변화도 부모와 초기 성인기 자녀 사이의 의존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높은 청년실업률, 경력 초기 일자리의 불안정성 심화, 이동성이 높은 일자리 등의 조건은 청년으로 하여금 이른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어렵도록 만든다. 그러한 청년자녀의 불안정성을

가족이 흡수하고 보완하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가족배경에 따라 성인자녀의 학력, 노동시장지위, 성인 이행 등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 성인이행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모의 높은 계층적 지위와 자녀의 유리한 성인이행과정 사이의 통계적 연관성을 넘어, 실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부모의 지위가 자녀의 성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설명되고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대로, 부모의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녀의 성취와 성인이행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는 가정은 좀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자산의 이전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녀의 자산규모에 개입하는 방식을 논외로 한다면, 현대적인 계층지위의 재생산은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지위와 신분을 물려주는 전근대적 방식과 차이가 있다. 즉 성인이행과정에서 부모의 지원이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직접적인 노동시장 지위의 제공이 아니라, 그러한 지위에 접근하기 쉬운 기회와 능력, 자질을 통해 이루어진다.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부모가 제공하는 지원의 기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향이다.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된다. 도구적 지원은 재정적 지원과 주거 지원 및 (손자녀) 돌봄 지원 등으로 나타나며, 청년 자녀의 교육 지원과 주택 마련 지원이 재정적 지원의 핵심을 이룬다.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부모들은 비재정적인 지원으로서 손자녀돌봄지원이나 동거를 통한 주거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서적 지원도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정서적 유대(affective ties)는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친밀감과 애착을 포함하며, 이러한 유대는 정서적 지원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정서적 지원은 동기 부여, 격려, 조언,

동반자 관계, 그리고 친밀감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Swartz, 2009). 부모와 성인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는 성인 초기에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자녀가 자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된다. 부모의 정서적 지원은 전환기 동안 자녀가 겪는 다양한 압박감으로부터 심리적으로 보호하고 안정감을 제공한다. 부모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애정이 그 기반이 된다고 한다. 부모와 성인 자녀 간에 가장 흔하게 교환되는 지원 유형이 바로 정서적 지원이다.

라로(Lareau, 2003)는 이러한 초기 성인기 자녀 지원을 사회화와 계층 재생산의 목적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전문직 종사자 부모들은 자녀의 자율성, 자기주장, 자기주도성을 격려하고 전문직 종사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면 노동자계급 부모들은 신체적 건강과 권위에의 복종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슈워츠(Swartz, 2009)의 연구는 중산층 부모들이 정교화하고 있는 세대관계(청년자녀에 대한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가 일종의 적응적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20대 초반에 노동, 결혼, 부모됨, 독립주거 등을 통해 성인 역할을 떠맡았던 과거와 달리, 교육과 훈련이 20대 초중반을 장악하고, 높은 주택가격과 저임금 등에 의해 ‘어른되기’의 과정은 복잡하고 길어졌고 다면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제도와 정책이 (독립하지 못하는) 새로운 청년기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동안, 가족이 ‘연장된 이행기’의 증가된 비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의 한계와 연구의 필요성

먼저, 그동안 한국 청년의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청년기가 연장되어 성인이행시점이 지연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 놓인 청년기(초기 성인기) 자체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둘째, 부모 자녀 관계 측면에서 청년기를 규명한 연구도 많지 않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청년기의 의존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부모의 지원 내용을 살펴봤으나, 경제적 지원이나 주거 지원 등 특정 자원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부모 자녀 관계 측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도 부모가 왜 청년을 지원하는지, 청년 자녀에게 지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했다.

셋째,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탐색적인 질적 연구와 부모 또는 자녀 한쪽에 집중된 조사연구 등 연구방법이 제한적이다. 몇몇 질적 사례연구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부모의 지원과 비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풍부한 함의를 이끌어내었지만, 한국의 초기 성인기에 대한 일반화 근거로 활용되기보다 탐색적인 관심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규모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초기 성인기의 세대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직접 생산하고 분석 결과의 기술통계치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논의한다.

1. 조사 대상 및 표본 설계

청년세대와 장년세대를 대상으로 <초기 성인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조사>를 설계하고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모집단)은 두 개의 집단으로서,

전국에 거주하는 19~34세의 청년자녀세대와 전국에 거주하며 청년 자녀가 있는 만 45~69세 장년부모세대이다. 조사 단위는 가구나 부모-자녀 쌍이 아니라 개인이다.

표집틀은 (주)한국리서치(조사기관)가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 샘플 패널을 활용했다. 표본 추출은 비례할당 방식으로 무작위 추출을 했으며, 비례할당에는 지역, 성, 연령,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중 지역, 성, 연령은 2024년 8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를 근거로 하였다. 지역은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로 구분했으며, 연령은 5세 단위로 구분했다. 또한 2020년 인구 센서스의 교육수준(대졸 미만/ 대졸 이상)을 반영해 조사 대상자의 특성을 다양하게 포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년자녀세대 표집은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집하였으며, 장년부모세대 표집은 청년자녀세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표집하되 표본수를 실제 목표표본수의 세 배에 해당하는 3,006명 표집한 후, 2차 추출을 통해 최종 표집을 완료하였다. 45~69세 연령집단 중 청년자녀를 둔 사람의 모집단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45~69세를 대상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별, 교육수준별 비례할당을 통해 3,006명을 1차 추출하고, 2차로 19~34세 자녀가 있는 사람을 무작위 추출하였다.

최종표본은 19~34세 자녀가 있는 45~69세 남녀(장년부모세대) 1,600명과 19~34세 남녀(청년자녀세대) 1,000명이다.

이 조사의 표본 오차와 관련해서는, 전체 부모의 경우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1.8\%$ p, 청년 자녀가 있는 부모는 $\pm 2.5\%$ p, 청년은 $\pm 3.1\%$ p으로 산출되었다.

이 조사는 (주) 한국리서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즉 응답자 리스트 DB, 설문구성과 자료수집, 자료처리, 자료검증 등과 관련한 전 과정을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이 사용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9월 11일~23일(13일) 동안 실시했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제2024-088호(2024.8.8.)」에 의해 IRB 승인을 받았다.

〈표 1-1〉 초기 성인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자녀세대: 전국에 거주하는 19~34세 성인남녀 • 장년부모세대: 전국에 거주하며 청년자녀(19~34세)가 있는 45~69세 성인 남녀
표 집 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리서치 Master Sample Pan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국민의 지역, 성, 연령, 학력,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94만명의 응답자 패널 - 한국리서치가 2001년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직접 모집하고 있음
표본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으로 무작위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5세 간격)×교육수준(대졸 미만/ 대졸 이상) 분포 반영(2020년 인구센서스 기준)
목표 표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 3,000명 • 청년 : 1,000명
완료 표본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 1차 3,006명, 2차(청년 자녀가 있는 부모) 1,600명 • 청년 : 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 오차는 $\pm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자녀가 있는 부모 대상 설문 $\pm 2.5\%$ • 청년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 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WI(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CAWI)는 응답자 리스트 DB, 설문구성과 자료 수집, 자료처리, 자료검증 등과 관련한 전 과정을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조사방법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9월 11일~9월 23일(13일간)
가 중 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국리서치

2. 조사 내용

부모 대상 설문조사의 내용은 인구사회적 특성에 대한 문항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했다(〈부록〉 조사표 참고). 인구사회적 특성은 배우자에 대한 문항을 포함한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자녀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부모의 자녀 지원은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관여와 조언, 정서적 지지, 동거 지원, 경제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Fingerman, Miller, Birdett & Zarit, 2009). 부모의 역할인식, 세대관계 규범과 변화 인식,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 등을 통해, 부모의 지원을 해석할 수 있는 관계, 가치, 인식 등을 조사에 포함하였다(〈표 1-2〉 참고).

구체적인 문항구성을 위해서는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 문항 및 조사결과 보고내용(Pew research, 2023a; 2023b; 2024)과 이선이, 김현주, 이여봉(2015)의 연구 등을 참조하였다.

〈표 1-2〉 장년부모세대조사의 조사 내용

구분		장년부모세대 조사내용
인구사회적 특성	응답자(부모)	- 본인의 출생연도, 성별, 거주지, 최종학력, 혼인상태, 경제활동 상태, 종사상 지위, 고용 형태 - 배우자의 최종학력, 경제활동 상태,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 가구의 맞벌이 유무, 본인 및 배우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 가구의 자산 수준, 가구 자산 수준, 주관적 계층수준
	자녀	- 자녀의 존재 여부, 성별, 출생연도, 최종학력, 취업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부모의 자녀 지원	관여와 조언	- 자녀의 일상생활에서 도움과 조언 요청/개입 빈도/자녀의 수용 정도 - 자녀의 진학 및 취업 과정에서 도움과 조언 요청/개입 빈도/자녀의 수용 정도 - 청년기 당시 부모의 관여와 조언 정도

구분		장년부모세대 조사내용
부모의 자녀 지원	정서적 지지	-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 본인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의존 정도 - 배우자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의존 정도 - 자녀에 대한 본인의 정서적 의존 정도 -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정서적 의존 정도
	동거 지원	- 동거여부 - 자녀와의 동거 영향(효과), 이유
	경제적 지원	- 자녀의 경제적 독립 정도 - 지난 1년간 자녀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부/ 금액 - 과거 경험과 비교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생각 -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 정도 - 향후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생각
세대관계 인식과 규범	부모 역할 인식	-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의식 -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 -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 -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생각 - 미래 경제적 지원 의사
	세대관계 규범과 변화 인식	- 자녀의 결혼출산에 대한 생각 - 본인의 청년기와 자녀의 청년기 비교 - 청년기 당시 본인 부모와의 친밀도 - 타인의 지원 정도와의 비교
	자녀와의 관계	- 자녀와의 친밀도 -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 삶의 만족도

자녀 대상 설문조사의 내용은 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동일하게 인구 사회적 특성에 대한 문항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했다. 인구사회적 특성은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구분하여 제시했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항은 관여와 조언, 정서적 지지, 부모와 동거, 경제적 지원,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생각, 가족과 사회의 관계 등이 부모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다만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및 만남에 대한 문항과 부모의 도움 경험에 대한 문항이 추가되었으며, 사회관계 영역에서 청년기의 필요 지원과 미충족 경험, 정책 수혜 경험 등에 대한 문항을 추가 구성했다(〈표 1-3〉 참고).

18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표 1-3〉 청년자녀세대조사의 조사 내용

구분		청년자녀세대 조사 내용
인구사회적 특성	응답자(청년 자녀)	- 출생연도, 성별, 거주지, 최종학력, 혼인상태, 소득활동 여부, 경제활동 상태, 종사상 지위, 고용 형태, 월평균 소득, 형제자매 여부
	부모	- 부모의 존재 여부, 동거 여부, 출생연도, 최종학력, 가구 자산 수준, 주관적 계층수준
부모지원 수혜 경험	관여와 조언	- 일상생활에서 부모님의 관여와 조언 필요도/경험 빈도/도움 정도 - 진학 및 취업 과정에서 부모님의 관여와 조언 경험 빈도/ 도움 정도
	정서적 지지	- 부모의 정서적 지원 경험 - 부모에 대한 정서적 의존 정도 - 본인에 대한 부모의 정서적 의존 정도
	부모와 동거	- 부모 동거여부 - (부모동거) 가족생활(가사, 재정적, 돌봄) 기여도 - (부모동거) 동거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 인식
	경제적 지원	- 지난 1년간 재정적 지원 여부/ 금액/ 사용처 - 생활비 조달 방식 - 고교 졸업 후 교육비 조달 방식 - 경제적 독립 정도
세대관계 인식과 규범	지원수혜 인식	- 부모님의 도움(지원)에 대한 생각 - 부모님의 도움(지원)의 영향(효과) - 이상적인 부모 모습 - 이상적인 부모의 경제적 지원 방식 - 결혼·출산에 대한 부모의 태도 인지 - 상대적인 부모지원 정도
	부모와의 관계	- 부모와의 친밀도 - (부모동거) 부모님과의 동거 영향(효과) - (비동거) 부모와의 연락 빈도
	세대관계 규범과 기대	-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기대 - 이상적인 부모 모습 -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 - 독립정도/독립의향
청년-사회 관계	비가족적인 지원 및 삶의 만족도	- 청년기 필요 지원/ 미충족 경험 - 사회적 지지체계 - 삶의 만족도 - 청년지원 정책 수혜 경험

3. 응답자의 기본 특성

가. 장년부모세대 응답자

장년부모세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 1차 추출과 청년자녀 유무를 기준으로 한 2차 추출을 통해 최종표본을 구축했다. 1차 추출된 표본과 2차(최종) 추출된 표본의 인구사회적 특성 분포를 비교한 결과(〈표1-4〉 참조), 1차 표본과 비교하여 2차 표본은 45~49세 연령과 65~69세 연령의 비중이 작은 반면 50~64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자녀 유무는 응답자의 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1차 추출 결과와 2차 추출 결과 간에 교육수준 분포 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최종표본은 1차 표본에 비해 여성의 비중이 높고, 수도권 비중은 근소하게 낮으며, 유배우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표본인 장년부모세대 응답자의 기본 특성은 〈표 1-4〉와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별, 연령, 지역, 혼인상태, 교육수준은 〈표 1-4〉에서 1차 추출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직업, 부부소득수준, 주관적 계층인식, 자산 수준, 자녀 수 등 응답자의 개인 및 가구특성, 응답자의 자녀 중 무작위 추출된 청년자녀의 인구사회적 특성 등은 〈표 1-5〉에서 최종표본에 대해서만 나타내었다.

부모 응답자의 자녀에 대한 조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응답자의 자녀수는 전체 자녀수를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자녀의 개인적 특성에 관한 조사는 복수의 자녀 전체가 아니라 임의의 청년자녀 1인에 대해서만 답하도록 설계하였다. 연령이 19~34세인 자녀 중 1명의 자녀가 제시되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응답자는 주어진 임의의 청년자녀에 대해 자녀의 특성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20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표 1-4〉 부모 응답자 2단계 추출: 전체 응답자와 청년자녀가 있는 부모 응답자

(단위 : %, 명)

구분	45~69세 장년세대 (1차 스크리닝 결과)		청년자녀가 있는 장년세대 (2차 스크리닝 결과)	
	전체	사례수	전체	사례수 (명)
전체	100.0	(3,006)	100.0	(1,600)
성별				
남	50.0	(1,502)	46.1	(738)
여	50.0	(1,504)	53.8	(861)
연령				
45-49세	18.9	(568)	7.8	(125)
50-54세	22.0	(660)	24.8	(396)
55-59세	21.0	(630)	31.1	(498)
60-64세	20.7	(623)	26.6	(425)
65-69세	17.5	(525)	9.7	(155)
지역1				
서울	17.1	(513)	15.0	(240)
인천/경기	32.1	(966)	32.8	(525)
대전/세종/충청	10.8	(324)	10.6	(169)
광주/전라	9.8	(296)	11.0	(176)
대구/경북	10.0	(301)	10.6	(170)
부산/울산/경남	15.6	(470)	15.0	(240)
강원/제주	4.5	(136)	4.9	(79)
지역2				
수도권	49.2	(1,479)	47.8	(765)
비수도권	50.8	(1,527)	52.2	(835)
혼인 상태				
유배우	74.2	(2,230)	85.4	(1,366)
미혼/사별/이혼	25.8	(776)	14.6	(234)
교육수준				
고졸 이하	70.1	(2,108)	69.2	(1,107)
초대졸	4.4	(134)	5.0	(80)
대졸 이상	25.4	(764)	25.8	(413)

〈표 1-5〉 최종표본 부모 응답자의 특성

(단위 : %, 명)

구분		전체	사례수 (명)
전체		100.0	(1,600)
교육수준	고졸 이하	69.2	(1,107)
	초대졸	5.0	(80)
	대졸 이상	25.8	(413)
직업	농임수산업/자영업	11.4	(182)
	판매/서비스/기능/노무	23.9	(382)
	사무직	14.2	(227)
	관리/전문직	8.5	(136)
	주부	17.8	(285)
	무직/퇴직/기타	24.3	(389)
부부소득	300만원 미만	18.2	(291)
	300~500만원 미만	27.3	(436)
	500~700만원 미만	28.3	(453)
	700~900만원 미만	11.8	(188)
	900만원 이상	14.4	(231)
주관적 계층인식	하	48.9	(782)
	중	41.6	(665)
	상	9.6	(154)
자산	1억원 미만	17.2	(275)
	1억원~5억원 미만	39.9	(638)
	5억원~10억원 미만	24.3	(389)
	10억원 이상	18.6	(297)
자녀수	1명	14.6	(233)
	2명	71.0	(1,136)
	3명 이상	14.4	(231)
자녀 성별	남	55.2	(883)
	여	44.8	(717)
자녀 연령	19~24세	30.2	(483)
	25~29세	31.4	(503)
	30~34세	38.3	(613)
자녀 동거여부	동거	46.4	(742)
	비동거	53.6	(858)

주: 자녀 성별, 자녀 연령, 자녀 동거여부의 대상 자녀는 임의의 자녀 1명을 의미함.

나. 자녀 응답자

조사에 참여한 청년 자녀 응답자의 특성은 <표 1-6>과 같다. 청년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의 기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거주 지역, 교육수준, 취업여부, 월평균 소득, 경제적 계층인식, 형제 자매 수,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조사했다. 부모 응답자에게 자녀 사항을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 응답자에게는 부모 사항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자산 수준, 부와 모의 최종 학력 등을 조사했다.

<표 1-6> 자녀 응답자의 특성

(단위 : %, 명)

전체	전체	사례수
전체	100.0	(1,000)
성별		
남	52.2	(522)
여	47.8	(478)
연령		
19~24세	31.5	(315)
25~29세	33.6	(336)
30~34세	34.9	(349)
혼인 상태		
미혼	83.9	(839)
유배우/비혼동거	14.1	(141)
사별/이혼	2.0	(20)
지역1		
서울	22.2	(222)
인천/경기	33.7	(337)
대전/세종/충청	10.3	(103)
광주/전라	8.5	(85)

전체	전체	사례수
대구/경북	8.4	(84)
부산/울산/경남	13.1	(131)
강원/제주	3.8	(38)
지역2		
수도권	55.9	(559)
비수도권	44.1	(441)
학력		
대학재학 중*	21.2	(212)
고졸 이하*	41.6	(416)
초대졸	4.1	(41)
대졸 이상	33.1	(331)
취업 여부		
일하고 있음	62.9	(629)
주부	3.9	(39)
학생	14.1	(141)
구직/무직	19.0	(19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18.0	(180)
200~300만원 미만	25.5	(255)
300~400만원 미만	11.7	(117)
400만원 이상	7.7	(77)
일자리 없음(소득없음)	37.1	(371)
경제적 계층인식		
하	45.6	(456)
중	41.7	(417)
상	12.8	(128)
형제자매 수(본인 포함)		
1명	11.8	(118)
2명	65.9	(659)
3명 이상	22.4	(224)

24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전체	전체	사례수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62.8	(628)
비동거	37.2	(372)
부모 자산		
1억원 미만	27.6	(276)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7.5	(275)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9.1	(91)
10억원 이상	6.7	(67)
모름	29.0	(290)
부 학력		
고졸 이하	49.8	(498)
초대졸	8.0	(80)
대졸 이상	29.6	(296)
모름	12.6	(126)
모 학력		
고졸 이하	57.7	(577)
초대졸	8.7	(87)
대졸 이상	22.2	(222)
모름	11.3	(113)

주: '대학재학 중'은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이 포함되고, '고졸 이하'에는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모든 이수상태를 포함하며,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를 중퇴하였거나 수료한 사람이 포함됨.

특히 청년 응답자의 교육수준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을 반영하여, 대학재학 중 범주를 포함하였고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대학(교)를 이수하지 않은 '중퇴'와 '수료'는 하위 수준인 고등학교 졸업 범주에 포함하여, 졸업자와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범주로 모집단(2020년 인구센서스 기준)의 분포를 파악하고 표본을 할당하였다.

〈표 1-7〉 자녀 응답자의 교육수준과 수학상태 분포

(단위: 명)

구분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	합계
중학교 이하	0	0	0	0	2	2
고등학교	0	0	9	0	366	375
전문대학교(2~3년제)	12	4	14	1	41	72
대학교(4년제)	144	42	24	10	289	509
대학원(석사)	15	0	2	1	19	37
대학원(박사)	2	0	0	2	1	5
전체	173	46	49	14	718	1,000

4. 추가 면접조사

가. 면접조사 방법

추가 면접조사는 설문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응답의 맥락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면접대상의 대표성보다는 연구 관심에 맞게 면접대상자를 선별하였다. 면접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자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응답결과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청년은 5명, 장년 부모는 9명을 면접하였다.

청년 응답자와 장년 응답자에 대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등 면접방법도 유연하게 설계하였다. 청년참여자의 면접은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화상회의 형식으로 각각 1시간 정도 진행하였다. 면접참여자의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등으로 지역을 다양화하고자 하였다. 부모 참여자 면접은 2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초점 집단면접(FGI) 방식으로 각각 2시간 가량 진행하였다. 서울과 대전에서 각

각 1회 이루어졌다. 청년과 부모 면접은 모두 2024년 10월 18일~23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나. 면접조사 내용

면접조사는 설문조사 응답결과 중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수혜) 경험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면접대상자는 이미 온라인조사에 참여하여 조사내용을 인지한 상황이었으며, 연구자는 면접대상자의 응답결과를 확인한 상태라는 특수성을 활용하여, 각 면접대상에 대한 일반적 질문과 더불어 맞춤형 질문도 추가하였다.

먼저 청년참여자의 면접은 응답자의 응답결과에 따라, 특정한 항목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맥락을 질문하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와 청년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집중하였다. 부모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참여자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면접참여자의 주관적 평가를 질문에 포함하였다.

부모세대 대상의 FGI에서는 부모가 인식한 최근 청년기의 특성에 대한 질문, 자녀의 정서, 이성교재 등 전통적으로 부모가 세심하게 살피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였다. 경제적 지원의 구체적 사례와 그로 인한 부담 정도, 그리고 향후 지원의 사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었다. 자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는 부모와 모든 영역에서 일정한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적정 수준의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가 모두 포함되었으며, 청년 참여자와 달리, 자녀와 전혀 지원관계를 갖지 않는 부모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 추가 면접조사 대상

추가 면접 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8〉 추가 면접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청년자녀 참여자

연번	성별	출생연도 (나이)	혼인 상태	최종 학력 (거주 지역)	취업 여부	주관적 사회 계층	부모 사항			
							구성 사항	동거 여부	부모 연령 (모/부)	부모 교육 수준 (모/부)
C1	여성	1997 (27)	미혼	대학원 졸 (서울)	취업	중상층	두 분 모두 계심	비 동거	1963 /1963	대졸 /대졸
C2	남성	1994 (30)	미혼	대졸 (부산)	취업	중상층	두 분 모두 계심	동거	1962 /1960	초졸 /중졸
C3	여성	2002 (22)	미혼	전문대 졸 (인천)	취업	중간층	두 분 모두 계심	동거	1969 /1966	대졸 /대졸
C4	남성	1999 (25)	미혼	고졸 (경기)	취업	중하층	두 분 모두 계심	비 동거	1974 /1969	고졸 /고졸
C5	남성	1997 (27)	미혼	대졸 (대전)	미 취업	중상층	두 분 모두 계심	동거	1961 /1956	대졸 /석사졸

28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표 1-9〉 추가 면접조사 참여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장년부모 참여자

연번	지역	성별	출생연도 (나이)	최종학력	취업여부	주관적 사회계층	자녀사항	
							자녀 수 (청년 자녀수)	동거 여부
P1	서울	여성	1970 (54)	대졸	미취업	중상층	1	동거
P2		여성	1966 (58)	대졸	취업	중상층	2	동거
P3		여성	1969 (55)	대졸	미취업	중상층	2	동거
P4		여성	1972 (52)	고졸	취업	중간층	3(2)	비동거
P5		여성	1967 (57)	고졸	취업	중간층	2	비동거
P6	대전	여성	1967 (57)	전문대 중퇴	취업	중하층	2	동거
P7		여성	1968 (56)	고졸	취업	중간층	3(2)	비동거
P8		여성	1973 (51)	고졸	미취업	중상층	2	비동거
P9		남성	1961 (63)	고졸	취업	중하층	2	비동거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2장

초기 성인기와 부모 지원의 배경

제1절 교육, 취업, 주거의 인구사회적 변화

제2절 교육제도와 가족

제3절 청년정책의 개입



제 2 장 초기 성인기와 부모 지원의 배경

2장에서는 부모 자녀 관계의 제도적 배경을 살펴본다. 1절에서는 인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9~34세 동안 학업, 취업, 주거 등의 상태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경험적인 생애패턴을 통해 오늘날 청년기의 특성을 살펴본다. 2절에서는 청년기를 규정하는 교육제도와 노동시장 기회 구조의 변화를 통해, 앞의 청년기 경험적 생애패턴의 제도적 맥락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청년기의 사회적 성격 변화에 조응하여 어떤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제1절 교육, 취업, 주거의 인구사회적 변화

1. 초기 성인기와 교육

이 절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청년의 생애패턴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생애패턴의 구성요소는 다양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청년이 부모로부터 자립하거나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떠맡는 정도를 중심으로 청년기 생애의 특성을 관찰한다. 구체적으로 학업, 취업, 주거와 관련된 상태가 19~34세의 생애동안 어떻게 배열되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개인의 생애과정 내에서 청년기보다는, 한 사회의 청년인구 집단과 청년기의 집합적 특성에 관심이 있다. 따라서 횡단면자료이며 인구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총조사 자료는 시기적 변화를 측정하기에 용이하다. 다만 여기에서 제시된 연령은 개인의 생애연령이 아닌, 주어진 한 시점의 연령분포라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2000년 이후 청년 중 최종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 78.5%가 2020년 68.8%로 감소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실제 대학 재학 기간과 가장 많이 중첩되어 있는 19~24세의 경우 2000년에는 졸업자 비율이 50.8%였으나 2020년에는 36.8%로 무려 14.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진학하는 청년의 비율이 증가한 데 따른 결과이다. 대학교육과정이 종료되는 연령대인 25~29세와 30~34세에서도 졸업자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크지는 않았다. 대학재학 인구의 증가가 청년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19~24세에 집중되어 있으나, 늦은 졸업이나 대학원 진학 등의 영향으로 25~29세 및 30~34세에서도 졸업자 비율은 각각 6.9%p, 5.9%p가 감소했다.

〈표 2-1〉 연도별 청년인구 중 졸업자 비율(2000~2020, 5년 간격)

(단위: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00년-2020년(%p)
19~24세	50.8	45.8	35.3	37.1	36.8	14.0
25~29세	88.6	86.1	80.6	81.2	81.8	6.9
30~34세	94.7	95.4	89.2	90.0	88.8	5.9
전체(19~34세)	78.5	76.9	70.5	69.6	68.8	9.7

주: '졸업자 비율'은 수학기분 항목 중 졸업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율이다. 그 외의 항목은 재학, 휴학, 수료, 중퇴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 자료의 수학기분 항목이 졸업과 비졸업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일관된 분석을 위해 여기에서는 졸업자 비율로 제시한다.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이처럼 청년인구 중 졸업자 비율이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한 것은 재학생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학생 비율은 15.5%에서 21.9%로 증가했다. 휴학과 수료, 중퇴 등도 약간 증가하였지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다만, 중퇴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 현재 5.0%를 차지하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2〉 연도별 청년인구(19~34세)의 수확상태 분포(2000, 2010, 2020)

(단위: %)

구분	2000년	2010년	2020년	2000년-2020년(%p)
졸업	78.5	70.5	68.8	9.7
재학	15.5	19.3	21.9	-6.4
수료	0.5	1.1	0.9	-0.3
휴학	2.9	4.5	3.5	-0.6
중퇴	2.7	4.6	5.0	-2.3
전체	100.0	100.0	100.0	-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청년인구 중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구의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졸업한 청년의 교육수준은 상승해왔다. 2000년 졸업자 청년의 60.2%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였지만, 2010년에는 그 비율이 31.5%로 줄어들었으며, 2020년에는 25.8%로 더 떨어졌다. 반면 4년제 대졸자 비율은 2000년 20.9%에서 2020년 47.5%로 증가했다. 대학원 석사, 박사 졸업자의 비율은 낮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년제 전문대 졸업자 비율은 2000년과 2010년 사이에는 17.4%에서 28.2%로 크게 늘어난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20년에는 전체 청년 졸업자 중 2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표 2-3〉 연도별 졸업자의 교육수준 분포(2000~2020, 5년 간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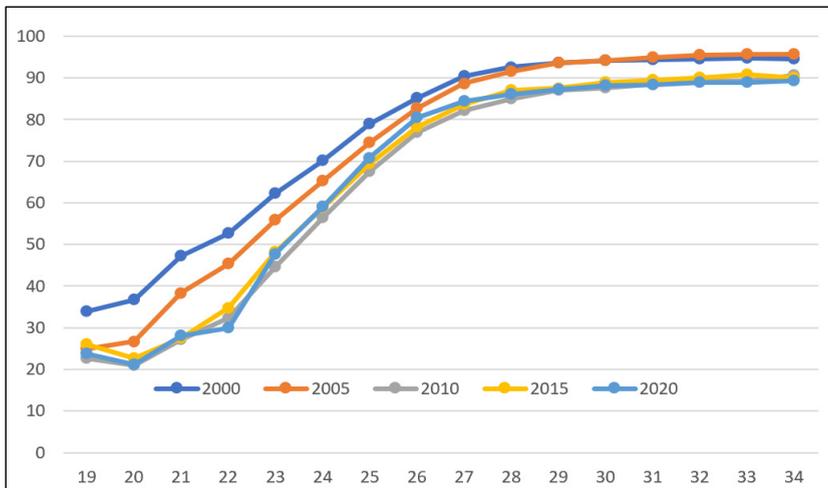
구분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2년)	대학교(4년)	대학원	전체
2000	4.0	56.2	17.4	20.9	1.5	100.0
2005	2.0	42.3	52.7*	-	3.0	100.0
2010	1.4	30.1	28.2	36.9	3.4	100.0
2015	0.9	25.2	26.1	44.0	3.9	100.0
2020	0.8	25.0	23.2	47.5	3.5	100.0

주: 2005년 자료의 대학(2년) 수치는 대학교(4년)을 포함한 것임.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연령별로 졸업자 비율을 살펴보면(〔그림 2-1〕 참조), 2000년에는 대략 21세 무렵에 졸업자 비율이 50%가 되었으나, 2020년에는 23세로 2세 증가했다. 졸업자 비율이 80%인 연령은 2000년에는 약 25세였으나 2020년에는 약 26세로 1세 증가했다.

〔그림 2-1〕 연도별 졸업자 비율의 연령 프로파일 (2000~2020, 5년 간격)

(단위: 세, %)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2. 초기 성인기와 취업

19~34세 청년인구 중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은 2000년 53.7%에서 2020년 62.5%로 증가했다. 남성의 경제활동 비율은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0년 66.0%에 비해 2020년에는 63.9%로 하락하였으며, 여성은 2000년 42.3%에서 2020년 61.1%로 크게 상승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국가로 간주된다.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 청년층인 만 25~34세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6.9%로 조사 대상국 중 체코(21.2%), 이탈리아(20.2%), 튀르키예(17.2%)에 이어 OECD 전체 4위였다. OECD 평균은 9.2%였는데 한국은 이보다 7.72%포인트 더 높았다(뉴시스, 2024. 9.10).

〈표 2-4〉 연도별 19~34세 청년의 경제활동 비율(2000~2020, 5년 간격)

(단위: %)

구분	남성	여성	전체
2000	66.0	42.3	53.7
2005	61.8	45.6	53.4
2010	64.7	55.2	59.8
2015	62.3	55.6	59.0
2020	63.9	61.1	62.5

주: 경제활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를 의미하며, 주로 일함, 틈틈이 일함, 잠시 쉬고 있음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청년의 경제활동참여 정도 및 형태는 교육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표 2-5〉 참조). 졸업한 청년은 남성 74.2%와 여성 63.3%가 주로 일하지만, 재학 중인 청년은 남성 76.5%와 여성 72.0%가 전혀 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인구의 증가는 일하는 청년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그만큼 경제적 독립 연령을 늦추게 된다.

그러나 졸업 청년 중 일하지 않는 비율과 재학 청년 중 일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졸업과 취업 간의 관계가 확실적이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재학 중인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남성 22.2%와 여성 26.2%가 틈틈이 일하고 있으며, 휴학 중인 청년은 주로 일하는 비율도 남성 32.9%, 여성 29.0%로 나타났다. 상당수의 청년들이 교육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졸업 청년 중에서도 일하지 않는 비율이 남성 22.0%, 여성 29.3%로 나타나, 학교-노동시장 이행의 지체 및 노동시장 진입 이후의 노동이탈 경향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 2-5〉 2020년 수학적정도별 경제활동상태 분포

(단위: %)

구분		졸업	재학	수료	휴학	종퇴	전체
남성	주로 일함	74.2	0.8	65.1	32.9	68.9	55.7
	틈틈이 일함	2.2	22.2	6.3	8.1	2.5	6.9
	일시휴직	1.6	0.5	1.6	1.7	2.9	1.5
	일하지 않음	22.0	76.5	27.0	57.2	25.7	35.9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성	주로 일함	63.3	1.1	56.2	29.0	50.4	48.5
	틈틈이 일함	3.9	26.2	8.4	11.6	6.3	9.1
	일시휴직	3.5	0.7	3.3	2.4	3.8	2.9
	일하지 않음	29.3	72.0	32.0	56.9	39.5	39.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주로 일함	68.6	0.9	60.4	31.7	62.9	52.1
	틈틈이 일함	3.1	24.2	7.4	9.3	3.7	8.0
	일시휴직	2.6	0.6	2.5	2.0	3.2	2.2
	일하지 않음	25.8	74.3	29.7	57.1	30.2	37.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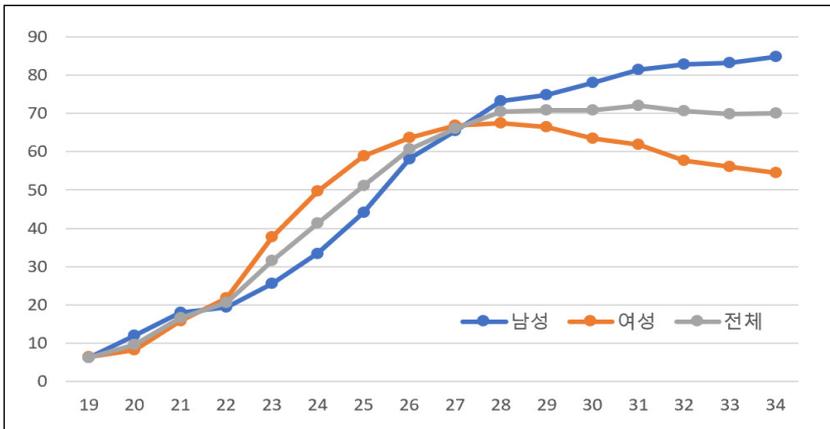
2020년 자료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청년 비율이 50%인 연령은 남성의 경우 약 25~26세이고, 여성은 약 24세이다. 남성이 1~2세 정도 늦다. 그러나 남성은 약 30세가 되면 청년의 80%가 주로 일을 하는 수준으로

취업이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약 27세를 정점으로 주로 일하는 비율이 하락한다.

모든 취업형태를 포괄한 경제활동 비율은 63.3%이지만, 그 중 틈틈이 일하거나 현재 쉬고 있는 청년을 제외하고 일이 주된 활동이라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은 그보다 낮은 52.1%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성은 20대 내내 주로 일하는 청년의 비율이 8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22~27세 동안 남성보다 더 높은 비율로 일을 하지만 20대 후반 이후 점차 그 비율이 감소한다.

[그림 2-2] 2020년 청년의 주로 일함 비율 연령 프로파일

(단위: %)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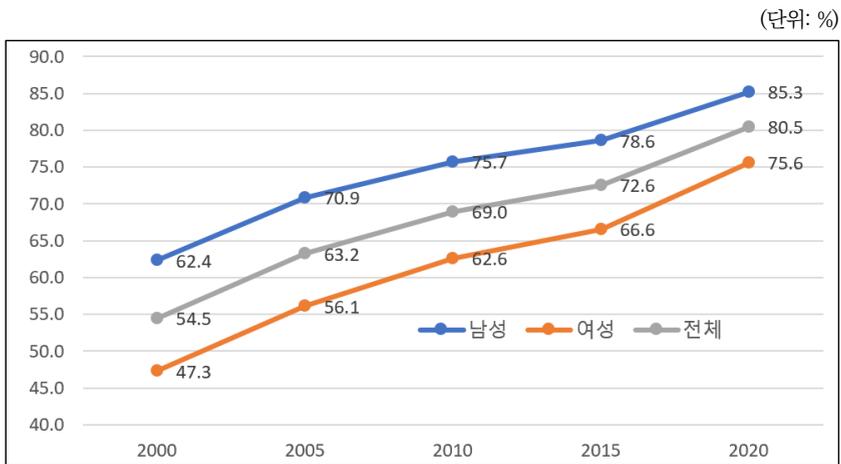
3. 초기 성인기와 결혼

2000년대 이후 청년의 미혼비율은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2000년 미혼 청년 비율은 54.5%였으나, 불과 20년만에 80.5%로 급증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격차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상당히 좁혀졌으며, 2000년과

2005년 사이, 그리고 2015년과 2020년 사이 미혼비율 상승이 더 가파르게 이루어졌다.

이상적인 초혼연령이 20대에서 30대로 이동하였으며, 결혼에 대한 태도도 변화하였다. 결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교육의 종료,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 등이 평균적으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으로 이동하였으며, 개인 간의 차이도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최선영 외, 2023).

[그림 2-3] 연도별 청년의 미혼 비율 (2000~2020, 5년 간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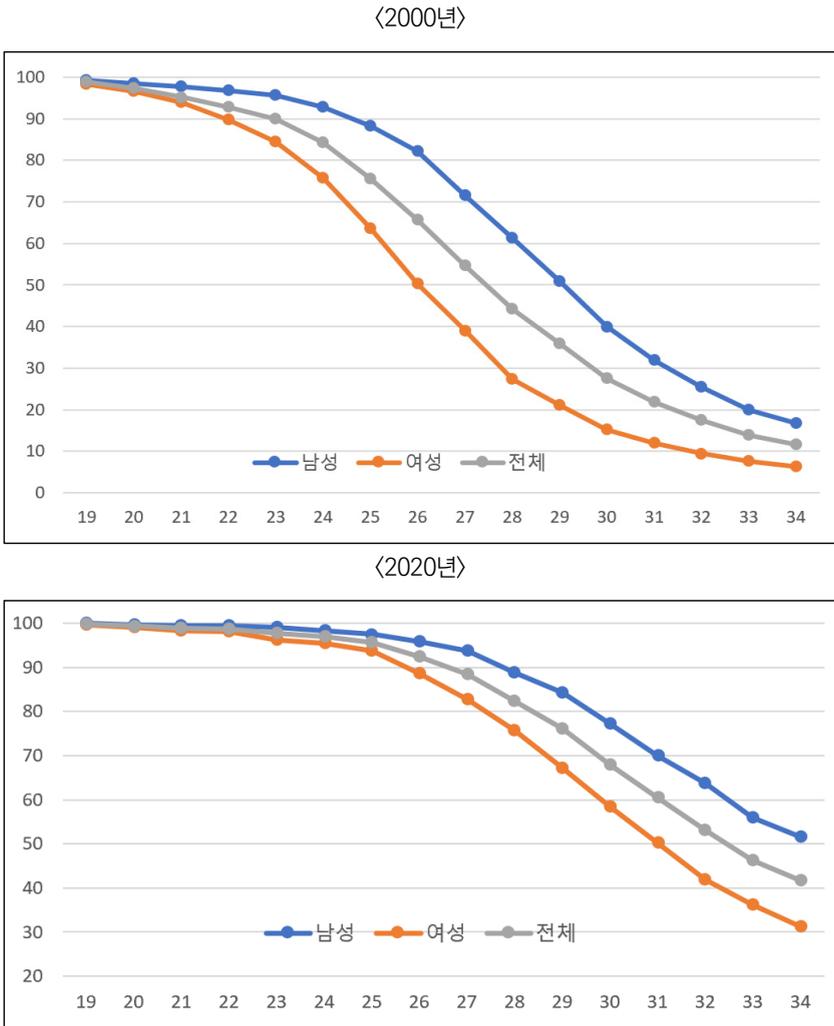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2000년과 2020년 자료를 통해 미혼에서 기혼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최근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본 것이 그림 2-4이다. 2000년에는 미혼 비율이 50%에 해당되는 시점이 남성 약 29세, 여성 26세였다. 즉 남성은 29세, 여성은 26세 즈음 해당 연령집단의 50%가 결혼을 하였다. 2020년에는 전반적인 혼인시점의 지연과 미혼경향의 증가로 인해, 미혼율 50%를 나타내는 연령이 크게 상승했다. 남성의 경우 미혼비율이 50%에 해당되는

연령이 34세를 초과하며, 여성은 31세 즈음 미혼비율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4] 2000년과 2020년 청년의 미혼비율 연령 프로파일

(단위: 세, %)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4. 초기 성인기와 부모 동거

가. 부모동거여부의 조작적 정의

다음은 청년의 주거형태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서는 부모와 함께 사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에는 혼자 살거나 부모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 살게 되는 데, 이를 1인가구와 다인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분석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여러 관련 항목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사에는 부모동거여부를 묻는 단일 문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구주택총조사는 가구 수준에서의 가구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설계되어 있어서, 청년의 부모 동거여부와 같이 개인의 동거형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구구성을 파악하는 방식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인데, 청년과 청년의 부모가 모두 가구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 부모-자녀 관계가 식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만 부모동거로 간주한다.

- 1) 청년이 가구주인 경우, 가구원 중에 가구주의 부모가 있으면 부모동거로 간주
- 2)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
 - 2-1) 청년이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
 - 2-2) 청년이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가구원 중에 가구주의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된 경우
 - 2-3) 청년이 가구주의 형제자매인 경우, 가구원 중에 가구주의 부모가 포함된 경우
 - 2-4) 청년이 가구주의 손자녀인 경우, 가구원 중에 가구주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
 - 2-5) 청년이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자녀이고, 가구에 가구주의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청년들은 가구주(의 배우자)이거나 가구주의 자녀이다. 그러나 가구주의 형제자매, 손자녀, 형제자매의 자녀인 경우도 낮은 비중이지만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이 가구주가 아닌 경우를 ‘가구주의 자녀,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형제자매, 가구주의 손자녀, 가구주의 형제자매의 자녀’인 경우만으로 한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가구원의 지위를 가구원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비가구원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건을 통해 부모동거 청년의 대부분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의 부모와 동거하는 것은 부모동거로 간주하지 않는다.

나.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비율¹⁾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비율은 2000년 43.3%에서 2020년 55.4%로 11.9%p가 늘어났다. 부모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지 않는 1인가구의 비율도 2000년 6.7%에서 2020년 20.4%로 13.5%p가 늘어났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 배우자 등과 함께 사는 비부모동거 다인가구 소속 청년의 비율은 2000년 49.9%에서 2020년 24.3%로 25.6%p가 감소했다. 부모동거와 1인가구는 늘어나고, 새로운 가구를 형성한 비율은 감소하였다.

2005년 이래로 부모동거 청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해왔다. 이에 근거하여 한국 청년의 가장 일반적인 주거형태는 부모동거라고 할

1) 통계청(2023.11)이 발간한 보도자료에서도 부모동거비율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작적 정의가 제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모동거, 1인가구, 부부가구, 기타 등으로 범주화하고 있어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가령 이 구분항목 중 부부가구에는 부모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불명확하다. 결정적으로는 기타 항목이 포함되어 나머지 항목의 의미도 모호해진다.

42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수 있다. 그러나 청년의 주거형태 변화 추세가 일방적으로 부모동거비율의 상승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비혼인구의 증가로 인해,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1인가구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부부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혼의 변화는 부모동거비율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의 변화는 동시에 1인가구의 비율도 높일 수 있다. 실제로도 지난 20년간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1인가구 비율이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부모동거가 늘어나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러한 결혼의 변화와 더불어, 생애주기상 청년의 다양성이 늘어난 점이다. 19~34세의 연령구간에는 교육상태, 취업상태, 가족상태 등에서 서로 다른 생애 위치에 있는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의 자립성 정도도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질성과 복잡성을 감안하면 평균적인 부모동거율이 제공하는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6〉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19~34세) 비율과 가구유형(2000~2020, 5년 간격)

(단위: %)

연도	부모동거	부모비동거		전체
		1인가구	다인가구	
2000	43.4	6.7	49.9	100.0
2005	47.3	9.5	43.3	100.0
2010	51.0	12.2	36.8	100.0
2015	53.8	14.6	31.6	100.0
2020	55.4	20.4	24.3	100.0

주: 1) 청년 본인과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 및 세대구성을 통해 측정함.

2)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부모비동거로 간주함.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청년기의 역동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주거형태 파악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청년의 교육, 취업, 결혼 등의 상태와 주거형태를 교차하고 시간적 변화를 관찰하도록 한다.

먼저 청년의 취업상태와 부모동거비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2020년 현재 비취업 청년은 취업한 청년에 비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경활 청년들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최근으로 올수록 부모동거율이 더 높아졌다. 전통적으로 비경활 청년 인구에는 자녀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결혼과 출산의 감소 및 유자녀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에 따라 이 인구의 비중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유자녀여성의 대부분이 결혼한 여성들로서 부모와 더 이상 동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 2-7〉 청년의 취업상태와 부모동거비율(2010, 2015, 2020)

(단위: %)

연도	취업				비취업	전체
	주로 일함	틈틈이 일함	일시휴직	전체		
2010	45.3	63.9	43.1	46.5	57.7	51.0
2015	46.5	66.6	33.8	47.8	62.3	53.8
2020	45.3	62.5	35.3	47.2	68.9	55.4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청년의 동거형태와 관련하여 가장 뚜렷한 사실은 결혼한 청년의 낮은 부모동거율이다. 결혼은 여전히 청년이 부모집을 떠나는 가장 일반적인 계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최근 미혼 청년인구 비율이 커진 것은 부모동거비율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8〉는 부모동거여부와 결혼여부를 교차시켜 만든 주거-결혼 교차 범주의 분포를 보여준다. 2000년에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청년이

44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40.2%,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기혼 청년이 42.3%를 차지했다. 이후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청년의 비율은 크게 상승하여 2020년에는 54.4%를 차지하였고,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기혼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여 18.5%로 떨어졌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미혼’의 비율도 늘어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2-8〉 청년의 부모동거 및 결혼여부 분포(2000~2020, 5년 간격)

(단위: %)

연도	부모동거		부모비동거		전체
	미혼	기혼	미혼	기혼	
2000	40.2	3.2	14.3	42.3	100.0
2005	44.7	2.6	18.6	34.2	100.0
2010	48.6	2.4	20.4	28.6	100.0
2015	52.1	1.7	20.4	25.7	100.0
2020	54.4	1.0	26.1	18.5	100.0

주: 1) 청년 본인과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 및 세대구성을 통해 측정함.

2)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부모비동거로 간주함.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다음은 성별에 따라 결혼여부에 따른 부모동거비율의 차이를 확인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미혼인 청년은 매우 높은 비율로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2010년까지 그 비율은 감소하였고 2015년 잠시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2020년에는 미혼 청년의 67.6%가 부모와 동거한다. 미혼남성의 부모동거율이 미혼여성의 부모동거율보다 근소한 정도로 낮지만, 둘 사이의 차이가 크지는 않다. 기혼 청년은 예상할 수 있듯이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낮다. 그러나 2000년에는 기혼남성의 13.1%가 부모와 동거하였고, 2010년까지도 10%가 넘는 비율이었는데, 2015년과 2020년에는 크게 감소했다. 반대로 기혼여성이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지만, 2000년대에 오히려 증가하였고 2010년대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2020년에는 기혼여성이 자기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이 기혼남성이 자기부모와 동거하는 비율보다 약간 높게 조사되었다.

〈표 2-9〉 연도별 성 및 결혼여부별 부모동거 비율(2000~2020, 5년 간격)

(단위: %)

구분	전체		남성		여성	
	미혼	기혼	미혼	기혼	미혼	기혼
2000	73.8	7.0	73.6	13.1	74.1	3.0
2005	70.6	7.0	70.3	12.8	71.1	3.4
2010	70.5	7.7	69.9	10.9	71.1	5.8
2015	71.8	6.2	70.9	7.4	73.0	5.4
2020	67.6	5.1	66.5	4.9	68.8	5.2

주: 1) 청년 본인과 가구원의 가구주와의 관계 및 세대구성을 통해 측정함.

2)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부모비동거로 간주함.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19세부터 39세까지 연령별 주거-결혼상태 범주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 [그림 2-5]이다. 미혼동거비율이 크게 늘어난 2020년에도 19세에서 39세 까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미혼 부모동거 비율은 감소하며, 기혼 부모 비동거 비율은 증가한다. 그러나 1인가구 비율도 30대 초반 이후 감소하는 패턴이지만 10%이상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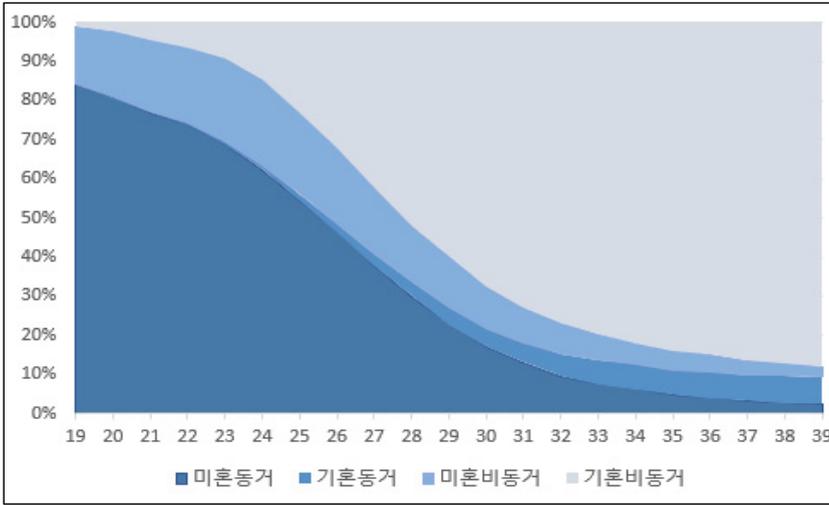
2000년에는 약 26세 무렵에 미혼 부모동거비율이 50%로 떨어지고 이후 계속 떨어지는 패턴이 나타났다. 2020년에는 미혼부모동거비율이 50% 수준으로 떨어진 연령이 약 28세이므로, 20년 사이에 2세 정도가 늘어났다고 이해할 수 있다.

46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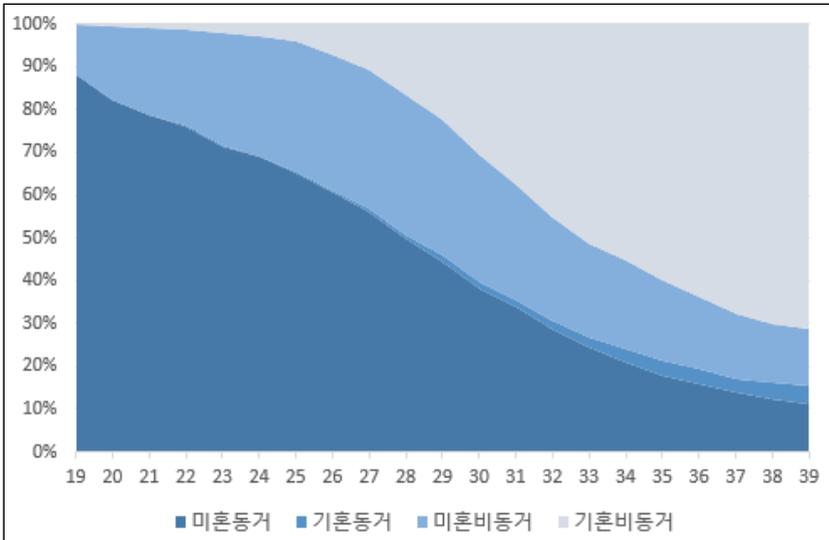
[그림 2-5] 19~39세의 부모동거 및 결혼여부의 연령 프로파일 (2000, 2020)

(단위: 세, %)

<2000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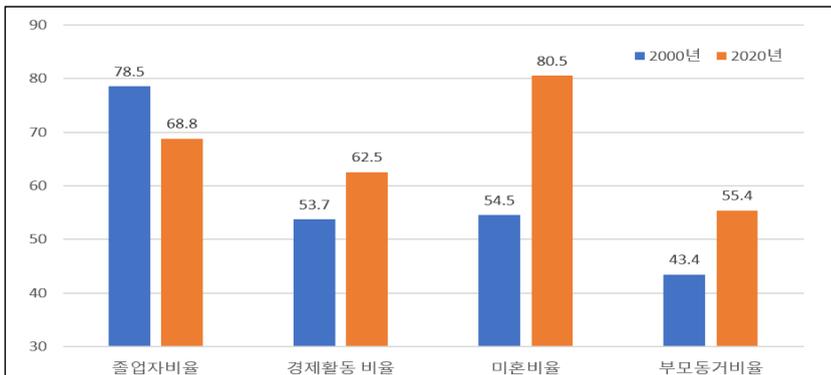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1절에서는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하여 19~34세 동안 학업, 취업, 주거 등의 상태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즉 경험적인 생애패턴을 통해 오늘날 청년기의 특성을 살펴보았다([그림 2-6] 참조). 최종학교 교육을 이수한 청년의 비율은 약 10%p가 감소했으며, 졸업한 청년의 교육수준에서 대학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어났다.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의 비율은 약 9%p 증가하였다. 경제활동 참여의 변화는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다. 남성은 20년간 큰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은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늘어났다. 결혼한 청년의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다. 미혼율은 26.0%p가 증가하였다.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의 비율도 11%p가 늘어났다. 높은 교육수준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가를 감안하면 청년의 인적자본 수준 향상을 배경으로 자립성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미혼비율이 급증하고 부모동거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러한 배경은 부모와 자녀가 과거보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지내면서 늘어난 교육기간과 미혼기간 동안 적극적인 지원관계를 형성하도록 만드는 사회경제적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6] 2000년과 2020년의 청년기 교육, 취업, 결혼, 주거 특성

(단위: %)



출처: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각 연도, 통계청.

제2절 교육제도와 가족

청년기의 변화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등교육 진학률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은 학교에 머무는 기간이 늘어났다. 이는 불가피하게 청년기를 의존적인 시기로 만들며, 특히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절에서는 대학교육의 확대과정과 노동시장의 기회구조 변화를 살펴 보고, 이것이 청년기 부모-자녀 관계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1. 대학진학의 보편화와 정부의 낮은 교육재정 투자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 고등교육 취학률이 50%를 상회하면서 대학교육 보편화 단계에 들어섰다. 대학취학률은 그 후 20여년 동안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23년 현재 76.2%에 이른다(대한민국정부, 2023). 25~3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22년 52.8%인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대학교육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고등교육 단계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의 부담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0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단계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OECD 평균(1.0%)보다 낮으며, 특히 공교육비의 정부지출 비율은 43.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67.1%와 큰 차이를 보인다(교육부, 2023). 2021년 자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그대로 나타난다. 정부의 낮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민간에 의해 보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표 2-10〉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단위: %)

기준 연도	구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초등~고등교육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2021년	한국	3.4	0.2	3.6	0.7	0.9	1.5	4.1	1.1	5.2
	(초기 재원)	(3.5)	(0.2)	(3.6)	(0.9)	(0.6)	(1.5)	(4.4)	(0.8)	(5.2)
	OECD 평균	3.2	0.3	3.4	1.0	0.5	1.5	4.2	0.8	4.9
	(초기 재원)	(3.2)	(0.3)	(3.4)	(1.0)	(0.3)	(1.5)	(4.3)	(0.6)	(4.9)

주: 1) 한국의 GDP : (2021년) 2,080.2조 원

2) OECD '합계'에는 해외 재원이 포함되어 정부, 민간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한국은 민간에 해외 재원 포함)

3) 동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4) 동 수치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을 민간 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이며, 이전 지출을 정부 재원으로 포함하는 초기 재원 기준 수치는 괄호()로 별도 표기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 결과 발표[보도자료]”. 2024. 9. 10., 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96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이와 같은 대학교육의 확대 추세는 1990년대 중반 교육개혁의 산물이다(김정인, 2018; 김형준, 2020). 1995년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개혁안’을 내놓고, 각 대학에 시장원리에 근거한 생존 전략으로서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했다.²⁾ 종전까지 대학교육의 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엄격한 정원통제를 추구했던 정부는, 1995년 돌연 ‘새로운 공급자의 진입 허용’을 통한 시장적 해법 중심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학설립준칙주의’와 기존 공급자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대학 정원 자율화정책이 그것이다. 대학 수준에서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2) 5.31 교육개혁안에서 대학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한 내용은 다음 네 가지이다. 1)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다양한 대학 모형의 개발과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2) 대학 설립, 정원 및 학사운영의 자율화: 준칙주의와 대학정원의 자율화, 3) 학술연구의 일류화: 세계 일류 수준의 연구 지원,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의 연계, 4) 대학교육의 국제화: 국제 관계 전문 인력 양성, 외국인 유학생 유입 및 대학 해외 진출 등이다(김정인, 2018).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다. 정부 규제를 줄이고 사회적 조절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이념을 교육 개혁의 핵심원리로 채택한 것이다(김정인, 2018).

그 결과 1996년과 2004년 사이 대학 수는 43개가 늘어났고 입학정원은 83만명 늘어났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따른 대학의 퇴출은 쉽지 않았는데, 구성원의 이동성이 확보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학의 수와 대학 정원 규모는 크게 늘어났다.

가족은 늘어난 대학교육기회에 조응하여 자녀의 대학교육 수요를 늘렸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학부모들의 73.6%가 자녀의 4년제 대학교육을 희망할 정도로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실제 대학진학 가능성(대학의 공급)을 초과하는 것이었다(김영화, 1992; 김형준, 2020에서 재인용). 이처럼 높은 고등교육수요는 1970년대 이래로 대졸자와 비대졸자 사이의 노동시장 성과의 큰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대학교육기회 확대에 조응하여 널리 확산된 ‘대학은 필수’라는 인식은 역설적이게도 대학졸업장이 약속하는 좋은 노동시장 지위의 산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980년대 초반 대학졸업정원제를 통한 대학정원 확대는 노동시장의 수요보다 대졸자 공급을 늘리도록 만듦으로써, 대졸자의 하향취업을 강제했다. 이는 대졸자의 상대적 임금수준이 떨어지도록 만들었지만, 과거 전문대와 고졸자가 들어갔던 노동시장을 대졸자가 채우도록 만들어, 전문대와 고졸자의 고용상황을 악화하는 데 기여했다(김형준, 2020).

대학이 필수가 된 시대는, 대학졸업장만으로는 노동시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대학간 서열화, 전문대학원, 해외유학 등 다양한 차별화의 방식이 등장했다. 대학

내에서는 교육내용의 변화가 나타났다. ‘수월성’의 방향성을 갖고 이루어진 대학교육개혁은 대학의 교육목표가 취업성과를 통해 측정되는 것을 의미했으며,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목표가 추구되었다.

2. 대학교육의 새로운 목표

대학의 교육력과 경쟁력의 주요 평가 지표로 취업성과가 활용됨에 따라, 대학은 정규 학사과정 이외의 비정규교과과정 등을 활용하여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한다. 영어 등 외국어 교육 교과목을 확장하는 학사과정 상의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토익이나 토플 시험 성적을 졸업요건으로 삼는 방식은 학사제도 상의 변화이기는 했지만, 해당 시험성적을 얻기 위한 ‘사적’인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전공과목의 학사운영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해외대학 학점 교류제(교환학생)도 마찬가지다. 대학은 정규학기 내에서 학생들이 해외 대학을 경험하고 외국어를 배우거나 실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일정한 선발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선별적으로 해당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늘어난 학비와 체류비용을 학생 스스로 감당하도록 하였다(교육기술과학부, 2012; 김신영, 김용련, 2014).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생의 진로역량을 개발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활동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구체적인 활동 및 프로그램으로는 진로결정 및 취업을 위한 인성·적성 검사 및 심리검사, 진로 및 취업 상담 프로그램, 취업박람회, 취업 관련 전공 및 교양 교육, 취업 캠프 및 특강, 취업 인프라 구축, 전공 관련 프로그램, 취업 담당자 능력개발 등이 있다(이영대, 윤희한, 2007).

한국교육고용패널 II의 4차년도(윤혜준 외, 2020)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의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대학생의 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개인간의 편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 경력개발센터 진로/취업상담, 진로/직업 멘토링, 진로개발 웹사이트 활용, 기업/채용정보제공, 취업준비 프로그램, 현장실습/인턴 프로그램, 취업박람회(잡페스티벌) 등에 대한 대학생의 참여경험여부를 가지고 잠재계층분석을 실행한 결과, 잠재계층은 적극참여형(5.9%), 기본형(33.3%), 저조형(60.8%)로 나타났다.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저조형은 학과교수와의 진로/취업상담에 30% 수준으로 참여한 것을 제외하면 모든 영역에서 5% 미만의 낮은 참여율을 나타내었다(김정은, 오영교, 2022).

이러한 대학의 노력은 한편으로 학생 개인이 감당하기에 벅찬 교육/능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취업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스펙’의 한 축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글로벌 인재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대학의 프로그램은 모든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제도화된 형태를 취하기보다 일부 학생이 개인적 노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내부에서의 차별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3. 대학교육과정의 개인화와 가족의 지원

한국 고등교육의 팽창 과정에서 소요된 재원의 대부분이 민간 가족에서 나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한국 대학 재정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고, 등록금 대부분을 개별 가족에서 부담해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족의 교육비 부담은 가족주의를 제도적으로 강제당한 사례로 평가되기도 했다(장경섭 외, 2015).

이러한 사정은 최근 10여년 사이 가족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첫 번째 조치는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이다. 1989년 대학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등록금이 계속해서 상승하자, 2010년 등록금 인상 억제 3대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가계의 등록금 부담은 완화되지 못했다. 2011년 ‘반값 등록금’이 의제화됨에 따라, 같은 해 9월 정부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약 1.75조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2년부터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전면 시행하였다. 2010년대 후반 이후로 국가장학금의 대상자와 규모가 커졌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200% 이하가 대상이 되며, 장학금의 규모도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는 드물다.

2024년 연간 대학등록금 평균은 대학 682만원, 전문대학 602만원이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OECD 교육지표 2024에 따르면, 한국 대학 등록금은 2022년 기준 국공립대는 자료제출 24개국 중 6번째, 사립대 등록금은 13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대학의 확대는 개별 가족의 교육비 부담을 높인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2023년 수행한 청년의 교육, 취업 경험 심층면접에 따르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대학기간 동안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혼란의 시기를 보냈으며,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자격은 대부분 혼자 알아서 찾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성인이행기로서 대학 생활의 성공은 미리 정해진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으로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최선영 외, 2023).

제3절 청년정책의 개입

1. 청년정책의 뒤늦은 시작

2000년대 중반부터 '3포 세대론'을 비롯하여 연령집단으로서 청년이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7-98년 경제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가 감소하였고, 경쟁이 심화되었다. 주거문제도 중요한 청년의 어려움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전까지 청년 또는 청년기는 사회정책의 대상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지 않았다. 청년대상 정책의 목표와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 역시 일관되지 않았다.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채용인센티브 정책 등이 청년이 수혜자가 되는 일부 프로그램이 있을 뿐이었지만, 대상자는 협소하고 혜택은 미미한 정책들이었다(정세정 외, 2019). 기존에는 청년정책 법률이 없어 법적 근거나 집행 체계가 모호하였고, 청년정책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 없다 보니 부처별 청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보기가 어려웠다(김기헌, 2017).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성남시가 국내 최초로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한 청년 배당을 실시하고, 다음 해인 2017년 9월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2018년 국회 내에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년기본법을 처음으로 발의 하기에 이른다(김지경 외, 2019). 같은 해 청년이 제1차 기초보장계획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취약 청년의 소득보장 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소득공제, 자산형성지원통장, 부양 부담 완화, 그리고 학자금 지원이 포함하였다. 주거복지에서는 청년의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해 청년주택

30만실 공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그리고 전월세자금 지원의 내용이 담겼다. 제3차 직업능력기본계획 중에서는 청년을 위해 고용서비스와 직업 연계 강화, 비정규직 맞춤형 훈련 지원, 고용보험 미가입자 내일배움카드 발급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청년 고용 문제는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되어, 기업 인센티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청년 일자리 개선, 취업 성공패키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2019년 ‘청년 희망사다리’가 발표되었다(기획재정부, 2019.7.17.). 이 계획에는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교육, 취업 청년 자립 등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주거의 경우, 역세권 청년 쉼어하우스, 기숙사 공급, 주거대출지원 등의 실행계획이 포함되었다. 복지의 경우, 자산형성, 즉 청년저축계좌(청년희망키움통장 등),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호,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포함되었다(기획재정부, 2019.7.17.).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청년정책은 ‘청년 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의 의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년의 기준을 19~34세로 처음 법적으로 정의하였다. 기존에서 부처별 사업별 통일되지 않았으나, 나이를 정의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수혜자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청년정책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전에는 주로 고용정책과 교육에 중점을 두었기에, 청년의 참여와 문화, 기본권 등은 충분히 다뤄지지 못하였다. 세 번째로는 부처별 산발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던 관련 정책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이철선 외, 2020).

2. 현재 청년정책의 영역과 특징

정부는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기본법 하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 수립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관계부처 합동, 2024.3.29.). 청년정책이 포괄하는 영역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그리고 참여·권리 등을 망라하여, 외형적으로는 정책의 체계성이 갖춰져 있다. 24년 계획에는 총 356개 과제를 통해 27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관계부처 합동, 2024.3.29.). 외형적인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 기조는 “재정지출 최소화 기조” 아래에서 “청년 수요와 정책효과성이 높은 청년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취약청년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임을 명시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24.3.29., p.5). 이는 특정 영역을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청년 중 일부 취약청년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이다.

〈표 2-11〉 청년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수 및 예산

분야	과제수(개)	청년예산(억원)		
		2023년	2024년	(비중,%)
I. 일자리	124	57,731	58,854	21.7
II. 주거	28	104,201	115,911	42.9
III. 교육	117	69,402	75,378	27.9
IV. 복지·문화	44	19,531	19,083	7.0
V. 참여·권리	43	888	1,233	0.5
※기타(非청년정책 등 제외)		2,425		
합계	356개	254,178	270,459	100%

출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4. 3.29. .

2024년도에 추진되는 청년정책 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12>와 같다. 일자리 분야는 일경험 지원과 더불어 재학생 청년에게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청년 창업자에게는 창업 단계별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주거 분야는 전년도인 23년도와 마찬가지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공급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여 청년이면서 가족 형성하는 이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자산형성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산을 주택 소유로 이어지는, 즉 주거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출시하였다. 즉, 해당 통장을 활용하여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 분야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 - 지역 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복지·문화 분야는 23년 신설된 청년도약계좌 제도를 개선하고, 청년통장사업의 중도해지요건 완화, 취약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청년 발굴 및 지원 시범사업 추진, 그리고 청년 마음건강을 초기진단을 지원한다.

<표 2-12> 2024년 청년정책 주요 추진목표

분야	기본계획 수정(~'25)	'23년 지원내용	'24년 시행계획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매년 일경험 프로그램 8만+α지원 등)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일경험 8.4만명 지원 재학생, NEET 청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공정채용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일경험 10만명 지원 15만명 재학생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창업 주기별 촘촘히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58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분야	기본계획 수정(~'25)	'23년 지원내용	'24년 시행계획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년, 58만호) • 43.5만 청년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공공분양 5.3만호, 공공임대 4.8만호 공급 • 초장기 모기지(최대50년) 지원 •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 공급 • 자산형성+내집마련 지원 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 신생아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 교육격차 해소를 교육 접근성 강화 •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산·학·연 협업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분야 인재양성방안 마련 * 바이오헬스, 반도체, 환경·에너지 등 • 교육과 일자리 연계한 맞춤형 • 역량강화 지원, 대학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적 수준의 중·장기 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대폭 경감 • 지역대학·산업 연계로 지역인재 양성
복지·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 1조원 지원 •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 지정(221개) •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 대폭 확대(現 9개부처 → 장관급 24개 부처) • 청년정책 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 •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시스템 구축 • 청년지표 신규 개발 및 청년친화 도시 지정·운영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청년도약계좌 제도 개선 * 희망적금 연계, 중도 해지요건 완화 등 •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 시범사업 추진 • 청년 마음건강 초기진단 지원

출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4. 3.29.)

종합하면, 청년정책 하에 추진된 과제들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향후 성인기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청년기의 주요 과업은 학교 졸업, 자격 획득 등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 취업하는 것, 부모님과 주거지를 분리하거나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것,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독립을 이루는 것, 더 나아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청년은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아직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청년으로 하여금 사회적 위험에 노출시키게 만든다. 그렇기에 청년정책은 이러한 이행기 과정에서 청년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청년정책이 미시적이고 청년 이행기적 관점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이정봉, 2021).

다음에서는 청년 이행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과거 청년정책의 주요 사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3. 이행기 관점에서 본 청년정책의 성격

이행기 관점에서 청년정책의 주요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그리고 참여·권리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데, 청년 이행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은 일자리, 교육 그리고 주거로 좁혀진다. 그럼 각 영역의 주요 사업들을 살펴 보면서, 청년 이행기에 역할을 하는 사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의 안정적인 이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지점들에 대해 논해보도록 한다.

가. 일자리 및 교육 이행 지원

청년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정책은 다른 영역에 비해 오랜 정책적 관심사였다.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노동시장의 한파는 시대에 따라 그 성격이 바뀔 뿐 지속되었다. 저성장 시대의 고용의 불안정성과 낮은 취업률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증추적 허리 역할을 담당할

청년층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정권마다 시행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외환위기의 극복 과정에서 나타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실행하며 청년 실업대책위, 고용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통해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을 초점으로 두었다(김규식, 2011). 이후 이명박 정부는 청년 고용촉진특별위 등을 통해 정책을 실행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 고용촉진특별위,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을 실행하였다(김규식, 2011). 일련의 정부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 청년정책은 인력개발, 직업능력개발 등을 통해 청년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김규식, 2011).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해결을 넘어 청년기본법 제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초반에는 청년정책이 주로 고용문제와 일자리에 방점을 두었으나, 점차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관심이 확장되고 체계화되었다.

〈표 2-13〉 역대 정부의 청년정책추진현황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법률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총괄기구	청년실업대책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	경제관계장관회의 청년위원회 청년고용촉진 특별위	청년정책조정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
총괄부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정책심의관 청년고용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고용대책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청년여성정책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사업부서	10개 부·처·청	6개 부·처·청	5개 부·처·청	18개 부·처·청· 처·위·지자체

구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청년일자리 예산(억원)	7,103	11,140	21,113	58,774(63,633)

주: 예산은 정부 3년차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이명박 정부는 2010년,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문재인 정부는 2020년임. 문재인 청년 예산에서 괄호안의 수치는 추경이 반영된 예산임. 출처: 정재현 외 (2021) 청년고용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제언, p.31

청년의 일자리와 교육 이행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살펴보도록 한다. 일자리 이행의 경우, 미취업, 취업, 그리고 불안정 노동형으로 구분되지만, 정책 대상 및 목표에 이러한 다양한 이행 상태가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지는 않다. 미취업은 노동시장 미진입형과 상급학교 진학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노동시장 미진입형의 경우, 미취업 및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특히 고등학교 졸업 청년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 구체적으로, 직업계고 졸업생에게 진로상담 및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릿지 학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3.29, p.22). 또한, 고졸 청년의 실무역량 재고를 위한 현장실습 수당과 장려금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검정고시 합격자나 중졸 등 고졸이 아니거나 학교 밖 청소년이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현재 청년정책에서 상급학교 진학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가장학금이 유일하다. 취업과 달리, 진학에 대해서는 상담과 멘토링 등의 서비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 내용은 교육이행에서 좀더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취업 지원 정책은 준비후 취업과 상용 취업으로 구분된다. 전자인 준비후 취업은 단기 준비와 장기 준비로 세부 구분된다. 단기 준비는 주로 신기술, 이공계, 과학 분야 그리고 예술 및 문화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즉, 인문·사회계 학생이 전공 및 관심 분야를 바꾸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이용할 만한 프로그램이 마땅치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장기 준비로서는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을 들 수 있다.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은 24년 현재 15개 학교가 참여하고, 전문대는 8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3.29., p.22). 아직은 많은 학교가 참여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들 대학교의 전공과는 IT, 신산업으로 집중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2024).

후자인 상용취업은 상용 지속과 상용이탈로 세부 구분하였다. 상용 지속 중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간 고용 유지할 시 제공되는 기업지원금이고, 일자리 채용 청년 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관계부처 합동, 2024.3.29., p.9). 상용 이탈에서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은 재창업자에게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 멘토링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관계부처 합동, 2024.3.29., p.10). 이러한 사업들은 청년과 기업으로 하여금 청년 고용을 촉진하도록 돕고,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 기여를 한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을 인력 정책이 아니라 청년정책이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다. 또한, 구직 단념 청년에게 창업 활동 지원도 필요하지만, 구직을 단념하게 만든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구직 단념 청년에게는 마음 건강 사업이나 부채 경감 등의 지원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노동형을 타겟으로 한 주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미취업, 취업, 그리고 불안정 노동형에 속한 국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지원 제외 대상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75세 이상인 사람,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기업 기업 근로자(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고 45세 미만인 사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상인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고등학교 1~2학년생,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조건부 수급자 또는 조건부와 유예자는 지원 가능) 등이다(고용24, 2024).

〈표 2-14〉 청년의 일자리/교육 이행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

미취업	노동시장 미진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릿지 학년 - 현장실습 수당 - 브릿지 학년 - 취업연계 장려금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디지털 분야 멘토링 지원 등 - 비번재판-산업 연계 지원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상급학교 진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장학금 -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취업	준비 후 취업	단기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첨단 분야 훈련 주요 사업(K-디지털 트레이닝 등) - 청년 국가기술자녀 응시료 지원 - 창업활동 및 내실화(생애최초 청년창업, 취업청년 사관학교 등) - 청년 예술가 및 청년 창작자 지원 	
		장기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상용 취업	상용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일자리 채용청년지원금 - 고졸 후학습 장학금 	
상용 이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단념청년 등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촉진 지원 - 청년 다시-드림(Dream) 프로그램 		
불안정 노동형	-	-	-	

주: 1) 기준은 '박미희, 홍백의(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p.37'에서 활용한 유형을 참조함.

2) 이 표에서는 모든 사업이 아닌, 일부 주요 사업만 살펴봄.

출처: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 합동, 2024. 3. 29.”

나. 주거이행 지원

청년의 주거정책 사업은 청년이 부모로부터 주거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지원부터 점차 주택 소유까지 그 지원 범위가 내실화되고 있다. 이행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살펴본 결과, 전월세, 공공임대, 그리고 자가로 구분하였다. 전월세의 경우, 비용 경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출시하거나, 월세지원사업,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등이 있다. 또한, 신생

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공공임대의 경우, 23년 53,000호 공급을 24년에는 61,000호로 확대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4.3.29). 다만, 이러한 사업에서 주거비의 지역별 가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않아 보인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주택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말 대출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프로그램 신청 요건이 되지 않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영역으로, 이 제도는 수급자에게 주택 임차료 실비 혹은 주택 수선비용을 지급한다. 선정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 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의 46% 이하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을 산정하는데, 기존에는 30대 이상만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했다. 즉 20대는 부모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 가구로 편성돼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여, 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시행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조건이 있었는데, 이는 즉, 취학 또는 구직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동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청년 삶의 특성을 고려할 때, 취학 또는 구직의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 이사한 지역에서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였다. 그러다가 24년부터는 취학 또는 구직 등의 사유 항목이 삭제되면서 부모와 떨어져 다른 시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30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수급자는 누구나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5년부터는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청년이 집과 거리가 먼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졸업 전까지 월 20

만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원 거리라함은 행정구역이 같은 곳이라도 편도 2시간 이상 걸리면 된다(송혜미, 2024.8.27). 다만, 왜 2시간을 원거리로 본 것인지는 의문이다.

자가의 경우, 청년주택드림통장이 있는데, 이는 기존의 청약통장인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을 잘 활용한 예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청년일 경우, 다른 성인과 달리 이자율 혜택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주택드림청약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자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이 대출은 시중보다 저리로 제공되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된다. 흥미로운 점은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추가 대출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결혼 시 0.1%, 최초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감면되며,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이다(국토교통부, 2024). 다만, 가치관 등의 변화로 인한 미혼청년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을 한 청년들만 중장기적으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 점은 한계로 남는다. 또한, 대출이 가능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국토교통부, 2024). 수도권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한다면, 혜택 수혜자 상당수는 비수도권 청년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민평형으로 제한한 점 역시, 주거 공간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 바 있다. 군복무를 한 청년 남성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일시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를 놓아주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도 있다. 기존의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청년층 중에서도 신혼부부가 가능하였으나, 23년부터 미혼청년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 19~39세 청년이

그 대상이며, 청약 당첨 횟수는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40%이하, 그리고 순자산 2억 6천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지원 자격을 얻는다(서기열, 2023.8.1.). 이를 통해, 무주택의 미혼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확대 되었으나, 수도권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소득이 높더라도 주택을 구매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존재하여, 실제로 혜택을 받는 청년들은 여전히 주택 구매가 쉽지 않을 것이다.

〈표 2-15〉 청년의 주거 이행 촉진을 위한 주요 사업

전월세	공공임대	자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기숙사 확충 • 전월세 비용 경감 • 주거비 지원(청년 월세 특별 지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프로그램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임대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층 뉴홈 공공분양주택 •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4.3.2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을 참고하여 작성함.



제3장

초기 성인기에 대한 부모 지원의 다차원성

제1절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상적 지원

제2절 자녀의 성인 이행과 부모의 전략적 지원

제3절 부모 지원의 다차원성과 의미



제 3 장

초기 성인기에 대한 부모 지원의 다차원성

제1절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상적 지원

1. 물질적 지원

가. 동거 지원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거 지원’이다. 대표적인 생활수단으로서 주거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영역이다. 더욱이 노동경력이 짧고 저축수준이 낮은 청년세대가 개인적으로 주거수단을 마련하기는 매우 어렵다. 더욱이 최근 주택 자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청년세대의 주택 접근성은 크게 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은 청년들로 하여금 부모와 동거하는 것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조건이 될 것이다.

부모와의 동거는 주거자원의 이전을 넘어, 부모와 자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공동생활은 단지 주거자원을 제공받는 경제적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가사와 돌봄 등을 비롯한 비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개연성을 높인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부모와의 동거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왔다.

그러나 부모와 동거하는 연령과 규모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부모동거의 성격도 변화하고 있다. 청년자녀와 부모가 동거하는 가족의 실제 지원 관계는 가족이 처한 상황과 부모-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자녀가 주거 자원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부모의 통제와 간섭 등으로 인해 성인으로 이행에 오히려 방해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부모동거=부모지원=자녀의존이라는 규정은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모동거여부와 더불어, 실제 가족생활의 내적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동거자녀가 공동생활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를 살펴보았으며, 이어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를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녀와의 동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조사한 결과를 설명하도록 한다.

19~34세 청년 응답자의 62.8%가 부모와 동거 중이며, 37.2%는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³⁾ 우리나라 청년은 초기 성인기 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부모로부터 동거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취업한 청년, 소득이 높은 청년도 부모동거율이 50%에 근접하는 것도 초기 성인기에 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여전히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특성에 따라 부모동거율의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이 여성보다 동거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 동거비율이 높았다. 청년의 학업상태, 취업여부, 소득수준 등이 동거율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은 83.1%가 부모와 동거하며, 취업한 청년의 부모 동거비율은 56.4%로 평균보다 낮았다. 청년의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부모 동거비율은 낮아져, 월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청년은 42.9%만이 부모와 동거하는 반면, 월 200만원 미만의 청년은 68.5%가 부모와 동거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34세 청년의 부모동거율이 전반적으로 높지만, 대학재학, 미취업 또는 구직 상태,

3) 이는 2장에서 검토한 인구주택총조사(2020년) 부모동거율 56.0%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 조사의 경우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있는 청년만을 조사대상으로 삼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부모동거율의 증가추세를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 조사가 상대적으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을 더 많이 표집했다고 해석해도 무리는 없다.

저소득)이 부모동거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는 주거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청년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표 3-1〉 청년응답자의 특성별 부모동거 여부

(단위:%)

구분	동거	비동거	계	사례수(명)
전체	62.8	37.2	100.0	(1,000)
성별				
남	67.7	32.3	100.0	(526)
여	57.4	42.6	100.0	(474)
연령				
19~24세	83.7	16.4	100.0	(318)
25~29세	62.8	37.2	100.0	(333)
30~34세	43.8	56.2	100.0	(349)
지역				
서울	62.8	37.2	100.0	(223)
인천/경기	64.3	35.7	100.0	(336)
대전/세종/충청	56.6	43.4	100.0	(106)
광주/전라	68.7	31.3	100.0	(83)
대구/경북	69.9	30.1	100.0	(83)
부산/울산/경남	59.1	40.9	100.0	(132)
강원/제주	51.4	48.7	100.0	(37)
지역				
수도권	63.7	36.3	100.0	(559)
비수도권	61.7	38.3	100.0	(441)
학력				
대학재학 중	83.1	16.9	100.0	(213)
고졸 이하	56.4	43.6	100.0	(415)
초대졸	58.5	41.5	100.0	(41)
대졸 이상	58.3	41.7	100.0	(331)

72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구분	동거	비동거	계	사례수(명)
취업 여부				
일하고 있음	56.4	43.6	100.0	(629)
주부	15.4	84.6	100.0	(39)
학생	85.9	14.1	100.0	(142)
구직/무직	76.3	23.7	100.0	(19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68.5	31.5	100.0	(181)
200-300만원 미만	55.5	44.5	100.0	(254)
300-400만원 미만	48.7	51.3	100.0	(117)
400만원 이상	42.9	57.1	100.0	(77)
일자리 없음(소득없음)	73.6	26.4	100.0	(371)

청년응답자 중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함께 생활하는 가구 내에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동거 청년의 47.8%가 일시적, 비정기적, 정기적인 형태의 경제적 기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70.0%는 식사, 청소, 빨래 등 가사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5.9%의 청년은 부모에게 신체적인 돌봄을 제공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청년들이 가장 빈번하게 가구에 기여하는 방식은 가사일을 분담하는 것이었으며, 약 절반에 해당하는 청년들은 경제적인 기여도 하고 있었으며, 부모를 신체적으로 돌보는 청년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특히 취업한 청년의 가구기여에 대해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취업한 청년의 부모동거율이 56.4%로 높은 비율이었는데, 이러한 부모동거 취업 청년의 64.5%가 다양한 형태로 동거가구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비정기적인 생활비 부담 비율은 58.8%, 주거비(구입 및 임대 비용) 일부 부담 비율은 25.7%, 정기적인 생활비 지급 비율은 34.2%로 나타났다. 취업한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년에 비해 동거가구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주로 비정기적인 형태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공동으로 가구를 부양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3-2〉 부모동거 청년의 가족생활 기여 여부

(단위: %)

구분	① 생활비 일부 부담	② 주거 비용 부담	③ 정기적 현금 제공	①②③ 중 하나 이상	가사 분담	부모 돌봄	사례수 (명)
전체	43.8	17.7	22.8	47.8	70.0	15.9	(628)
성별							
남	45.7	19.8	23.7	49.4	68.5	18.9	(353)
여	41.3	15.1	21.7	45.6	71.8	12.0	(275)
연령							
19~24세	30.1	9.0	10.6	32.7	66.6	9.8	(264)
25~29세	48.1	20.6	27.3	52.6	70.9	17.1	(211)
30~34세	61.3	28.6	37.8	67.3	74.5	24.8	(153)
취업 여부							
일하고 있음	58.8	25.7	34.2	64.5	73.3	19.4	(355)
주부	66.3	33.1	49.7	83.3	49.7	49.7	(6)
학생	19.6	6.5	4.9	19.7	62.4	4.9	(122)
구직/무직	26.3	6.9	9.0	29.0	68.9	15.2	(145)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41.3	14.5	12.1	44.4	72.7	10.6	(123)
200~300만원 미만	66.8	24.7	44.6	73.8	68.2	20.5	(142)
300~400만원 미만	70.4	40.7	49.5	77.2	77.2	27.7	(57)
400만원 이상	69.8	45.6	45.3	78.8	90.9	33.1	(33)
일자리 없음(소득없음)	24.2	7.3	8.1	26.0	65.6	11.4	(273)

이러한 사실은 부모대상의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현재 청년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 중, 이들에게 청년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동거한다는 응답이

74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44.8%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자녀가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모으도록 하기 위해 자녀와 함께 산다고 응답한 비율이 20.7%로 2위를 차지하였다. 근소한 차이지만 한 가족이니까 가능한 함께 오래 지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은 20.1%로 3위를 차지하였다.

〈표 3-3〉 (부모 응답) 자녀와 동거하는 이유

(단위: %)

구분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여건이 안되어서	(자녀가)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모으도록 하기 위해	한 가족이니까 가능한 한 오래 함께 지내고 싶어서	자녀의 소득 또는 돌봄이 필요해서	자녀에게 가사(식사, 청소, 빨래 등) 도움을 주기 위해	기타	계	사례수 (명)
부모	44.8	20.7	20.1	6.0	5.7	2.8	100.0	(742)
성별								
남	46.0	20.0	21.5	6.6	4.7	1.2	100.0	(334)
여	43.7	21.3	18.9	5.4	6.4	4.1	100.0	(408)
지역								
수도권	47.6	20.0	21.3	4.9	4.7	1.4	100.0	(427)
비수도권	40.9	21.7	18.4	7.3	7.0	4.7	100.0	(315)
자녀 수								
1명	48.6	18.9	18.0	6.3	5.4	2.7	100.0	(111)
2명	44.5	20.1	20.9	5.7	5.7	3.0	100.0	(526)
3명 이상	41.9	25.8	18.1	6.7	5.7	1.9	100.0	(105)

현재 청년 자녀와 동거하는 부모에게, 자녀와 동거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청년 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60.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이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부모와 청년 자녀가 같이 사는 것이 결국 청년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청년 자녀와의 동거가 부모인 나의 경제적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47.6%로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였다. 특히 자녀 수가 1명인 부모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마지막으로 청년 자녀와의 동거가 결국 부모 자신의 원하는 삶을 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가장 낮은 44.5%로 나타났다.

부모와 청년자녀의 동거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접촉 빈도를 높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부모응답자들에게 대체로 긍정적인 의미로 수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 자신이 원하는 생활을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청년자녀와의 동거가 부모 자신의 개인적 삶에 대해서는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3-4〉 (부모 응답) 부모자녀 동거가 부모자녀 관계 및 개인적 삶에 대한 긍정영향 동의비율

(단위: %)

구분	나와 자녀의 관계	나의 경제적 상황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사례수 (명)
전체	60.8	47.6	56.7	44.5	(742)
성별					
남	57.4	48.9	53.5	43.3	(334)
여	63.7	46.5	59.4	45.5	(408)
자녀 수					
1명	60.3	49.5	58.5	44.1	(111)
2명	61.6	48.1	56.9	45.3	(526)
3명 이상	57.2	42.9	54.3	41.0	(105)
지역					
수도권	61.0	48.3	59.2	45.5	(427)
비수도권	60.5	46.6	53.5	43.2	(315)

주: 긍정적 인식은 4점 척도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의 비율임.

청년자녀의 응답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청년의 51.6%가 부모동거가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나,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기여에 대해서는 39.4%만이 동의

76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하였으며,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사는 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도 40.7%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동거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만족에는 기여하지만, 부모에게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고, 부모와 자녀 각자의 자율적 삶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3-5〉 (자녀 응답) 부모자녀 동거가 부모자녀 관계 및 개인적 삶에 대한 긍정영향 동의비율

(단위: %)

	나와 부모님의 관계에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사례수 (명)
전체	51.6	39.4	40.7	(628)
성별				
남	49.5	37.7	40.7	(353)
여	54.3	41.5	40.7	(275)
학력				
대학재학 중	66.1	47.1	51.0	(176)
고졸 이하	41.6	29.7	30.1	(234)
초대졸	62.8	54.3	50.1	(24)
대졸 이상	49.2	42.3	43.0	(193)
취업 여부				
일하고 있음	52.0	42.7	42.4	(355)
주부	16.6	33.1	16.6	(6)
학생	67.2	43.5	54.1	(122)
구직/무직	39.1	28.0	26.3	(145)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53.8	33.8	35.3	(123)
200-300만원 미만	51.0	45.8	45.2	(142)
300-400만원 미만	47.2	47.6	42.0	(57)
400만원 이상	57.5	54.5	57.5	(33)
일자리 없음(소득없음)	51.1	35.0	38.5	(273)

주: 긍정적 인식은 4점 척도에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응답의 비율임.

나. 재정적 지원

주거지원은 재정적 지원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지원의 형태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구분한다. 부모의 재정적 지원은 부모지원의 핵심이다. 부모의 재정적 지원은 부모-자녀의 동거를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동거비율보다 경험율이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 지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원금액도 중요하지만, 지원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 청년의 성인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동기 와도 관련될 것이다.

1) 현금지원 경험 여부

지난 1년간 초기 성인기 자녀에게 현금 지원을 한 부모는 64.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고, 35.1%는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청년의 58.7%인 과반수 이상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41.3%는 현금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부모 응답이 자녀응답보다 부모지원이 더 많다고 평가한다.

〈표 3-6〉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현금 지원 받은 경험

(단위: %)

구분	네	아니요	계	사례수 (명)
부모	64.9	35.1	100.0	(1,600)
청년	58.7	41.3	100.0	(1,000)
성별				
남	59.1	40.9	100.0	(522)
여	58.3	41.7	100.0	(478)
지역				
수도권	58.4	41.6	100.0	(559)
비수도권	59.1	40.9	100.0	(441)
동거 여부				
부모 동거	63.6	36.4	100.0	(628)
비동거	50.4	49.6	100.0	(372)

다음으로,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지원 금액을 보면, 부모 응답에서는 지난 1년간 평균 1,409만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학비 및 취업 준비 학원 등의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 높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자녀 응답에서는, 평균 542만원을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부모와 청년의 응답에서 지원규모 격차가 두드러진다. 지원을 제공한 부모는 더 많은 금액을 보고하고, 지원을 제공받은 청년은 더 적은 금액을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7〉 지난 1년간 부모로부터 받은 현금 지원 금액

(단위: %, 만원)

현금 지원 받은 경험 있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계	사례수 (명)	평균
부모	12.1	32.5	20.5	34.8	100.0	(1,038)	1409.0
청년	27.7	44.5	14.8	13.0	100.0	(587)	542.6
성별							
남	28.2	45.2	12.8	13.8	100.0	(308)	585.4
여	27.2	43.7	16.9	12.2	100.0	(279)	495.3
지역							
수도권	26.3	41.3	15.9	16.5	100.0	(326)	605.7
비수도권	29.4	48.5	13.4	8.7	100.0	(261)	463.6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7.5	46.9	15.0	10.7	100.0	(400)	457.8
비동거	28.2	39.4	14.3	18.1	100.0	(188)	723.3

2) 자금 조달 경로

부모로부터의 현금지원은 초기 성인기 자녀의 중요한 생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에게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생활비(식비, 주거비, 의복비, 공공요금 등)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를 물어보았다. 1~3순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순위를 구분하지 않고 1~3순위를 합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생활비를 조달하는 방식은 내가 번 수입(81.8%), 부모님(55.8%)이 가장 빈도가 높았고, 정부 보조(10.9%), 장학금(10.6%), 대출(10.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 외로는 형제/자매(9.7%), 배우자(9%), 조부모(6.4%) 등 가족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조달하였다는 비중도 적지 않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를 통해 생활비를 조달한 비율이 69.3%로 높게 나타났지만,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32.9%에 불과했다.

〈표 3-8〉 지난 1년간 생활비 조달 경로 (1+2+3순위)

(단위: %)

전체	내가 번 수입	부모	정부 보조	장학금	대출	형제/자매	배우자	조부모	해당 사항 없음	기타
전체	81.8	55.8	10.9	10.6	10.2	9.7	9.0	6.4	4.5	1.1
성별										
남	82.5	59.0	10.3	11.1	10.3	10.1	4.9	6.2	5.4	0.6
여	81.0	52.3	11.6	10.1	10.2	9.3	13.4	6.5	3.6	1.7
지역										
수도권	82.2	57.9	10.2	9.6	11.3	10.5	8.5	5.9	4.1	1.4
비수도권	81.2	53.1	11.9	11.9	8.9	8.6	9.6	7.0	5.0	0.7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9.0	69.3	10.1	13.3	7.8	11.7	2.4	7.9	5.1	0.6
비동거	86.5	32.9	12.4	6.2	14.3	6.2	20.1	3.7	3.5	1.9

2. 비물질적 지원

가. 정서적 지원

최근의 가족생활 전반에서 정서적 만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과거 20세기 가족이 도구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다면, 21세기 초반 가족에게 기대되는 핵심적 기능은 정서적 기능이다(박종서, 최선영, 김유경, 변수정, 조성호 외, 2020). 청년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한 이 조사에서도 정서적 기능의 중요성은 다시금 확인되었다.

먼저, 부모가 인식한 자녀와의 친밀도를 살펴보면, 부모의 62.6%는 자녀와 친밀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55%)보다 여성(69.1%)이 더 친밀하다고 답하였다. 지역의 경우, 비수도권 거주자(64.2%)가 수도권 거주자(60.8%)보다 자녀와 친밀하다고 답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자녀 수가 2명(63.5%)인 경우와 3명 이상(63.2%)인 부모가 자녀 수가 1명(57.1%)인 부모보다 자녀와 가깝고 친하다고 답하였다.

〈표 3-9〉 자녀와의 친밀도

(단위: %, 점)

	① 서먹함, 불편함, 어색함	②	③	④	⑤ 매우 친근함	계	평균
전체	1.4	6.9	29.1	40.9	21.6	100.0	3.8
성별							
남	1.3	8.6	35.1	39.5	15.5	100.0	3.6
여	1.4	5.5	24.1	42.2	26.9	100.0	3.9
지역							
수도권	1.8	6.2	31.2	40.7	20.1	100.0	3.7
비수도권	1.0	7.6	27.3	41.1	23.1	100.0	3.8
자녀 수							
1명	3.0	8.1	31.7	39.1	18.1	100.0	3.6
2명	1.1	6.4	29.0	41.0	22.5	100.0	3.8
3명 이상	1.3	8.2	27.3	42.5	20.7	100.0	3.7

청년자녀에게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여 정서적 친밀도를 질문하였다. 먼저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전체의 72.1%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어색하다는 응답비율은 8.9%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18.9%로 조사되었다. 청년들이 어머니와 친하고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어머니와의 친밀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성 청년의 75.3%가 어머니와 가깝거나 매우 가깝다고 응답했다. 또한 20대 초반 청년들의 80.7%가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친밀하다고 응답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는 친밀도가 다소 낮아졌다. 부모와 동거할수록 어머니와의 친밀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청년자녀가 아버지에게 느끼는 정서적 친밀도는 어머니의 친밀도와 달리 높지 않았다. 청년의 42.3%가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친근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어머니의 친근도보다 29.8%p가 낮은 수준이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청년이 아버지에게 느끼는 친근감이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여성청년이 아버지에게 느끼는 친근감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 동거할수록 아버지에게 대한 친근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82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표 3-10〉 어머니와의 친밀도

(단위: %, 점)

어머니 계심	① 서먹함, 불편함, 어색함 등을 느낌	②	①+②	③	④	⑤ 매우 친근하다고 느낌	④+⑤	계	평균
전체	4.3	4.7	8.9	18.9	38.9	33.2	72.1	100.0	3.9
성별									
남	3.5	4.5	7.9	22.9	43.9	25.3	69.2	100.0	3.8
여	5.1	4.9	10.0	14.7	33.5	41.8	75.3	100.0	4.0
연령									
19-24세	1.6	4.2	5.8	13.5	41.6	39.1	80.7	100.0	4.1
25-29세	6.5	4.2	10.7	21.1	36.3	31.9	68.2	100.0	3.8
30-34세	4.7	5.5	10.2	22.0	38.9	28.9	67.8	100.0	3.8
동거 여부									
부모 동거	3.1	3.5	6.6	18.7	39.1	35.7	74.7	100.0	4.0
비동거	6.3	6.8	13.1	19.4	38.6	28.8	67.4	100.0	3.8

〈표 3-11〉 아버지와의 친밀도

(단위: %, 점)

아버지 계심	① 서먹함, 불편함, 어색함 등을 느낌	②	①+②	③	④	⑤ 매우 친근하다고 느낌	④+⑤	계	평균
전체	13.0	16.8	29.8	27.9	29.1	13.3	42.3	100.0	3.1
성별									
남	9.4	16.1	25.5	31.6	28.6	14.3	42.9	100.0	3.2
여	17.0	17.6	34.6	23.8	29.6	12.1	41.6	100.0	3.0
연령									
19-24세	10.6	13.7	24.3	23.4	32.8	19.5	52.3	100.0	3.4
25-29세	15.2	17.3	32.4	26.0	29.0	12.5	41.6	100.0	3.1
30-34세	13.1	19.5	32.6	34.4	25.3	7.7	33.0	100.0	3.0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2.1	16.8	28.9	27.1	29.9	14.1	44.0	100.0	3.2
비동거	14.5	16.9	31.4	29.2	27.7	11.8	39.4	100.0	3.1

최근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관계에서 부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정서적 지원이 부모의 자녀 지원 활동의 중요한 일부라고 주장한다(Fingerman et. al., 2009; 송인주, 2023). 이 연구에서는 가설을 가지고 정서적 유대에서 지원의 방향성을 식별하기 위한 조사문항을 포함하였다. 그 결과, 거의 대부분의 부모 응답자(96.5%)가 자녀의 기분을 존중한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편하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배려하며(92.5%), 자녀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해하려고 노력하며(91.6%), 나아가 가능하면 자녀의 기분에 맞추려고 하는 적극성(81.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대화를 늘리기 위해 자녀의 관심사를 좇거나 공부한다는 응답률도 58.1%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자녀가 성인이어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꼭 필요하다는데 부모의 85.4%가 동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책임감이 자녀의 기분과 정서로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84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표 3-12〉 (부모 응답) 자녀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인식

(단위: %)

구분	나는 자녀의 기분을 존중한다	자녀가 편하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배려한다	가능하면 자녀의 기분에 맞춰주려고 노력한다	자녀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녀와 대화를 늘리기 위해 자녀의 관심사를 쫓거나 공부한다	자녀가 성인이어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례수 (명)
전체	96.5	92.5	91.1	91.6	58.1	85.4	(1,600)
성별							
남	95.8	90.8	88.9	88.9	58.1	81.2	(738)
여	97.1	93.9	93.0	93.8	58.1	88.9	(861)
연령							
45-49세	93.7	87.2	88.8	92.0	65.6	95.9	(125)
50-54세	96.4	92.4	89.8	92.4	59.1	88.4	(396)
55-59세	97.0	93.0	92.4	91.8	59.7	85.2	(498)
60-64세	96.5	93.2	91.8	90.9	55.3	80.6	(425)
65-69세	97.4	93.6	90.5	90.4	51.9	82.7	(155)
자녀 연령							
19~24세	95.7	90.1	89.2	92.1	59.3	89.1	(483)
25~29세	97.0	93.4	92.2	91.9	58.6	87.3	(503)
30~34세	96.8	93.6	91.7	90.9	56.8	80.9	(613)
동거 여부							
동거	96.1	91.9	91.0	92.3	60.8	87.1	(742)
비동거	96.9	93.0	91.3	90.9	55.8	83.8	(858)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한 부모의 정서적 지원 정도는 그보다 낮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77.7%의 청년들이 부모가 내 기분을 존중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응답도 69.6%로 나타났다. 청년의 65.9%가 부모에게 내 기분이나 감정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부모는 내 기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청년 비율도 63.8%로 높았다. 부모가 내 관심사를 알고 함께 관심을 가져주는 매우 적극적인 지원 경험율도 59.8%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이

느끼기에도 부모는 청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79.7%의 청년이 동의하였듯이, 이러한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청년 자녀들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청년 여성(82.6%)은 남성(77%)보다 자녀가 성인이어도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 정서적 관계는 남성이 여성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 거주자들은 비수도권 거주자들에 비해 부모님은 내 기분을 존중하고 부모님이 내 관심사를 알고 함께 관심을 가져준다는 응답 비율이 비수도권 거주자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은 비동거 청년보다 부모가 귀하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3-13〉 (자녀 응답)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인식

(단위: %)

구분	부모님은 내 기분을 존중한다	나는 부모님께 내 기분이나 감정을 편하게 이야기하거나 드러낼 수 있다	부모님은 대체로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부모님은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부모님은 내 관심사를 알고 함께 관심을 가져준다	자녀가 성인이어도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는 꼭 필요하다	사례수 (명)
전체	77.7	64.9	69.6	63.8	59.8	79.7	1,000
성별							
남	80.2	66.9	71.3	68.2	61.6	77.0	(522)
여	74.9	62.6	67.8	58.9	57.8	82.6	(478)
지역							
수도권	78.9	63.7	68.5	63.0	59.0	80.0	(559)
비수도권	76.2	66.4	71.0	64.8	60.8	79.3	(44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79.7	65.5	72.4	65.9	61.7	81.0	(628)
비동거	74.2	63.7	64.8	60.2	56.5	77.4	(372)

한편, 자녀가 부모를 정서적으로 의지하는가를, 부모와 자녀 각각에게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모 응답자는 자녀가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한다는 데 69.5%가 동의하였고, 청년응답자는 자신이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지에 대해 65.8%가 동의하였다. 부모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가 정서적으로 의지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부모에게 의존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청년의 경우 성별 차는 그리 크지는 않았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67.9%)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64.2%)보다 부모님에 대한 정서적 의지 정도가 약간 더 높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70.6%)이 비동거 청년(57.8%)보다 정서적 의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의지 정도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①+②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계	사례수 (명)	평균
부모 전체	3.7	26.8	30.5	61.1	8.3	69.5	100.0	(1,600)	2.7
성별									
남	3.5	30.7	34.2	59.8	6.0	65.8	100.0	(738)	2.7
여	4.0	23.5	27.4	62.3	10.3	72.6	100.0	(861)	2.8
나이									
45~49세	0.8	21.5	22.3	60.8	16.9	77.7	100.0	(125)	2.9
50~54세	2.5	21.0	23.5	65.3	11.2	76.5	100.0	(396)	2.9
55~59세	4.4	26.9	31.3	61.9	6.8	68.7	100.0	(498)	2.7
60~64세	4.7	31.1	35.8	58.4	5.9	64.2	100.0	(425)	2.7
65~69세	4.4	33.9	38.3	55.9	5.8	61.7	100.0	(155)	2.6
청년 전체	8.7	25.5	34.2	51.7	14.2	65.8	100.0	(1,000)	2.7
성별									
남	(522)	6.4	27.2	33.6	53.9	12.5	66.4	(522)	100.0
여	(478)	11.1	23.6	34.8	49.2	16.0	65.2	(478)	100.0
지역									
수도권	9.9	25.9	35.8	49.4	14.8	64.2	100.0	(559)	2.7
비수도권	7.2	25.0	32.1	54.6	13.3	67.9	100.0	(441)	2.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5.0	24.4	29.4	54.4	16.2	70.6	100.0	(628)	2.8
비동거	14.8	27.4	42.2	47.0	10.8	57.8	100.0	(372)	2.5

다음으로, 현재 배우자가 있으면서 동시에 청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현재 청년 자녀가 귀하의 배우자에게 의지를 많이 의지하는지를 물어 보았다. 그 결과, 부모들은 자녀가 배우자를 정서적으로 의지한다는 응답이 67%였다. 남성 응답자(76.6%)가 여성 응답자(58.6%)보다 의지한다는 응답이 높아, 자녀가 응답자의 배우자(자녀의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녀 수가 1명인 응답자는 자녀가 본인의 배우자에게 의지한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15〉 배우자에 대한 자녀의 정서적 의지 정도

(단위: %, 점)

유배우	①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②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	①+②	③ 때때로 의지한다	④ 많이 의지한다	③+④	계	사례수 (명)	평균
전체	4.9	28.1	33.0	52.9	14.1	67.0	100.0	(1,366)	2.8
성별									
남	3.0	20.4	23.4	55.3	21.3	76.6	100.0	(638)	3.0
여	6.6	34.8	41.4	50.8	7.9	58.6	100.0	(728)	2.6
지역									
수도권	5.5	27.4	32.9	53.2	13.9	67.1	100.0	(652)	2.8
비수도권	4.3	28.8	33.1	52.6	14.3	66.9	100.0	(714)	2.8
자녀 수									
1명	3.4	24.8	28.1	58.5	13.3	71.9	100.0	(178)	2.8
2명	5.2	28.0	33.2	52.0	14.9	66.8	100.0	(985)	2.8
3명 이상	4.9	31.4	36.4	52.4	11.3	63.6	100.0	(203)	2.7

다음으로, 부모응답자 자신이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53.5%의 부모는 자녀에게 의지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성(62.9%)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42.6%)보다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한다는 비중이 높았다.

〈표 3-16〉 자녀에 대한 본인의 정서적 의지 정도

(단위: %, 점)

유배우	①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②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	①+②	③ 때때로 의지한다	④ 많이 의지한다	③+④	계	평균
전체	6.5	40.0	46.5	47.4	6.1	53.5	100.0	2.5
성별								
남	7.7	49.7	57.4	39.1	3.5	42.6	100.0	2.4
여	5.5	31.6	37.1	54.5	8.4	62.9	100.0	2.7
지역								
수도권	6.0	38.8	44.8	48.8	6.4	55.2	100.0	2.6
비수도권	6.9	41.1	48.0	46.1	5.9	52.0	100.0	2.5
자녀 수								
1명	5.2	42.9	48.0	43.8	8.1	52.0	100.0	2.5
2명	7.2	38.8	46.0	48.0	6.0	54.0	100.0	2.5
3명 이상	4.3	42.8	47.1	48.1	4.8	52.9	100.0	2.5

청년과 그 부모의 관계는 대체로 정서적으로 친근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딸은 어머니에게, 아들은 (상대적으로) 아버지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또한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를 관리하고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소 비대칭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연령과 부모와의 동거 상태는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는 자녀의 정서와 기분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기분을 이해하거나 자녀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그리고 자녀와 더 친근한 관계를 갖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응답한 부모의 비율이 기대보다 높았다.

나. 일상적 관여와 조언 경험

부모 응답자에게 지난 3년 동안 청년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주는 편이었는지 질문하였다. 이를 주제별로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이 <표 3-17>이다. 부모가 가장 보편적으로 관여하는 내용은 자녀의 신체적 건강 및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영역으로 나타났다(72.2%). 그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금전 조달 관련된 영역으로 67.4%가 이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관여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주된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지출관리 및 자산 형성(64.7%), 대인관계(51.6%), 정신건강(54.3%), 배우자나 이성친구 관계(47.4%), 외모·체형·옷차림(43.9%) 등의 순으로 개입하거나 조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청년자녀에게 관여하는 가장 일반적인 항목은 일상적인 생활관리와 금전 조달과 관련된 영역이었지만, 비교적 넓은 영역에서 부모의 관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한 청년 응답자의 응답을 살펴보면, 청년의 응답에서는 전반적으로 경험비율이 부모 응답 보다 낮았다. 그러나 가장 많은 조언과 관여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부모와 동일하게 건강관리 및 생활습관(66.7%)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관여와 조언의 영역도 금전문제(64.1%)로 부모 응답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그 밖에도 외모·체형·옷차림(46.7%), 배우자나 이성친구 관계(44.3%), 대인관계(44.2%), 정신건강(44.2%) 등의 여러 영역에서 부모의 관여를 받거나 조언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에서는 청년 응답자의 세부 특성에 따른 경험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각 항목별 응답결과를 살펴본다.

90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표 3-17〉 일상적 생활에 대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여/조언 여부

(단위: %)

구분	금전 문제에 대해(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 지에 대해(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외모·체형·옷차림 등의 문제에 대해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관련 문제에 대해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대인 관계(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정신건강에 대해(불안, 우울, 무기력 등)	사례수 (명)
부모	67.4	64.7	43.9	72.2	47.4	51.6	54.3	(1,600)
청년자녀	64.1	54.9	46.7	66.7	44.3	44.2	44.2	(1,000)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1) 금전문제(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

청년을 둔 부모가 청년 자녀의 금전 조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준다는 응답이 67.4%를 차지하였다. 청년도 금전문제에 대해 부모가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주었다는 데 64.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68.9%)이 비동거하는 청년(56.1%)보다 부모에게 금전문제에 대한 조언을 더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관여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30대 초반에서도 56.3%로 나타나, 청년 자녀의 경제 생활에 대한 부모의 개입정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이러한 관계가 30대 초반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8〉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1) 금전 문제에 대해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①+②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계	사례수 (명)	평균
부모 전체	8.4	24.2	32.6	49.7	17.6	67.4	100.0	(1,600)	2.8
청년 전체	13.5	22.4	35.9	47.1	17.0	64.1	100.0	(1,000)	2.7
성별									
남	10.5	24.1	34.6	50.2	15.2	65.4	100.0	(522)	2.7
여	16.7	20.5	37.2	43.8	19.0	62.8	100.0	(478)	2.7
연령									
19~24세	7.9	16.0	23.9	47.4	28.8	76.1	100.0	(315)	3.0
25~29세	16.2	22.9	39.1	49.6	11.3	60.9	100.0	(336)	2.6
30~34세	15.9	27.8	43.7	44.6	11.8	56.3	100.0	(349)	2.5
지역									
수도권	15.4	20.4	35.9	45.9	18.2	64.1	100.0	(559)	2.7
비수도권	11.0	24.9	35.9	48.7	15.4	64.1	100.0	(441)	2.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0.3	20.9	31.1	50.6	18.3	68.9	100.0	(628)	2.8
비동거	18.9	25.0	43.9	41.3	14.8	56.1	100.0	(372)	2.5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2) 지출관리 및 자산 형성

청년을 둔 부모가 청년 자녀의 지출관리 및 자산형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준다는 응답이 64.7%로 절반 이상이었다. 그리고 청년이 금전 문제에 대해 부모의 개입과 조언을 얻었다는 비율은 54.9%로 그보다 낮았다. 특히, 남성 청년(59.1%)이 여성 청년(50.4%)보다, 그리고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60%)이 비동거하는 청년(46.5%)보다 부모에게 재정적 관리에 대한 도움을 더 빈번하게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 자녀에게 예적금 계좌를 만들어 저축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금융

상품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부모의 역할이 큰 영역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9〉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2) 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①+②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계	사례수 (명)	평균
부모 전체	7.4	27.9	35.3	52.7	12.0	64.7	100.0	(1,600)	2.7
청년 전체	16.4	28.7	45.1	42.7	12.2	54.9	100.0	(1,000)	2.5
성별									
남	12.6	28.3	40.9	47.2	11.9	59.1	100.0	(522)	2.6
여	20.4	29.2	49.6	37.8	12.6	50.4	100.0	(478)	2.4
연령									
19~24세	11.7	24.8	36.5	44.7	18.9	63.5	100.0	(315)	2.7
25~29세	18.3	28.3	46.6	44.5	8.9	53.4	100.0	(336)	2.4
30~34세	18.7	32.6	51.4	39.2	9.5	48.6	100.0	(349)	2.4
지역									
수도권	18.1	26.5	44.6	42.3	13.1	55.4	100.0	(559)	2.5
비수도권	14.2	31.5	45.6	43.2	11.2	54.4	100.0	(441)	2.5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2.8	27.2	40.0	46.5	13.5	60.0	100.0	(628)	2.6
비동거	22.4	31.1	53.5	36.3	10.2	46.5	100.0	(372)	2.3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3) 외모·체형·옷차림 등

청년을 둔 부모가 청년 자녀의 외모·체형·옷차림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준다는 응답은 앞의 경제적 관리에 관한 문제보다는 낮은 비율이지만 기대보다 높은 43.9%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48.2%)이 남성 청년(45.4%)보다 부모에게 외모·체형·옷차림 등에 대한 개입이나 관여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51.2%)이 비동거하는 청년(39.3%)보다 부모에게 외모·체형·웃차림 등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연령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표 3-20〉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3) 외모·체형·웃차림 등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①+②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계	사례수 (명)	평균
부모 전체	10.2	45.9	56.1	38.3	5.6	43.9	100.0	(1,600)	2.4
자녀 전체	22.0	31.3	53.3	38.4	8.3	46.7	100.0	(1,000)	2.3
성별									
남	21.7	32.9	54.6	38.7	6.7	45.4	100.0	(522)	2.3
여	22.3	29.5	51.8	38.1	10.1	48.2	100.0	(478)	2.4
연령									
19~24세	20.1	31.6	51.7	38.5	9.8	48.3	100.0	(315)	2.4
25~29세	23.1	30.1	53.2	40.8	6.0	46.8	100.0	(336)	2.3
30~34세	22.6	32.1	54.7	36.1	9.2	45.3	100.0	(349)	2.3
지역									
수도권	23.8	28.3	52.1	38.9	9.0	47.9	100.0	(559)	2.3
비수도권	19.7	35.0	54.7	37.8	7.5	45.3	100.0	(441)	2.3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8.2	30.7	48.8	41.5	9.7	51.2	100.0	(628)	2.4
비동거	28.5	32.2	60.7	33.3	6.0	39.3	100.0	(372)	2.2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4) 건강 관련

청년을 둔 부모가 청년 자녀의 건강관리나 일상적 생활 습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준다는 응답이 72.2%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청년응답에서도 이 영역은 66.7%로 나타나, 부모의 가장 일반적인 자녀관여 방식인 신체적 관리가 초기 성인기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94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수 있다. 30대 초반 청년(64.5%)도 20대 초반 청년과 큰 차이없이 부모로부터 신체적 건강관리나 생활습관에 관한 조언이나 관여를 받고 있었다.

여성 청년(68%)이 남성 청년(65.5%)보다 부모에게 건강관리나 일상적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조금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70.7%)이 비동거하는 청년(59.9%)보다 부모에게 건강관리나 일상적 생활 습관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4)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①+②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계	사례수 (명)	평균
부모 전체	5.5	22.3	27.8	60.8	11.4	72.2	100.0	(1,600)	2.8
청년 전체	13.0	20.3	33.3	51.4	15.3	66.7	100.0	(1,000)	2.7
성별									
남	12.1	22.4	34.5	52.9	12.6	65.5	100.0	(522)	2.7
여	14.1	17.9	32.0	49.7	18.3	68.0	100.0	(478)	2.7
연령									
19~24세	9.4	18.2	27.7	53.0	19.3	72.3	100.0	(315)	2.8
25~29세	13.2	23.1	36.3	50.6	13.1	63.7	100.0	(336)	2.6
30~34세	16.1	19.4	35.5	50.7	13.8	64.5	100.0	(349)	2.6
지역									
수도권	14.1	18.8	32.9	49.9	17.2	67.1	100.0	(559)	2.7
비수도권	11.6	22.2	33.8	53.2	12.9	66.2	100.0	(441)	2.7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0.0	19.3	29.3	54.0	16.7	70.7	100.0	(628)	2.8
비동거	18.1	22.0	40.1	47.0	12.9	59.9	100.0	(372)	2.5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5) 배우자나 이성친구 관계

청년을 둔 부모가 청년 자녀의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준다는 응답이 4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년이 본인의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부모의 개입과 조언을 얻은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44.3%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청년(46.1%)이 남성 청년(42.8%)보다 부모에게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조언을 조금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44.7%)과 동거하지 않는 청년(43.8%)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20대 초반과 30대 초반이 비교적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20대 후반은 그보다 낮은 비율을 보였다는 점이다. 이성교제가 처음 시작되는 연령(20대 초반)과 배우자 탐색이 이루어지는 연령(30대 초반)의 응답자들이 부모의 관여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청년자녀의 이성관계는 대표적으로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고자 하는 영역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이 조사결과는 부모와 청년자녀가 이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참고로, 추가 심층면접에 참여한 청년응답자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FGI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연애경험'에 대해 대체로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3절 참조). 이성관계 경험을 부모와 공유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의 관여를 수용하고 조언을 요청하는 청년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표 3-22〉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5)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①+②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계	사례수 (명)	평균
부모 전체	9.9	42.7	52.6	41.1	6.3	47.4	100.0	(1,600)	2.4
자녀 전체	21.7	33.9	55.7	36.8	7.6	44.3	100.0	(1,000)	2.3
성별									
남	20.5	36.7	57.2	36.5	6.3	42.8	100.0	(522)	2.3
여	23.1	30.9	53.9	37.0	9.0	46.1	100.0	(478)	2.3
연령									
19~24세	19.4	33.0	52.5	37.8	9.8	47.5	100.0	(315)	2.4
25~29세	23.8	38.1	62.0	32.1	5.9	38.0	100.0	(336)	2.2
30~34세	21.8	30.7	52.5	40.3	7.2	47.5	100.0	(349)	2.3
지역									
수도권	22.6	32.6	55.1	36.3	8.6	44.9	100.0	(559)	2.3
비수도권	20.7	35.6	56.3	37.4	6.3	43.7	100.0	(441)	2.3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9.6	35.7	55.3	36.7	7.9	44.7	100.0	(628)	2.3
비동거	25.3	30.9	56.2	36.8	7.0	43.8	100.0	(372)	2.3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6) 대인관계

청년을 둔 부모가 청년 자녀의 대인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준다는 응답이 51.6%였다. 청년이 본인의 대인관계에 대해 부모의 개입과 조언을 구한다는 비율은 44.2%로 나타났다. 남성 청년(46%)이 여성 청년(42.3%)보다 부모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조언을 조금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45.6%)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42.5%)보다 관련한 조언을 조금 더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50%)이 비동거하는 청년(34.5%)보다 부모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6) 대인관계(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①+②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계	사례수 (명)	평균
부모 전체	8.4	40.0	48.4	44.3	7.4	51.6	100.0	(1,600)	2.5
자녀 전체	21.2	34.6	55.8	36.0	8.2	44.2	100.0	(1,000)	2.3
성별									
남	20.0	34.0	54.0	38.8	7.2	46.0	100.0	(522)	2.3
여	22.5	35.2	57.7	33.0	9.3	42.3	100.0	(478)	2.3
연령									
19~24세	17.3	31.4	48.7	39.6	11.7	51.3	100.0	(315)	2.5
25~29세	23.1	36.9	60.0	32.6	7.4	40.0	100.0	(336)	2.2
30~34세	22.9	35.2	58.2	36.1	5.7	41.8	100.0	(349)	2.3
지역									
수도권	23.4	31.0	54.4	37.0	8.6	45.6	100.0	(559)	2.3
비수도권	18.4	39.1	57.5	34.8	7.6	42.5	100.0	(441)	2.3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7.0	33.0	50.0	40.1	9.8	50.0	100.0	(628)	2.4
비동거	28.3	37.3	65.5	29.1	5.4	34.5	100.0	(372)	2.1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7) 정신건강

최근 청년세대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여, 부모에게 우울, 불안, 심리적 어려움 등에 관해 말하고 조언을 듣는가를 질문하였다. 청년을 둔 부모가 청년 자녀의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준다는 응답이 54.3%로 나타났다. 청년이 본인의 정신건강에 대해 부모의 개입과 조언을 얻은 경험 비율도 44.2%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47.3%)이 비동거하는 청년(38.9%)보다 부모에게 정신

건강에 대한 조언을 더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도 연령의 증가에 따라 점차 부모의 관여/조언이 감소하는 경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30대 초반 청년의 43.9%가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부모의 관여가 있다고 응답했다.

〈표 3-24〉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비율: (7) 정신건강에 대해(불안, 우울, 무기력 등)
(단위: %, 점)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①+②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계	사례수 (명)	평균
부모 전체	11.6	34.1	45.7	45.2	9.1	54.3	100.0	(1,600)	2.5
청년 전체	23.0	32.8	55.8	35.4	8.8	44.2	100.0	(1,000)	2.3
성별									
남	20.6	35.6	56.1	34.4	9.5	43.9	100.0	(522)	2.3
여	25.6	29.9	55.5	36.5	8.0	44.5	100.0	(478)	2.3
연령									
19~24세	18.9	31.4	50.3	37.1	12.5	49.7	100.0	(315)	2.4
25~29세	25.7	35.0	60.7	31.8	7.5	39.3	100.0	(336)	2.2
30~34세	24.1	32.1	56.1	37.3	6.6	43.9	100.0	(349)	2.3
지역									
수도권	25.4	31.5	56.9	32.6	10.6	43.1	100.0	(559)	2.3
비수도권	20.0	34.5	54.5	39.0	6.5	45.5	100.0	(441)	2.3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9.9	32.8	52.7	37.6	9.7	47.3	100.0	(628)	2.4
비동거	28.2	32.8	61.1	31.7	7.3	38.9	100.0	(372)	2.2

다. 부모의 조언에 대한 자녀의 수용 정도

청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본인의 관여와 조언을 잘 수용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녀가 금전 문제에 대해 본인의 관여와 조언을 잘 수용해 주었다는 응답이 91.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지출관리 및 자산형성(83.6%), 정신건강(86.1%), 대인관계(82.7%),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78.5%), 건강관리 및 일상적 생활습관(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관여와 조언을 잘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5〉 (부모 응답) 일상적 조언에 대한 자녀의 관여/조언 수용 비율(1)

(단위: %)

자녀에게 관여/ 조언함	금전 문제에 대해 (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외모·체형·옷차림 등의 문제에 대해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관련 문제에 대해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전체	91.3	(1,035)	83.6	(702)	74.7	(1,156)	78.0	(1,078)
성별								
남	91.8	(464)	84.9	(299)	76.0	(507)	80.7	(485)
여	90.9	(571)	82.4	(403)	73.7	(649)	75.9	(594)
연령								
19~24세	91.3	(507)	82.6	(355)	76.3	(562)	77.0	(528)
25~29세	91.3	(528)	84.5	(348)	73.0	(593)	79.0	(550)
30~34세	88.7	(171)	80.7	(126)	72.4	(179)	72.0	(169)
지역								
수도권	91.9	(734)	83.5	(486)	74.9	(823)	79.7	(771)
비수도권	91.3	(130)	87.7	(90)	76.6	(154)	75.9	(138)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표 3-26〉 (부모 응답) 일상적 조연에 대한 자녀의 관여/조연 수용 비율(2)

(단위: %)

자녀에게 관여/조연함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대인 관계에 대해		정신건강에 대해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전체	78.5	(826)	82.7	(869)	86.1	(758)
성별						
남	80.2	(382)	83.3	(359)	86.1	(346)
여	77.1	(443)	82.1	(510)	86.1	(412)
연령						
19~24세	78.6	(407)	84.2	(416)	85.8	(365)
25~29세	78.4	(419)	81.2	(453)	86.4	(394)
30~34세	74.2	(145)	78.6	(151)	84.7	(112)
지역						
수도권	80.0	(572)	83.2	(602)	86.4	(530)
비수도권	75.6	(109)	85.3	(116)	86.3	(116)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이 절에서는 현재 다양한 생애경로에 있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일상적 지원 관계를 살펴봤다. 도구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과 일상적 관여/조연 측면에서도 부모는 초기 성인기 자녀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상당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와 자녀의 동거와 재정적 지원이 '보이는 지원'이라면, 정서적 지원과 일상적 관여와 조연은 '보이지 않는 지원'이다. 전자의 보이는 지원이 자녀의 연령 증가와 취업 등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면, 후자의 보이지 않는 지원은 연령에 따라 감소하는 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녀의 수용여부를 통해 조연과 관여를 둘러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6개 항목 중에서 자녀의 수용율이 가장 낮은 경우(웃차림, 외모에 대해)도 부모응답자들의 약 78.5%는 자녀가 자신의 조연을 잘 수용했다고 응답하여, 부모의 관여와 조연에 대해 (적어도 부모의 생각으로는) 자녀는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부모의 양육역할 또는 지원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2절 자녀의 성인 이행과 부모의 전략적 지원

이 절에서는 청년자녀의 생애 과업(교육 및 취업)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관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기술한다. 청년층 내에서 연령(출생코호트)에 따라, 각 생애사건에 부모의 개입 및 관여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청년기의 삶은 크게 변화하였다. 대학 진학이 확대되었으며, 노동시장 조건도 변화하였다. 정해진 길을 집합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미덕이었던 시대에서, 개인의 조건과 욕구, 선택에 따라 다른 경로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 개인에게 수많은 선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면서,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할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청년 자녀의 의사 결정과 청년기 전반의 삶 관리에 대한 부모의 개입과 조언 정도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대학진학 및 대학생활과 부모의 지원

가. 대학진학 과정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학진학률이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이미 70%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청년기에서 대학교육기간은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먼저 청년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 부모의 관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부모와 청년 각각에게 조사하였다. 부모는 청년 자녀에게 대학에 가야하는지 관심을 갖고 개입한 비중이 무려 82.0%로 상당히 높았다. 다음으로는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에 대한 조언이 74.0%, 대학입시 준비 방법은 71.8% 등으로 관여 및 조언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청년에게 물어본 결과, 대학 진학 여부에 대해 부모가 관여하고 조언을 해주었다는 응답은 그보다 낮은 수준(64.6%)이었다. 또한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에 대해 부모가 관여했다는 비율은 48.3%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대학입시 준비 방법에 대한 조언은 40.7%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관여와 개입에 의해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청년의 수만큼이나 그렇지 못한 청년의 수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나타난다. 남성청년이 여성청년보다 더 많은 부모의 관여를 받았으며, 수도권 청년이 비수도권 청년보다 더 많이 부모의 관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출생코호트(연령)에 따른 차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부모의 관여와 조언 정도가 높았다고 응답했다.

〈표 3-27〉 대학진학 관련 부모의 관여/조언 비율

(단위: %)

구분	대학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대학입시 준비 방법 (내신, 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등)에 대해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에 대해	사례수 (명)
부모	82.0	71.8	74.0	(1,600)
청년	64.6	40.7	48.3	(1,000)
성별				
남	68.1	45.4	53.1	(522)
여	60.8	35.6	43.2	(478)
지역				
수도권	66.5	42.9	50.6	(559)
비수도권	62.2	38.0	45.5	(441)
출생코호트				
2000~2005년 생	76.1	49.3	56.5	(315)
1995~1999년 생	63.0	38.4	43.8	(336)
1990~1994년 생	55.9	35.3	45.2	(349)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부모의 관여와 조언에 대해 자녀의 수용 정도는 어떠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녀의 부모 조언에 대한 수용정도는 대체로 높았다. 특히, 대학 진학 여부에 대한 자녀의 수용도는 무려 92%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입시 준비 방법에 대한 수용도 비중은 89%로 역시 높았다.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에 대한 수용도는 8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대학 진학 및 전공 선택 등 대학 생활을 앞두고, 부모의 조언과 관여가 청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볼 수 있다.

〈표 3-28〉 자녀의 관여/조언 수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대학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대학입시 준비 방법 (내신, 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등)에 대해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에 대해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부모	92.0	(1,312)	89.0	(1,148)	87.4	(1,184)
성별						
남	93.1	(580)	90.3	(502)	88.8	(524)
여	91.1	(731)	87.9	(647)	86.3	(659)

주: 1) 자녀에게 조언을 제공한 경우만 응답함.

2)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나. 대학 생활

대학진학 이후 대학교육과정과 취업을 준비하는 활동에 대해 부모의 관여와 조언은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가를 부모와 자녀 각각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응답 결과 차이가 큰 편이다. 부모는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및 입사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개입하거나 조언을 주었다는 비율이 53.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또한 부모는 자녀의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는 비율도 5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해외교환 학생 등)에 대해 관여하거나 조언을 주었다는 비율도 43.3%로 나타났다. 수강과목 선택이나 학점 향상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것도 조언을 주었다는 응답은 35.0%로 나타났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처럼 제도화된 영역이 아니라 취업관련 자격증이나 외국어능력 등 비제도화된 영역에 부모의 개입이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자녀는 동일한 사항에 대해 부모의 관여가 있었다는 응답비율이 부모의 응답에서 나타난 것보다 낮았다.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및 입사 시험 준비(29.2%)에 있어 많은 관여와 조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님의 관여 및 개입이 많은 영역은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25%), 외국어 능력 향상(21.2%), 수강과목 선택 및 학점 향상(20.5%) 등의 순이었다.

〈표 3-29〉 대학교육 및 생활 과정에서 부모의 관여/조언 여부

(단위: %)

	(대학에 진학한) 청년 자녀가 있는 부모// 대학 진학 이상	수강과목을 선택하거나 학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외국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해외교환학생 등)에 대해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대학 재학 중)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입사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사례수 (명)
부모	35.0	43.3	51.7	53.4	(1,388)	
청년	20.5	21.2	25.0	29.2	(622)	
성별						
남	24.8	23.5	26.9	34.9	(369)	
여	14.2	17.8	22.2	20.7	(253)	
지역						
수도권	21.8	23.2	26.3	29.3	(357)	
비수도권	18.7	18.4	23.2	28.9	(265)	
출생코호트						
2000~2005년 생	22.6	23.5	29.9	32.9	(232)	
1995~1999년 생	18.7	18.2	21.1	26.6	(204)	
1990~1994년 생	19.7	21.5	23.0	27.3	(186)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청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 대학생들과 관련한 부모의 조언을 자녀가 잘 수용해 주었는지 정도를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녀들은 대체로 부모의 조언을 잘 수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가장 잘 수용한 부모의 조언은 사회경험(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을 늘리는 방법(86.5%)과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입사시험 준비 방법(86.1%) 조언이었다. 다음 순위로는 외국어 능력 향상(85.7%)과 수강과목 선택 및 학점 향상 방법(84.5%)이었다.

〈표 3-30〉 자녀의 관여/조언 수용 여부

(단위: %, 명)

자녀에게 관여/조언함	수강과목을 선택하거나 학점을 올리는 방법		외국어능력 향상		사회경험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입사시험 준비 방법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전체	84.5	(486)	85.7	(600)	86.5	(717)	86.1	(741)
성별								
남	87.2	(233)	86.4	(286)	87.0	(346)	87.4	(352)
여	82.1	(252)	85.0	(315)	86.0	(372)	85.0	(388)
지역								
수도권	83.5	(237)	87.4	(296)	87.9	(355)	86.5	(348)
비수도권	85.5	(248)	84.0	(305)	85.1	(362)	85.9	(393)
자녀 수								
1명	79.2	(72)	82.2	(90)	85.4	(96)	83.9	(105)
2명	86.0	(343)	87.2	(430)	88.1	(530)	86.2	(535)
3명 이상	83.0	(71)	81.6	(81)	78.3	(92)	88.1	(101)

청년들은 부모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7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취업과 관련하여 부모가 조언한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81.2%를 차지했으며, 남성보다 여성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의 청년이 부모의 취업 관련 조언이 도움이 되었

다고 응답했다. 출생코호트에 따른 응답에서는 일관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3-31〉 부모의 관여/조언 도움 여부

(단위: %, 명)

부모의 관여/ 조언 있음	수강과목을 선택하거나 학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외국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 (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해외교환학생 등에 대해)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전체	78.8	(127)	73.4	(132)	76.7	(155)
성별						
남	82.5	(91)	76.9	(87)	74.8	(99)
여	69.5	(36)	66.6	(45)	80.2	(56)
지역						
수도권	76.9	(78)	74.7	(83)	78.7	(94)
비수도권	81.8	(50)	71.1	(49)	73.8	(62)
출생코호트						
2000~2005년생	81.0	(52)	74.4	(55)	82.7	(69)
1995~1999년생	73.6	(38)	62.1	(37)	65.0	(43)
1990~1994년생	81.0	(37)	82.4	(40)	78.8	(43)

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다. 취업준비 및 구직 과정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이후, 취업 준비를 하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부모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 부모의 69.9%가 자녀에게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을 갖도록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취업관련 자격증, 입사 시험 준비(53.6%), 자기계발 조언 또는 권유(52.3%), 취업정보 제공(46.8%), 채용시험 도움(45.7%), 직업훈련 프로그램 소개(38.6%) 등의 순이었다.

청년은 본인의 부모가 전도유망한 직업을 갖도록 권유했다는 응답이 53.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취업 관련 자격증, 입사시험 준비(37.4%), 자기계발 조언 또는 권유(32.9%), 취업정보 제공(31%), 채용시험 도움(27.2%), 직업훈련 프로그램(26.5%) 등의 순이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부모의 취업 관련 관여와 조언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이 부모 관여나 조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졸업자 중에서는 고졸이하 학력인 경우 취업과정에서 부모의 조언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2〉 부모의 관여/조언 여부

(단위: %)

취업(준비) 경험 있음	직업 권유	취업정보 제공	채용시험 도움	직업훈련 프로그램 소개	자기계발 조언 또는 권유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권유	사례수 (명)
부모	69.9	46.8	45.7	38.6	52.3	53.6	(1,276)
청년	53.2	31.0	27.2	26.5	32.9	37.4	(737)
성별							
남	58.1	34.9	31.6	32.4	38.4	44.4	(378)
여	48.0	26.9	22.7	20.2	27.2	30.1	(359)
지역							
수도권	52.7	28.3	24.6	26.1	32.3	36.2	(417)
비수도권	53.9	34.6	30.6	26.9	33.8	39.1	(320)
출생코호트							
2000~2005년생	59.1	42.1	34.9	33.7	47.4	51.1	(152)
1995~1999년생	52.8	25.0	24.6	23.9	30.5	33.5	(276)
1990~1994년생	50.7	31.0	25.8	25.1	28.0	34.2	(309)
학력							
대학재학 중	59.9	40.0	37.4	37.5	44.1	44.1	(77)
고졸 이하	50.5	32.7	27.7	28.4	31.5	37.0	(343)
초대졸	58.8	41.0	35.4	32.4	38.1	43.9	(34)
대졸 이상	54.0	25.4	23.0	20.4	31.1	35.3	(283)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 이후, 취업 준비를 하거나 취업한 경험 과정에서, 부모의 조언을 잘 수용해 주었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자녀들은 대체로 부모의 조언을 잘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가장 잘 수용한 부모의 조언은 채용시험 도움(82.3%),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 권유(81.8%), 취업정보 제공(80.3%), 취업관련 자격증 및 입사시험 준비(79%), 자기계발 조언 또는 권유(78.6%) 그리고 직업훈련 프로그램(78.5%) 등의 순이었다.

〈표 3-33〉 (부모 응답) 부모의 관여/조언에 대한 자녀의 수용 여부

(단위: %, 명)

자녀에게 관여/조언함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 권유		취업정보 제공		채용시험 도움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소개		자기계발 조언 또는 권유		취업관련 자격증, 입사시험 준비 등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부모	81.8	(893)	80.3	(597)	82.3	(583)	78.5	(492)	78.6	(668)	79.0	(684)
성별												
남	82.5	(416)	79.6	(287)	78.6	(279)	75.6	(229)	78.7	(312)	80.1	(320)
여	81.2	(477)	81.0	(311)	85.8	(304)	81.0	(263)	78.6	(355)	78.0	(364)
지역												
수도권	82.2	(428)	83.3	(288)	83.5	(298)	78.8	(260)	80.3	(326)	80.2	(335)
비수도권	81.4	(465)	77.6	(310)	81.1	(285)	78.2	(233)	77.0	(342)	77.8	(349)
자녀 수												
1명	81.0	(136)	84.9	(93)	78.9	(95)	74.7	(87)	79.0	(105)	77.4	(115)
2명	82.7	(633)	79.3	(428)	82.2	(415)	79.4	(335)	80.0	(469)	79.7	(477)
3명 이상	78.3	(124)	80.2	(76)	87.7	(73)	78.8	(71)	71.3	(94)	77.1	(92)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청년 응답자들도 부모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개입하거나 조언을 한 경우, 그러한 부모의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직업권유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낮았지만, 그 외의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부모지원이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청년자녀의 대학진학, 대학생활, 취업준비 등의 과정에 부모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조언을 제공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부모는 청년이 인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자녀의 교육과 취업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응답자들은 (항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절반 이상이 관여하거나 조언을 해주었다고 응답했다. 청년 응답자들은 그 비율이 부모보다 낮았지만 적어도 4명 중 한 명이상이 부모의 조언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조언을 받은 청년들의 약 70% 정도가 그러한 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교육과 취업 과정에서 부모(지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을 짐작하도록 한다. 고교 졸업 또는 대학교육 이후의 생애과정에서 직접적인 부모지원을 제도적으로 인식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도구적 지원(주거지원과 재정적 지원)에만 제한적으로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다.

아동, 청소년기와 달리, 초기 성인기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부모세대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만큼 청년세대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초기 성인기 자녀의 성인이행 과정, 특히 학교-노동시장 이행과정에 많은 선택지가 있는 반면,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있으며, 개인의 의지와 역량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조사에서 확인한 부모의 청년자녀 취업과정에 대한 관여 수준은 결코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어 보인다.

110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표 3-34〉 (자녀 응답) 부모의 관여/조언 도움 정도

(단위: %, 명)

부모의 관여/조언 있음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 권유		채용일정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채용시험(면접, 자기소개서 등) 도움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소개		자기개발 (외국어능력, 자격증, 대학원, 인턴십) 조언 또는 권유		전문자격증 취득준비나 공무원시험 등)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전체	67.3	(392)	74.3	(229)	71.4	(201)	73.8	(195)	73.3	(243)	75.1	(276)
성별												
남	71.0	(220)	75.3	(132)	71.5	(119)	74.7	(122)	74.8	(145)	77.2	(168)
여	62.6	(172)	72.9	(97)	71.3	(81)	72.2	(73)	71.1	(98)	71.9	(108)
연령												
19-24세	82.2	(90)	77.1	(64)	85.0	(53)	80.6	(51)	73.9	(72)	79.6	(78)
25-29세	57.7	(146)	74.9	(69)	65.2	(68)	66.3	(66)	70.0	(84)	76.0	(92)
30-34세	67.6	(157)	71.9	(96)	67.6	(80)	75.6	(78)	76.1	(87)	70.9	(106)
지역												
수도권	65.5	(220)	79.6	(118)	75.6	(103)	69.6	(109)	74.1	(135)	76.1	(151)
비수도권	69.6	(172)	68.6	(111)	66.9	(98)	79.0	(86)	72.4	(108)	73.9	(125)
학력												
대학재학 중	73.8	(46)	80.7	(31)	75.9	(29)	65.4	(29)	76.4	(34)	70.6	(34)
고졸 이하	68.6	(173)	74.9	(112)	69.0	(95)	76.2	(97)	74.2	(108)	76.4	(127)
초대졸	80.5	(20)	64.9	(14)	66.7	(12)	54.8	(11)	61.9	(13)	74.0	(15)
대졸 이상	62.1	(153)	72.3	(72)	73.7	(65)	77.5	(58)	72.8	(88)	75.1	(100)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2. 교육 및 취업준비와 부모의 재정적 지원

가. 교육비 지원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비 조달 경로(청년응답)를 살펴보면, 과반수 이상인 59%가 부모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내가 번 수입으로 교육비를 조달하였다는 응답도 46.8%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육비는 부모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편이며, 자녀가 일부를 보충하는 형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장학금(24.4%), 정부 보조(11.1%), 대출(8.9%) 등 외부 (공적) 자원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이었다. 조부모(6.2%), 형제/자매(5.7%), 배우자(2%) 등의 순으로 사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표 3-35〉 고등학교 졸업 이후 교육비 조달 경로

(단위: %)

구분	부모	내가 번 수입	장학금	정부 보조	대출	조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기타	해당 사항 없음
전체	59.0	46.8	24.4	11.1	8.9	6.2	5.7	2.0	0.2	20.8
성별										
남	63.0	47.1	24.3	10.7	10.5	7.2	6.3	2.1	0.2	18.7
여	54.6	46.5	24.5	11.6	7.2	5.0	5.0	1.9	0.2	23.1
지역										
수도권	61.1	46.9	24.8	11.3	10.9	7.5	4.8	2.1	0.2	19.7
비수도권	56.2	46.7	23.8	11.0	6.3	4.5	6.8	1.8	0.2	22.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64.0	44.7	25.9	10.1	9.2	6.8	6.2	1.3	0.2	20.4
비동거	50.4	50.4	21.8	13.0	8.4	5.1	4.8	3.2	0.3	21.5

주: 1순위, 2순위, 3순위 응답을 모두 합산함.

나. 취업 관련 비용 지원

지난 1년간 부모님에게 현금 지원을 받은 청년에게만, 현금의 사용처 중 취업관련 교육/훈련이나 자기계발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취업 관련 비용(자격증, 취득시험, 입사시험 준비 비용 등)에 지출했다는 응답은 43.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많이 지출한 항목은 주거비(주택구입비,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이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의 32.9%가 여기에 부모지원금을 사용했다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어 능력 및 해외체류경험 관련 비용(해외대학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외국어교육비 등)으로 지출했다는 응답은 18.1%를 차지하였다. 특히 남성이 해당 항목으로 지출한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이에 대한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주목할 만하다.

〈표 3-36〉 부모의 현금 지원 사용처

(단위: %)

현금 지원 받은 경험 있음	주거비	취업관련 비용	외국어능력 및 해외체류경험 관련 비용 (해외대학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외국어교육비 등)	사례수 (명)
전체	32.9	43.1	18.1	(587)
성별				
남	33.3	46.3	21.5	(308)
여	32.4	39.6	14.4	(279)
지역				
수도권	33.0	44.6	19.8	(326)
비수도권	32.7	41.3	16.0	(26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1.1	52.6	20.6	(400)
비동거	57.9	22.8	12.8	(188)

주: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다. 부모지원의 필요성 인식

청년들은 일상생활과 중요한 생애사건에서 부모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쉽지 않거나 불가능할 때, 또는 타인의 도움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할 때 청년들은 도움과 지원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청년의 68.4%가 부모는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대학교육은 청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부모의 책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와 유사한 비율인 62.2%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연령이나 학교 졸업 등과 같은 객관적인 시점보다는 실제로 자녀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의 부양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청년들은 생각하고 있다. 그 외 결혼비용, 주택구입비용 등도 부모가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각각 53.4%, 45.1%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취업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을 갖게 되어도 결혼비용과 주택구입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취업 이후에도 부모가 여력이 있으면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청년의 46.3%가 동의하였다.

청년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발견된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응답 차이는 해당 과업을 부모의 도움 없이 해내는 데 대한 상대적인 부담감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지만, 주택구입에 부모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동의율이 여성은 42.1%였지만, 남성은 47.7%로 여성보다 5.6%p가 높았다.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큰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도 해석할 수 있다. 19~24세는 교육비용과 취업준비 등에 대한 부모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25~29세와 30~34세는 결혼비용이나 주택구입비용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청년이 대부분의 항목에 대해 부모지원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수도권 청년이 비수도권 청년에 비해 더 큰 부담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지역에 따른 여건의 차이가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오히려 경제적 계층인식 수준에 따라 부모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의 차이가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인 가족(부모)의 계층수준이 높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지원이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지원 필요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간의 응답차이도 계층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표 3-37〉 상황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태도(동의율)

(단위: %)

구분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취업을 해도 부모가 여력이 있는 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수 (명)
전체	68.4	62.2	53.4	45.1	46.3	(1,000)
성별						
남	67.9	63.1	53.1	47.7	45.9	(522)
여	69.0	61.3	53.7	42.1	46.8	(478)
연령						
19-24세	76.8	70.1	54.4	39.5	44.4	(315)
25-29세	70.1	58.6	54.6	48.3	49.4	(336)
30-34세	59.3	58.7	51.3	47.0	45.1	(349)
지역						
수도권	69.2	61.6	54.7	47.0	48.3	(559)
비수도권	67.5	63.0	51.7	42.6	43.8	(441)
학력						
대학재학 중	80.3	71.7	54.5	42.2	45.1	(212)
고졸 이하	58.9	58.5	50.8	44.3	43.7	(416)
초대졸	58.7	58.5	58.9	39.3	46.5	(41)
대졸 이상	74.0	61.3	55.3	48.6	50.4	(331)
취업 여부						
일하고 있음	67.0	59.6	54.2	46.5	47.0	(629)
주부	61.3	50.9	48.5	41.0	38.7	(39)
학생	79.5	74.6	53.5	40.2	45.2	(141)
구직/무직	66.5	64.0	51.6	44.7	46.3	(190)

구분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가 취업을 해도 부모가 여력이 있는 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례수 (명)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66.9	63.7	57.5	46.2	44.2	(180)
200-300만원 미만	67.7	53.9	50.7	41.8	48.4	(255)
300-400만원 미만	66.0	64.0	56.6	52.3	48.6	(117)
400만원 이상	66.2	62.4	54.6	54.4	46.8	(77)
일자리 없음(소득없음)	70.9	66.7	52.0	42.6	45.1	(371)
경제적 계층인식						
하	64.5	58.4	50.3	39.7	43.5	(456)
중	69.6	64.3	53.0	48.2	48.0	(417)
상	78.8	69.3	65.6	53.9	50.8	(128)

주: 각 항목별 4개 응답범주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에 응답한 비율임.

제3절 부모 지원의 다차원성과 의미

이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설문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면접조사 내용을 활용하여 조사결과의 의미를 살펴본다.

1. 물질적 지원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은 물질적 지원과 비물질적인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물질적 지원은 동거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번 조

사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들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청년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았다. 흔히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을 썬거루족이라 부르지만, 이번 조사에서 청년들은 단순히 부모의 지원을 받는 일방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생활에 일정 정도 기여하고 있었다. 비록 청년들은 부모로부터 독립할 경제적 및 기타 여건이 되지 않기에 현재 부모와 동거하고는 있지만, 집안의 가사 분담을 통해 일정 정도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혹은, 가족의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거나, 주거비용을 일부 부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의 기여는 부모의 부담을 공유하는 수준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런 점에서 청년의 부모 동거는 평균적인 의미에서 부모에 대한 의존 방식 중의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다.

청년과 부모 모두 동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세대 간 주거 공간의 공유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김혜지, 이재림, 2021)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이는 자녀가 부모와의 동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부모와의 동거 상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청년의 높은 심리·정서적인 만족감을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Kins, Beyers, Soenens & Vansteenkiste, 2009).

재정적 지원의 경우, 이번 조사에 참여한 과반수 이상 청년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고, 절반 이상의 부모 역시 청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들은 지난 1년간 평균 1,409만 원을 자녀에게 지원하였으며, 청년은 작년엔 부모로부터 542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답하였다. 이 금액은 학비, 취업 및 진로를 위한 학원비, 주거비 등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청년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부모는 청년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인터뷰에서 만난 부모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느냐데 결혼까지 관여를 하느냐 결혼하고도 다 캥거루처럼 서포트를 해주느냐 그런 건데 저는 경제적인 거는 솔직히 여력이 되면 부모가 도와줄 수 있다고 봐요(P3, 55세, 대졸, 여성, 자녀동거)”라고 답하였다. 그렇기에 청년 자녀가 쑥스러워하며 학원비를 요청하였을 때, “어제도 엇그저께도 되게 너무 미안한 표정으로 저 인강(인터넷강의수강권) 사야 되는데 200만 원만 주세요. … 그래서 그냥 다른 것도 아니라 니가 취업하려고 인강 산다는데 왜 이렇게 미안해해?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P2, 58세, 대졸, 여성, 자녀동거)”라는 반응을 자녀에게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경제적 지원의 규모와 지원 기간 등에 대한 태도는 부모별 차이가 있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한도를 미리 선포하거나, 결혼자금 및 주거비 보조를 끝으로 본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비물질적인 지원을 살펴보았다.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해 더 이상 부모의 비물질적인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비물질적인 형태의 지원(정서적 지원과 조언/관여) 역시 중요한 차원이었다. 특히 정서적 지원은 청년들이 매우 중요시하는 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청년 자녀 사이의 정서적 친밀도가 비교적 높은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특성으로 보이는데, 부모의 약 3명 중 2명은 자녀와 친밀하다고 답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기분을 존중하고 자녀의 기분에 맞추려고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성인인 자녀에게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청년들은 어머니와 관계가 친밀하다는 응답이 72.1%로 유독 많았고, 아버지와 친밀하다는 응답은 42.3%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친밀도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부부간의 성별분업이 부모역할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문화적으로 기대되는 모성과 부성의 차이가 여전

히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서적 친밀함을 넘어, 부모와 자녀는 정서적으로 서로 의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부모에게 의지한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 강현선(2018)의 연구에 따르면, 비혼 성인 자녀와 부모가 동거하는 경우,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과 점차 연로해지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심적으로 의지하는 양상이 자녀와 부모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서로 간의 심적 의지는 이들의 생활만족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강현선, 2018; 성미애, 이재림, 최연실, 최새은, 2017).

복수의 청년 응답자가 직장생활에서 얻는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동료관계를 통해 해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크게 의존했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C1은 학생시절보다 취업한 이후 부모의 정서적 지원 필요성을 더 많이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C2도 직장 때문에 혼자 거주할 때 정신적인 위기를 경험했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매우 가까워져서 지금은 친구와 같은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부모의 정서적 지원과 부모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사회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노동생애 초기에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회로 나가면서 좀 느꼈던 경험인데 학교 다니면서 만나는 친구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많이 받았고 되게 그냥 겉으로만 친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 더 이상 가까운 관계를 만들 수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회사에서 너무 일이 많았는데 그거를 감당하는 게 좀 힘들었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부모님한테 울면서 전화도 많이 했었고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항상 가족이 이렇게 제일 큰 힘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거를 학생 때는 몰랐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많이 깨달았어요(C1, 27세, 여성, 미혼, 독

립).

직장 때문에 자취 생활하면서도 솔직히 부모님 특히 어머니를 좀 많이 생각했던 점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좀 어려운 면도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 이제는 제가 부모님과 같이 생활을 하니깐 그런 면에서는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같은 존재라고 느껴져서 (...) **제일 친한 친구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C2, 30세, 남성, 부모동거).

셋째, 일상적 관여와 조언의 경우, 부모는 다방면으로 자녀에게 조언과 간섭을 하는 경향을 보였고, 청년 또한 부모로부터 다양한 영역에 있어 조언과 개입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청년 자녀에게 건강 관리·일상적 생활 습관에 대해 가장 많이 조언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 또한 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종종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는 청년 자녀에게 금전 문제(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에 대해 조언을 자주 하였고, 자녀 또한, 이에 대해 조언을 많이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청년 자녀에게 지출관리 및 자산 형성에 대해 종종 조언하였고, 청년 또한,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청년 인터뷰 참여자들은 사회 초년생 시기, 즉 직장을 들어간 이후, 돈 관리 그리고 자금을 불리는 방법에 대해 부모와 긴밀히 상의하며 이에 대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짙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다소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자산 형성 과정에 돈을 보태주기도 하는 등, 활발하게 지원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제가 전 직장을 다녔을 때 보너스나 월급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받아서 **그 돈들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에 대해서 부모님과 많이 의논을 했었고** 실제로 은행에 예금 적금이나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율 높은 쪽으로 넣어서

좀 돈을 모아라 하신 적도 있고요. 제가 몇 년 뒤에 이제 따로 독립을 해서 나갈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부모님께서 일정 부분 또 돈을 보태줘서** 제 저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C2, 30세, 남성, 부모동거)

뿐만 아니라, 자녀의 외모·체형·옷차림이나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받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약 절반 가까이 응답자가 응답하여,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청년 자녀를 둔 부모와의 인터뷰에서는 자녀의 이성친구 및 연애에 대한 관심과 개입 및 간섭이 조사 결과보다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듯 보였다. 예를 들어, 청년 자녀는 부모에게 과거 연애 경험담을 물어보면서 조언을 얻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경험과 연륜을 존중하기에, 연애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는 부모 세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자녀의 성교육이나 성관계 등에 대한 고민과 어려움 역시 공유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도 하였다.

이성교제나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에도 부모의 조언을 무게감있게 받아들일 생각이라는 청년의 응답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만나지 말라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고 하듯이 **아무래도 연륜이 있으시니까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서 저보다는 더 나은 판단을** 하실 게 분명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언이 필요하더라고 했던 것(C1, 27세, 여성, 미혼, 독립).

이러한 조언과 간섭에 있어 자녀의 수용도는 대체로 양호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부모는 자녀의 건강관리·일상적 생활 습관에 관한 조언을 많이 하였지만, 청년 자녀는 부모의 금전 문제(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에 대한 조언을 더 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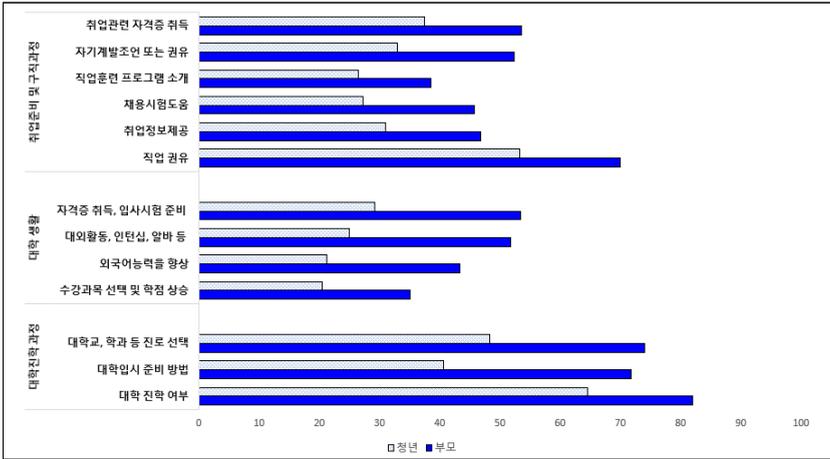
청년 자녀를 둔 부모는 다양한 일상적 영역에 있어 관여와 조언을 주고 받았고, 이에 대한 수용도는 영역별 다소 차이가 있었다.

2. 성인 이행과 부모의 지원

청년기 자녀의 생애 과업(교육 및 취업)에 대한 부모의 지원과 관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출생 코호트별로 부모의 지원과 관여의 특징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여기서 생애 과업은 대학 진학 과정, 대학 생활, 취업 준비 및 구직 과정 각 단계로 구분하였다. 특히 다음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애과업(진학, 취업)과 관련된 부모의 관여와 조언 정도에 대한 응답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응답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실제로 부모는 자녀의 생애과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지만, 막상 자녀들이 요구하는 조언과 관여의 수준과 실제 부모가 제공하는 조언의 수준이 차이가 있어서, 이를 실효적인 경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대학진학여부나 직업권유 등 명확한 항목에 대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교과과정에서의 성적 관리나 구체적인 취업준비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모 응답과 자녀 응답의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부모 입장에서는 관심을 표하고 의미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수 있지만, 막상 수용하는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조언이 시도되어도 실제로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 자녀는 그러한 조언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1] 생애 과업별 부모의 관여와 조언 정도: 부모 응답과 자녀 응답 비교

(단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대학 진학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대학 진학 여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청년 역시 부모에게 대한 진학 여부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는 비중이 높게 나왔다. 인터뷰 결과, 대학 진학 훨씬 전인, 중고등학교 진학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진학에 있어 깊은 관심을 갖고 개입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과 대학입시 준비 방법(내신, 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등)에 대해서 부모는 간섭과 조언을 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부모(P5)는 자녀에 맞는 학교의 학교를 찾는 등 매우 열성적으로 자녀를 위한 대학교, 학과 등 진로 선택에 대해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오빠와 아빠 등이 서로 의견을 내며 딸 아이의 대학교와 학과를 조율하기도 하였다. 반면, 청년은 대학 진학 여부 외에, 대학 입시 준비 방법이나 진로 선택 등에 있어서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부모들은 청년들이 본인의 조언을 잘 수용해주었다고 답하였다. 실제로 인터뷰에 참여한 한 청년(C2)은 부모가 고등학생 때 진로와 진학에 대

해 부모님의 간섭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실제로 이런 조언과 지지를 많이 수용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삶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딸이 과를 정할 때 엄청 실갱이가 있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애가 성적이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간호과가 있는 학교를 찾느라고 제가 밤을 새울 정도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열심히 찾았어요). 그런데 (...) 아이는 ‘그게 맞나?’ 하고서 한참하더니 ‘알았어’. 그때 자정 되기 전에 그 대학원서를 쓴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엄청 고마워하죠.** 지금은 막 아빠랑 나랑 너는 엄마 아니 있으면 지금 뭐 먹고 살래? ...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가 제일 잘한 게 그거예요 간호사로 길을 해준 거(P5, 57세, 고졸, 여성)

사실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나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우선 실패를 많이 겪었는데 성공을 겪는 학생들도 있고 실패도 실패를 겪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좀 그런 조언들을 해줬으면 인생에 아무래도 오래 사셨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런 조언들을 해주면 좋다고 느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러신 편이었고요.(C2, 30세, 대졸, 남성)

둘째, 대학 생활에 있어서 청년은 부모에게 간섭과 도움을 요청하는 비중이 대학 진학 과정에 비해서 줄어들었다. 다만, 절반 이상의 부모는 청년 자녀에게 대외 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사회 경험을 늘리는 방법과 자녀가 대학 재학 중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 및 입사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관여하고 조언을 주는 경향이 있었다. 조언을 넘어, 경제적으로 졸업 이후 취업을 위한 준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동반되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한 부모는 “학비 대주고 또 요즘은 학생들은 스펙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학 연수 보내주고 다 부모 돈이에요”라고 답하였다. 이는 저성장 시대에 취업난과 불안정한 고용의 증가로 인해, 괜찮은 직장에 안착하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알기에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 진출과 취업에 대해 걱정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가 사회 경험과 관련 자격 요건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청년 역시 부모로부터 취업 관련 자격증 취득이나 입사 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비중은 적었다. 그 이유는 선후배, 기타 외부 활동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 면접참여자는 “그런 것은 사실 부모님보다는 더 잘 아시는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더 오히려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그냥 공부 외적인 것들 인생에 대한 것들 그런 조언이 더 필요하다”고 답하였다(C1).

저는 이제 진로를 정하는 과정에서 좀 전공이 안 맞다고 처음에 느껴가지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에 대해서 좀 부모님께 조언을 많이 들었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항상 똑같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경험하면 좋고 배우면 좋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부모의 조언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C1, 27세, 여성).

셋째, 그러나 직접적인 권유나 조언, 정보제공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직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청년 자녀를 둔 부모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점이 많이 언급되었다. 일례로, 인터뷰에 참여한 한 부모(P2)는 자녀가 남편과 같은 분야에서 일을 할 것을 권유했다고 말했는데, 자녀가 아버지와 동일한 직업을 선택한다면 아버지의 직업 경험과 사회적 네트워크 등 가치있는 자원을 직접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녀는 아버지와 동

일한 직업을 선택했는데, 입사면접을 비롯한 취업 준비과정을 아버지가 직접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 참여자(P3)의 남편은 자녀가 높은 서열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자, 대기업 취업을 통해 불만을 해소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희망을 자녀와 서슴없이 공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생각이 맞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었다. 분석 결과 청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채용시험과 직업 권유, 그리고 채용 정보에 대한 본인들의 간섭과 개입을 자녀가 잘 수용하였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진학을 비롯하여 직업이나 직장선택 과정에서 갈등에 직면할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진로의 방향을 둘러싼 갈등 만큼이나 부모의 기대수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생겨나는 갈등도 클 수 있다.

저희 큰 아이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같은 금융업계 쪽으로 갔어요. **아빠가 하다 못해서 정말 예상 문제로 면접까지 다 해줬기 때문에** 걱정이 없었죠 (P2, 57세, 대졸, 여성).

아이가 (우수한 성적으로) 맨날 전교에서 날리고 하니까 스카이(대학)를 갈 줄 알았는데 이제 한끝 발 아래를 가니까 애 아빠가 이제 좀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 아빠에게 '우리가 강남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정도 해도 잘한 거다' 했는데, 오히려 애기 아빠는 그럼 그 대학을 나왔으니 삼성이나 현대를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P3, 55세, 대졸, 여성).

종합하면, 청년 자녀를 둔 부모는 청년 자녀의 대학 진학 과정 그리고 취업 및 구직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여와 조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대학 진학과 직업 권유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청년 자녀를 둔 부모가 서로 비슷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때, 부모의 조언과 간섭을 잘 수용

해 준 것으로 보인다.

아주 자주 매번 했던 건 아니지만 중요한 순간에 의견을 구하고 했던 것이 사실 좀 힘이 되고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C1, 27세, 대학원 졸, 여성).

다음으로, 청년의 교육 및 취업 준비와 부모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용한 교육비를 어떻게 조달받았는지 청년에게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의 청년은 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조달받았다고 답하였고, 본인의 번 수입으로 충당했다는 응답도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다. 장학금, 정부 보조 등 공적 자원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지난 1년간 현금 지원을 받은 청년에게 용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취업 관련 비용, 주거비, 외국어 능력 향상 등 다양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인터뷰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자동차운전학원 학원비를 지원받기도 하였고(C04),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 받거나(C02), 월세를 지원받거나(C02), 다양한 부분에 있어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고 있었다.



제4장

이상적 세대관계와 현실적 지원 관계

제1절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

제2절 부모 지원 필요성과 가치

제3절 부모 역할 확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



제 4 장

이상적 세대관계와 현실적 지원 관계

제1절 부모역할에 대한 가치관과 의식

1. 부모의 청년기 경험과 새로운 부모역할

이 조사에 참여한 부모 응답자들(45세 이상 69세 이하)이 청년기를 보낸 시기(25세 시점)는 1984년에서 2004년에 해당한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청년기를 경험한 현재의 부모세대는 자신의 청년기와 자녀의 청년기 사이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부모 응답자의 84.8%가 자신의 청년기와 오늘날의 청년기 사이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1.2%는 많이 달라졌다고 응답했다.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2.8%)과 중립적인 응답(12.4%)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현재 청년세대의 청년기가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변화 정도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졸이상이거나 자산수준이 높은 응답자가 변화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연령에 따른 응답패턴은 일관적이지 않았으나, 자녀의 연령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본인의 청년기와 자녀의 청년기 사이의 차이를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청년기에 대한 부모의 경험과 지식도 늘어나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두 세대 간의 청년기 차이를 더 크게 인식했다. 자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근소하게나마 자녀가 여성인 경우 변화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130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표 4-1〉 부모의 본인과 자녀의 청년기 비교

(단위: %)

구분	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② 달라지지 않은 편이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달라진 편이다	⑤ 많이 달라졌다	④+⑤	계
전체	0.3	2.6	2.8	12.4	43.6	41.2	84.8	100.0
성별								
남	0.3	3.1	3.4	14.4	44.7	37.5	82.2	100.0
여	0.2	2.1	2.3	10.7	42.6	44.4	87.0	100.0
연령								
45-49세	0.0	3.1	3.1	13.6	48.1	35.1	83.3	100.0
50-54세	0.0	3.5	3.5	11.9	43.1	41.5	84.6	100.0
55-59세	0.6	2.2	2.8	12.8	43.6	40.7	84.3	100.0
60-64세	0.2	1.6	1.9	10.3	46.3	41.5	87.8	100.0
65-69세	0.0	3.2	3.2	17.4	33.3	46.1	79.4	100.0
응답자 교육수준								
고졸 이하	0.3	2.4	2.7	13.4	42.8	41.1	83.9	100.0
초대졸	0.0	1.2	1.2	15.1	43.7	40.0	83.7	100.0
대졸 이상	0.2	3.1	3.4	9.4	45.7	41.5	87.3	100.0
경제적 계층인식								
하	0.4	2.8	3.2	11.4	42.3	43.1	85.4	100.0
중	0.0	1.7	1.7	14.3	45.4	38.6	84.1	100.0
상	0.7	5.2	5.8	9.7	42.1	42.3	84.4	100.0
자산								
1억원 미만	0.4	1.8	2.2	16.7	42.3	38.8	81.1	100.0
1억원-5억원 미만	0.2	2.3	2.5	12.7	42.9	41.9	84.8	100.0
5억원-10억원 미만	0.0	2.3	2.3	11.8	44.9	41.0	85.9	100.0
10억원 이상	0.7	4.0	4.7	8.8	44.4	42.1	86.5	100.0
자녀 수								
1명	0.4	4.3	4.7	14.2	38.6	42.5	81.1	100.0
2명	0.3	2.4	2.6	12.0	45.5	39.8	85.3	100.0
3명 이상	0.0	1.7	1.7	12.6	38.9	46.8	85.7	100.0

구분	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② 달라지지 않은 편이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달라진 편이다	⑤ 많이 달라졌다	④+⑤	계
지역								
수도권	0.5	3.0	3.5	11.7	43.8	41.0	84.8	100.0
비수도권	0.0	2.1	2.1	13.1	43.4	41.3	84.7	100.0
자녀 성별								
남	0.3	2.9	3.3	12.6	45.0	39.2	84.1	100.0
여	0.1	2.1	2.2	12.3	41.9	43.7	85.5	100.0
자녀 연령								
19-24세	0.0	4.1	4.1	12.0	44.3	39.6	83.9	100.0
25-29세	0.4	1.8	2.2	13.5	42.9	41.4	84.3	100.0
30-34세	0.3	2.0	2.3	11.9	43.5	42.3	85.8	100.0
자녀와 동거 여부								
동거	0.3	3.1	3.4	13.9	43.5	39.2	82.8	100.0
비동거	0.2	2.1	2.3	11.2	43.6	42.9	86.5	100.0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부모 본인의 청년기 경험과 자녀의 경험을 비교한 질문의 조사결과를 살펴본다. 먼저 부모에게 과거 본인이 청년기에 부모로부터의 관여/조언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를 기술하고 이를 현재 본인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하는 관여와 조언 정도와 비교한다 (<표 4-2> 참조).

과거보다 현재 본인이 부모가 된 이후 자녀에게 관여 및 조언하는 정도가 모든 영역에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부모의 82.0%가 자녀의 진학여부에 대해 조언하고 개입한 것과 비교하여, 부모 자신의 청년기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 부모로부터의 관심과 관여가 있었다는 비율은 51.3%에 불과하여 큰 차이가 있었다. 현재 부모세대는 교육기회가 팽창하고 대학진학이 늘어나는 시기에 청년기를 보냈지만, 대학진학률이

현재 청년세대에 비해 낮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상의하고 조언을 구하는 문화가 보편적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반면, 대학 진학이 일반화된 오늘날에는 실제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대학진학여부를 두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대학) 진학에 대한 부모의 관여는 취업이나 일상적 생활을 통틀어서 부모가 가장 보편적으로 관여하는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청년의 경험과 가장 큰 차이가 있는 영역으로 보인다.

자녀의 직업 또는 전공 결정에서도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조언보다도, 현재 지금 자녀에게 많은 관여와 조언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도 과거 응답자가 부모에게 받은 관여 및 조언보다도, 지금 자녀에게 더 많은 관여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자리와 경력의 경우, 현재 부모가 된 응답자는 자녀에게 취업 정보 제공 및 채용시험에서 도움을 준 정도는 각각 46.8%, 45.7%로 과거에 부모로부터 받은 조언 정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부모가 된 이들의 69.9%는 자녀에게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을 권유하였다. 다만,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청년일 때와 현재 부모 시절 관여와 조언 정도는 비슷한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도 부모가 가장 적극적으로 청년기 자녀에게 개입한 영역은 신체적 건강이나 생활습관 등이었다. 청년자녀의 금전 조달 문제를 비롯하여 자산형성, 이성친구 또는 배우자관계 등에도 부모의 관심도는 낮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본인이 직접 자녀에게 개입하는 수준보다는 높지 않았다.

〈표 4-2〉 과거(청년 시기) 본인에 대한 부모의 관여/조언 여부와 현재 본인과 자녀의
조언 여부 비교

(단위: %)

구분	금전 문제에 대해	자산 관리에 대해	진학에 대해	전공, 직업 선택에 대해	정신적 건강에 대해	신체적 건강에 대해	대인 관계에 대해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과거 부모와 청년인 본인	50.1	41.9	51.3	44.3	42.4	56.5	38.6	44.4
현재 부모가 된 본인과 자녀	67.4	64.7	82.0	74.0	54.3	72.2	51.6	47.4
비교문항	P1-2-1	P1-2-2	P2-2-1	P2-2-3	P1-2-7	P1-2-4	P1-2-6	P1-2-5

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표 4-3〉 과거(청년 시기) 본인에 대한 부모의 관여/조언 여부와 현재 본인과 자녀의
조언 여부 비교

(단위: %)

구분	일자리나 경력에 대해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 권유	채용일정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채용시험(면접, 자기소개서 등) 도움
과거 부모와 청년인 본인	45.1			
현재 부모가 된 본인과 자녀		69.9	46.8	45.7
비교문항	P4-2 평균	표 P4-2-1	표 P4-2-2	표 P4-2-3

주: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비율임.

다음은 과거 청년 시기(19~34세)였을 때,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청년시절 부모와 정서적으로 가까웠다는 응답은 35.9%에 불과했다. 현재 부모로서 자녀와 매우 친밀하다는 응답(62.6%)과 큰 차이가 있었다. 현재 부모로서 자녀와 친밀하지 않다는 응답은 6.9%로 과거 본인이 청년 시절에 부모와의 친밀도가 낮았다는 응답인 22.1%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과거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부모와 가까웠던 비율이 좀 더 높았으며, 부모응답자 자신의 연령도 일관적이지는 않지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과거(청년 시기) 본인과 부모의 친밀도

(단위: %)

구분	① 서막함, 불편함, 어색함 등을 느낌	②	①+②	③	④	⑤ 매우 친근 하다고 느낌	④+⑤	계	평균
현재 자녀와의 관계	1.4	6.9	8.3	29.1	40.9	21.6	62.6	100.0	3.8
과거 부모와의 관계	5.7	22.1	27.9	36.3	26.9	8.9	35.9	100.0	3.1
성별									
남	6.2	24.0	30.2	38.2	25.4	6.2	31.5	100.0	3.0
여	5.3	20.5	25.8	34.6	28.3	11.3	39.6	100.0	3.2
연령									
45-49세	7.2	25.6	32.8	30.5	27.1	9.5	36.7	100.0	3.1
50-54세	5.3	20.6	25.9	32.7	30.7	10.7	41.5	100.0	3.2
55-59세	5.8	18.8	24.7	42.5	24.1	8.8	32.8	100.0	3.1
60-64세	5.6	25.8	31.4	33.3	27.4	8.0	35.4	100.0	3.1
65-69세	5.7	23.9	29.6	38.4	25.1	7.0	32.1	100.0	3.0

이처럼 부모응답자들은 현재 그들의 자녀가 겪고 있는 청년기가 자신이 경험한 청년기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부모응답자들이 현재 자신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재정적/비재정적 지원은 그들이 부모에게서 받은 지원, 즉 그들 부모의 부모역할수행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부모의 부모역할은 보편적인 규범과 가치,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바를 자녀에게 전수하는 ‘사회화’와는 거리가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현재 청년세대의 현실에 대한 해석에 기반을 둔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과거로부터 전수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부모의 지원은 목표가 있는 지원, 즉 전략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자녀와 부모 사이의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

2. 이상적 부모의 모습과 부모-성인자녀 관계

설문조사에서는 부모의 책임의식, 부모가 인지한 자녀의 욕구,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 등의 인지적, 의식적 측면을 조사하였으며,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바람직한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한 의식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와 청년자녀 각각에 대해 초점 집단 면접과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부모와 청년자녀의 지원관계 안에 사회적 요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실제 지원실천으로 전환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부모응답자들이 자녀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 조사에서 우리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동기보다는 부모 지원의 실용적 동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일반적인 수준에서 부모는 자녀의 사회적 성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는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다”는 데 대해 동의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부모의 66.9%가 이에 동의하였다. 대체로 동의하는 부모가 58.1%, 매우 동의하는 부모는 8.8%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율은 33.1%로 조사되었다. 청년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모 3명 중 2명은 자녀의 사회적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의 책임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3명 중 1명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5〉에서 보듯이 가장 낮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60% 이상이 동의하고 있어서, 집단 간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성(68.5%)이

여성(65.5%)에 비해 책임의식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5~59세 연령집단이 자녀에 대한 책임의식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졸 이상의 학력이거나 가구자산의 규모가 큰 집단이 이 문항에 대해 더 많이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응답패턴은 부모가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단지 도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성, 연령, 사회계층 등에 따른 동의율의 차이는 부모의 양육과 지원이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원하거나 관여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표 4-5〉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

(단위: %)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계
전체	3.0	30.1	33.1	58.1	8.8	66.9	100.0
성별							
남	3.0	28.6	31.5	58.9	9.6	68.5	100.0
여	3.0	31.4	34.5	57.4	8.1	65.5	100.0
연령							
45-49세	3.2	33.6	36.8	55.3	7.9	63.2	100.0
50-54세	2.5	31.7	34.2	57.1	8.7	65.8	100.0
55-59세	2.8	27.1	29.9	60.1	10.0	70.1	100.0
60-64세	3.0	31.6	34.7	57.2	8.2	65.3	100.0
65-69세	4.4	28.9	33.3	59.0	7.7	66.7	100.0
응답자 교육수준							
고졸 이하	3.0	32.4	35.4	55.9	8.7	64.6	100.0
초대졸	1.2	34.9	36.2	52.5	11.3	63.8	100.0
대졸 이상	3.4	23.0	26.4	65.2	8.5	73.6	100.0

구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계
직업							
농임수산업/자영업	5.0	28.1	33.0	54.4	12.5	67.0	100.0
판매/서비스/기능/노무	2.6	30.4	33.0	55.8	11.2	67.0	100.0
사무직	2.2	29.1	31.3	62.0	6.7	68.7	100.0
관리/전문직	2.2	22.0	24.2	64.8	11.0	75.8	100.0
주부	2.8	33.8	36.6	56.0	7.4	63.4	100.0
무직/퇴직/기타	3.3	31.6	34.9	59.0	6.1	65.1	100.0
경제적 계층인식							
하	2.7	31.2	33.9	55.9	10.2	66.1	100.0
중	3.5	29.9	33.4	60.0	6.6	66.6	100.0
상	2.6	25.4	28.0	60.9	11.1	72.0	100.0
자산							
1억원 미만	3.9	31.5	35.5	53.0	11.6	64.5	100.0
1억원-5억원 미만	2.7	31.5	34.2	56.4	9.4	65.8	100.0
5억원-10억원 미만	2.3	29.5	31.8	62.1	6.1	68.2	100.0
10억원 이상	3.7	26.7	30.4	61.2	8.4	69.6	100.0

부모에게 어떤 부모가 이상적인가를 질문하였다. 응답 보기를 부모의 도구적인 역할에 관한 것과 그렇지 않은 보기로 제시하였다. 도구적인 역할은 1)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 2) 자녀의 교육, 취업, 결혼 등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모, 3) 자녀에게 경제적 자산을 물려주는 부모로 제시하였으며, 부모의 역할이나 기능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바람직한 상태에 관한 보기로서 4) 부모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 5) 부모 자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부모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보기로는 6) 자녀와 시간을 많이 공유하는 부모를 제시하였다.

응답결과 부모응답자들의 34.7%가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를 꼽았다. 직접적으로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거나 자산을 이전하는 부모보다는 자녀를 정신적으로 잘 길러내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집단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 다만 대졸이거나 주부인 경우 이 항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독립/성인이행을 지원하는 역할(5.8%), 자산 이전 역할(4.4%)에 대한 응답까지 모두 포함하면 이상적 부모의 역할을 부모의 자녀지원 기능과 관련지은 부모가 전체의 44.9%를 차지한다.

두 번째로 빈도가 높은 보기는 부모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로서 27.3%가 여기에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부모자신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모를 꼽은 응답자도 20.8%를 차지했다. 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48.1% 부모응답자가 자녀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 항목을 선택하였다는 점이 의미있다. 이상적인 차원에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가족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는 데 약 절반의 부모들이 동의하고 있다.

〈표 4-6〉 부모응답자의 이상적 부모상

(단위: %)

구분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	자녀의 교육, 취업, 결혼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모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자산을 물려주는 부모	부모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	부모 자신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부모	자녀와 여가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	계
전체	34.7	5.8	4.4	27.3	20.8	7.1	100.0
성별							
남	33.4	6.2	5.8	24.9	20.2	9.4	100.0
여	35.8	5.4	3.3	29.3	21.2	5.0	100.0

구분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	자녀의 교육, 취업, 결혼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모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자산을 물려주는 부모	부모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	부모 자신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부모	자녀와 여가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	계
연령							
45-49세	33.3	8.1	4.8	25.6	20.8	7.2	100.0
50-54세	32.8	7.3	5.6	26.1	20.3	7.9	100.0
55-59세	34.9	5.6	4.8	28.0	19.5	7.2	100.0
60-64세	36.7	4.5	3.5	27.9	21.3	6.1	100.0
65-69세	34.7	3.9	2.6	27.5	24.4	7.0	100.0
응답자 교육수준							
고졸 이하	33.0	5.9	4.9	27.8	21.1	7.3	100.0
초대졸	31.2	6.3	6.3	32.5	17.6	6.2	100.0
대졸 이상	40.1	5.3	2.9	24.8	20.4	6.5	100.0
직업							
농임수산업/자영업	35.6	3.8	8.8	22.1	23.7	6.1	100.0
판매/서비스/기능/노무	30.7	7.3	3.1	25.9	22.3	10.7	100.0
사무직	33.9	4.8	4.0	27.7	20.3	9.3	100.0
관리/전문직	31.6	5.2	5.9	30.1	22.9	4.3	100.0
주부	39.7	7.1	3.9	27.1	18.0	4.3	100.0
무직/퇴직/기타	36.2	4.9	3.8	30.0	19.5	5.6	100.0
경제적 계층인식							
하	35.5	6.1	4.5	26.9	20.0	7.0	100.0
중	33.8	5.4	3.9	28.4	21.6	6.9	100.0
상	34.4	5.2	6.5	24.7	21.4	7.8	100.0
자산							
1억원 미만	35.1	8.4	6.2	23.9	16.0	10.5	100.0
1억원-5억원 미만	35.9	4.4	4.2	26.8	22.6	6.1	100.0
5억원-10억원 미만	35.3	5.2	3.8	29.7	20.3	5.6	100.0
10억원 이상	31.0	7.1	4.0	28.3	21.9	7.7	100.0

다음 문항도 부모응답자들의 가치와 태도에 관한 문항으로서, 성인 자녀와 부모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부모 응답자들의 76.2%가 부모와 성인자녀의 바람직한 관계는 독립적인 관계라고 응답했다. 부모와 성인자녀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거나(7.4%),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는(3.4%) 일방적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비율은 낮았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모와 성인자녀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에서 자녀를 지원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부모응답자들은 대학교육비용(83.9%), 결혼비용(70.1%), 주택구입비용(61.7%), 취업할 때까지 생계비 지원(62.9%), 부모가 능력이 있는 한 계속(42.1%) 지원할 생각이라고 응답하였다.

부모들은 성인자녀와 독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지원 규모와 빈도는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이상에 따른 행동이라기보다는, 자녀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부모의 상황적 인식에 더 많이 좌우되는 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부모의 청년 자녀 지원 실천은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등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다음에서 이 내용을 살펴본다.

〈표 4-7〉 부모응답자의 이상적 부모-성인자녀 관계상

(단위: %)

구분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관계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는 관계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	계	사례수 (명)
전체	7.4	3.4	76.2	13.0	100.0	(1,600)
성별						
남	9.8	4.2	68.9	17.1	100.0	(738)
여	5.2	2.7	82.5	9.6	100.0	(861)
연령						
45-49세	8.8	4.8	73.6	12.8	100.0	(125)
50-54세	7.8	3.3	74.4	14.4	100.0	(396)
55-59세	8.0	2.2	76.6	13.2	100.0	(498)
60-64세	7.0	3.8	76.1	13.1	100.0	(425)
65-69세	3.8	5.1	82.1	9.0	100.0	(155)
응답자 교육수준						
고졸 이하	6.6	4.0	74.8	14.6	100.0	(1,107)
초대졸	12.5	0.0	75.0	12.5	100.0	(80)
대졸 이상	8.5	2.4	80.2	8.9	100.0	(413)
직업						
농임수산업/자영업	7.7	2.8	77.0	12.6	100.0	(182)
판매/서비스/기능/노무	9.1	3.4	70.2	17.3	100.0	(382)
사무직	6.2	4.8	77.5	11.5	100.0	(227)
관리/전문직	12.5	3.7	71.5	12.4	100.0	(136)
주부	4.9	3.2	81.7	10.2	100.0	(285)
무직/퇴직/기타	6.2	2.8	78.7	12.3	100.0	(389)
경제적 계층인식						
하	5.1	2.2	77.5	15.2	100.0	(782)
중	8.7	4.2	76.1	11.0	100.0	(665)
상	13.0	5.8	70.1	11.0	100.0	(154)
자산						
1억원 미만	5.1	5.4	74.3	15.2	100.0	(275)
1억원-5억원 미만	6.6	3.3	75.7	14.4	100.0	(638)
5억원-10억원 미만	7.4	2.8	78.3	11.5	100.0	(389)
10억원 이상	11.1	2.3	76.5	10.1	100.0	(297)

제2절 부모 지원 필요성과 가치

1. 자녀의 지원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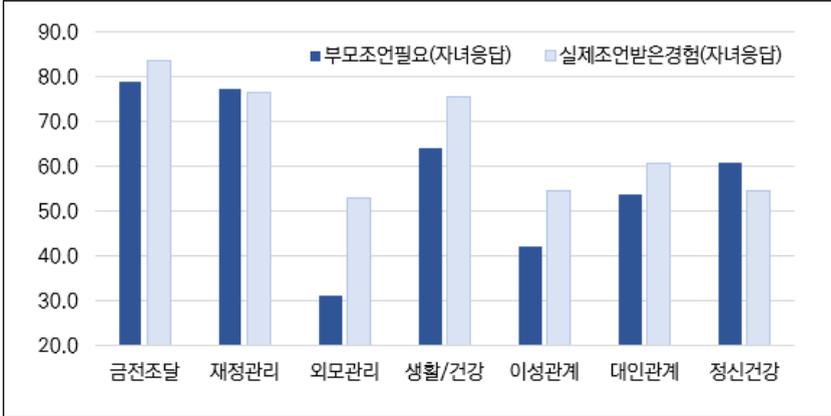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의 일상적인 관여와 조언을 자녀가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초기 성인기는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한 생애단계이므로 부모의 관여를 당연하다고 전제하기 어렵고, 모든 부모-자녀 간의 지원관계를 부모가 주도한다고 전제할 수도 없다.

이러한 관심에서, 청년자녀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로 부모의 관여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제 부모의 관여와 조언이 이루어졌는지를 비교한 결과가 <그림 4-1>이다. 이 결과는 청년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일상적인 조언과 관여가 청년 자녀 자신의 필요와 요청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부모가 청년자녀의 일상에 관여하는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청년자녀가 그러한 부모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각 일상적 생활영역에서 실제로 부모의 관여와 조언을 경험한 비율과 부모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영역별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의 조언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은 생활습관, 금전조달, 재정관리, 외모관리 등인 것과 달리, 자녀가 부모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영역은 금전조달, 재정관리, 생활습관, 정신건강의 영역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녀에게 외모 관리는 부모의 관여가 불필요한 영역이었지만, 실제로 부모의 개입은 그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금전 조달과 재정 관리 등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모의 관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림 4-1] 자녀응답자의 부모조언 필요성과 실제 조언 경험

(단위: %)



다음으로 부모의 응답을 통해, 부모가 인지한 자녀의 조언 요청 여부와 실제 부모의 관여, 조언 여부를 비교한 것이 [그림 4-2]이다. 자녀의 응답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부모들도 금전조달, 재정관리, 생활습관 등이 실제로 자녀에게 일상적으로 조언하는 영역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자녀가 조언을 요청했다고 응답한 비율과 실제로 부모가 조언을 제공한 비율이 생활습관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자녀의 응답과 달리, 부모는 자녀가 직접 요청한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자녀의 일상에 관여하고 개입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금전 조달, 재정 관리, 정신적 건강 문제에서 부모응답자들은 자녀가 실제로 요청한 것보다 높은 비율로 자녀의 일상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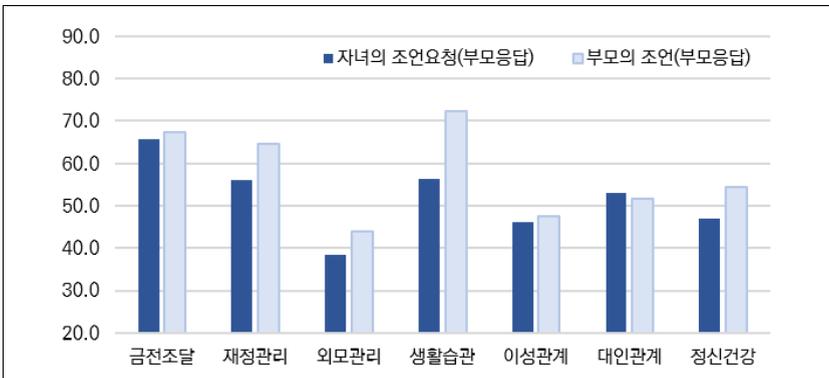
종합하면, 부모는 청년자녀에게 금전 조달, 재정 관리, 정신적 건강관리 등에 대해, 청년자녀가 필요로하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청년자녀가 직접 조언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지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모관리(옷차림 등)에 대해서는 부모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인관계와 이성관계에 대해서는 청년자

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부모가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상황)별 부모관여 필요 비율의 차이는 초기 성인기의 성격을 보여준다. 금전조달, 재정관리에 대한 조언요구는 성인이 되어 경제활동이 시작되었지만 경험과 재정적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습관, 이성관계, 정신건강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부모의 관여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부모의 관여와 조언이 이루어지는 점은 초기 성인기 청년들의 정신적인 부모 의존 정도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4-2] 부모응답자의 자녀의 조언요청과 실제 조언 경험

(단위: %)



2.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정서적 유대의 관계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조언 정도(7개 문항에 대한 평균점수)와 부모에 대한 정서적 의지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청년자녀가 일상적인 부모의 조언과 관여를 많이 경험할수록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8〉참조). 부모의 응답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발견된다. 자녀에게 일상적인 조언과 관여를 많이 하는 것과 자녀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정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표 4-9〉 참조). 이러한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조언과 관여(개입) 등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8〉 청년자녀의 부모 조언 수혜와 부모에 대한 정서적 의지

(단위: %)

구분	①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②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	③ 때때로 의지한다	④ 많이 의지한다	③+④	계	사례수 (명)
1.0~1.5	43.8	26.7	26.7	2.9	29.5	100.0	105
1.5~2.0	9.0	38.5	42.3	10.3	52.6	100.0	156
2.0~2.5	4.8	32.3	55.7	7.3	62.9	100.0	248
2.5~3.0	1.7	20.3	61.8	16.2	78.0	100.0	359
3.0~4.0	6.8	10.6	47.0	35.6	82.6	100.0	132
전체	8.7	25.5	51.6	14.2	65.8	100.0	1,000

주: '부모관여점수'는 7개 항목 조언경험(1~4점)의 평균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관여도 높음.

〈표 4-9〉 장년부모의 자녀조언제공과 자녀와의 정서적 친밀성(부모응답)

(단위: %)

구분	① 서먹함, 불편함, 어색함 등을 느낌	②	③	④	⑤ 매우 친근하다고 느낌	④+⑤	계	사례수 (명)
1.0~1.5	6.3	12.5	26.3	31.3	23.8	55.0	100.0	80
1.5~2.0	3.5	13.6	35.2	34.7	13.1	47.7	100.0	199
2.0~2.5	1.4	10.5	34.3	37.0	16.8	53.8	100.0	370
2.5~3.0	0.3	4.8	29.1	47.2	18.7	65.9	100.0	695
3.0~4.0	1.2	0.8	18.3	37.4	42.4	79.8	100.0	257
전체	1.4	6.9	29.2	40.9	21.6	62.5	100.0	1600

주: '부모관여점수'는 7개 항목 조언경험(1~4점)의 평균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관여도 높음.

그러나 초기 성인기의 과업이 부모로부터 점차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라 전제한다면, 이러한 일상적 관여와 조언은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유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자녀 스스로 자신의 독립성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청년자녀의 부모조언수혜와 자녀의 주관적 독립정도 (자녀응답)

(단위: %)

구분	① 전혀독립 하지않음	②	③	④	⑤ 완전히 독립함	④+⑤	계	사례수 (명)
1.0~1.5	10.5	6.7	17.1	13.3	52.4	65.7	100.0	105
1.5~2.0	7.7	19.2	20.5	30.8	21.8	52.6	100.0	156
2.0~2.5	12.1	19.8	21.0	27.0	20.2	47.2	100.0	248
2.5~3.0	13.7	20.6	29.3	22.3	14.2	36.5	100.0	359
3.0~4.0	22.0	15.9	22.7	26.5	12.9	39.4	100.0	132
전체	13.1	18.1	23.7	24.4	20.7	45.1	100.0	1000

주: '부모관여점수'는 7개 항목 조언경험(1~4점)의 평균점수임.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관여도 높음.

3. 부모 지원이 자녀의 성인 되기에 미치는 영향 인식

청년들은 부모의 지원이 청년의 목표실현과 가치관 정립 등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지원이 청년기에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앞으로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44.8%는 긍정적인 영향을, 38.8%는 보통, 16.4%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절반 이상(50.7%)은 긍정적이라 답하였는데 반해, 여성의 38.4%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연령의 경우, 19~24세의 절반 이상인 59.4%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지만, 25~29세의 38.4% 그리고 30~34세의 37.7%만이 그렇다고 보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47.8%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보았지만,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년의 39.7%만이 그렇다고 보았다.

〈표 4-11〉 부모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 (1)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단위: %, 점)

구분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③ 보통	④ 조금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계	사례수 (명)	평균
전체	6.5	9.9	38.8	30.2	14.6	100.0	(1,000)	3.4
성별								
남	5.5	7.4	36.4	34.7	15.9	100.0	(522)	3.5
여	7.6	12.6	41.4	25.3	13.1	100.0	(478)	3.2
연령								
19~24세	3.2	7.5	29.9	37.8	21.6	100.0	(315)	3.7
25~29세	7.8	10.5	43.3	27.3	11.2	100.0	(336)	3.2
30~34세	8.3	11.5	42.5	26.2	11.5	100.0	(349)	3.2
지역								
수도권	7.2	9.8	36.5	31.4	15.1	100.0	(559)	3.4
비수도권	5.7	9.9	41.7	28.7	14.0	100.0	(441)	3.4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 동거	5.1	8.6	38.5	32.6	15.2	100.0	(628)	3.4
비동거	8.9	12.1	39.3	26.2	13.5	100.0	(372)	3.2

다음으로, 부모님의 지원이 경제적인 자립 능력을 갖추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48%는 긍정적인 영향을, 37.4%는 보통, 14.5%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절반 이상(51.2%)은 긍정적이라 답하였는데 반해, 여성의 44.6%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연령의 경우, 19~24세의 절반 이상인 55.6%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지

만, 25~29세의 44.1% 그리고 30~34세의 45%만이 그렇다고 보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과반 수인 50.2%, 그리고 비수도권 청년의 45.2%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보았다.

〈표 4-12〉 부모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 (2)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갖추는 데

(단위: %, 점)

구분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③ 보통	④ 조금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계	사례수 (명)	평균
전체	5.2	9.4	37.4	31.5	16.6	100.0	(1,000)	3.5
성별								
남	5.1	9.1	34.6	33.5	17.6	100.0	(522)	3.5
여	5.2	9.6	40.5	29.2	15.4	100.0	(478)	3.4
연령								
19~24세	3.7	8.8	31.9	33.4	22.3	100.0	(315)	3.6
25~29세	5.0	10.4	40.4	30.0	14.1	100.0	(336)	3.4
30~34세	6.6	8.8	39.6	31.2	13.8	100.0	(349)	3.4
지역								
수도권	6.1	9.3	34.4	32.0	18.3	100.0	(559)	3.5
비수도권	4.0	9.5	41.3	30.8	14.4	100.0	(441)	3.4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6	9.8	37.8	31.7	16.2	100.0	(628)	3.5
비동거	6.2	8.6	36.9	31.1	17.2	100.0	(372)	3.5

부모님의 지원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44.4%는 긍정적인 영향을, 37%는 보통, 18.6%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48.4%는 긍정적이라 답하였는데 반해, 여성의 40%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연령의 경우, 19~24세의 절반 이상인 56.6%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지만, 25~29세의 39.5% 그리고 30~34세의 38.1%만이 그렇다고 보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45.7%, 그리고 비수도권 청년의 42.7%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보았다.

〈표 4-13〉 부모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 (3)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단위: %, 점)

구분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①+②	③ 보통	④ 조금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④+⑤	계	사례수 (명)	평균
전체	7.2	11.4	18.6	37.0	27.9	16.4	44.4	100.0	(1,000)	3.4
성별										
남	5.8	10.8	16.6	35.0	30.0	18.4	48.4	100.0	(522)	3.4
여	8.8	12.0	20.9	39.2	25.7	14.3	40.0	100.0	(478)	3.3
연령										
19~24세	4.7	9.1	13.9	29.6	32.7	23.8	56.6	100.0	(315)	3.6
25~29세	8.1	11.7	19.8	40.6	26.1	13.4	39.5	100.0	(336)	3.3
30~34세	8.6	13.2	21.8	40.1	25.4	12.6	38.1	100.0	(349)	3.2
지역										
수도권	8.2	10.4	18.6	35.6	27.5	18.3	45.7	100.0	(559)	3.4
비수도권	5.9	12.7	18.6	38.7	28.5	14.1	42.7	100.0	(441)	3.3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 동거	6.1	11.5	17.6	37.5	28.6	16.3	44.9	100.0	(628)	3.4
비동거	9.2	11.3	20.5	36.1	26.8	16.7	43.5	100.0	(372)	3.3

부모님의 지원이 청년 본인이 어른으로 인정받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37.8%는 긍정적인 영향을, 42.2%는 보통, 20%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하였다. 집단 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42.3%만이 긍정적이라 답하였는데 반해, 여성의 32.9%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연령의 경우, 19~24세의 절반 가까이인 47%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지만, 25~29세의 32.8% 그리고 30~34세의 34.4%만이 그렇다고 보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39.4%, 그리고 비동거 청년의 35.2%만이 부모님의 지원이 어른으로 인정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보았다.

<표 4-14> 부모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 (4) 부모님으로부터 어른으로 인정받는 데

(단위: %, 점)

구분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①+②	③ 보통	④ 조금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④+⑤	계	사례수 (명)	평균
전체	7.1	12.9	20.0	42.2	25.6	12.3	37.8	100.0	(1,000)	3.2
성별										
남	5.5	10.6	16.1	41.5	28.5	13.8	42.3	100.0	(522)	3.4
여	8.8	15.4	24.2	42.9	22.3	10.6	32.9	100.0	(478)	3.1
연령										
19~24세	7.5	11.0	18.5	34.5	29.4	17.5	47.0	100.0	(315)	3.4
25~29세	5.9	13.5	19.5	47.8	22.9	9.9	32.8	100.0	(336)	3.2
30~34세	7.8	14.1	21.8	43.7	24.7	9.8	34.4	100.0	(349)	3.2
지역										
수도권	7.9	13.1	20.9	40.9	24.9	13.3	38.1	100.0	(559)	3.2
비수도권	6.1	12.7	18.8	43.8	26.5	11.0	37.5	100.0	(441)	3.2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 동거	5.7	13.3	19.0	41.7	27.0	12.3	39.4	100.0	(628)	3.3
비동거	9.4	12.3	21.7	43.1	23.1	12.1	35.2	100.0	(372)	3.2

부모님의 지원이 청년 본인이 남들로부터 능력있다고 인정받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물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39.2%는 긍정적인 영향을, 44.2%는 보통, 16.6%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하였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44.4%만이 긍정적이라 답하였는데 반해, 여성의 33.5%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았다. 연령의 경우, 19~24세의 절반 가까이인 49.2%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지만, 25~29세의 34.5% 그리고 30~34세의 34.7%만이 그렇다고 보았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의 40.1%, 그리고 비수도권 청년의 38.2%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보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의 40.8%, 그리고 비동거 청년의 36.6%만이 부모님의 지원이 어른으로 인정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으로 보았다.

〈표 4-15〉 부모의 지원이 미치는 영향: (5) 남들로부터 능력있다고 인정받는 데

(단위: %, 점)

구분	① 매우 부정적	② 약간 부정적	①+②	③ 보통	④ 조금 긍정적	⑤ 매우 긍정적	④+⑤	계	사례수 (명)	평균
전체	6.0	10.6	16.6	44.2	25.7	13.6	39.2	100.0	(1,000)	3.3
성별										
남	5.7	8.7	14.5	41.1	29.1	15.3	44.4	100.0	(522)	3.4
여	6.3	12.7	19.0	47.5	21.9	11.6	33.5	100.0	(478)	3.2
연령										
19~24세	4.4	9.4	13.8	36.9	27.3	22.0	49.2	100.0	(315)	3.5
25~29세	5.4	9.3	14.7	50.8	25.6	9.0	34.5	100.0	(336)	3.2
30~34세	8.0	13.0	21.0	44.3	24.3	10.4	34.7	100.0	(349)	3.2
지역										
수도권	6.6	10.4	17.0	42.9	25.4	14.7	40.1	100.0	(559)	3.3
비수도권	5.2	10.9	16.1	45.8	26.0	12.1	38.2	100.0	(441)	3.3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 동거	4.9	10.1	15.0	44.2	26.5	14.3	40.8	100.0	(628)	3.4
비동거	7.8	11.5	19.3	44.1	24.2	12.4	36.6	100.0	(372)	3.2

종합하면, 부모님의 지원이 청년 응답자의 삶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앞으로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 결과, 부모님의 지원이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응답이 4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부모님의 지원이 청년 본인의 인생 목표나 가치관을 정립하고(44.8%),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있어(44.4%)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지원이 내가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데(39.2%)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부모님으로부터 어른으로 인정받는 것(37.8%)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표 4-16〉 부모지원의 항목별 긍정 영향 점수

(단위: %, 점)

구분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갖추는데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어른으로 인정받는데	남들로부터 능력있다고 인정받는데	사례수 (명)
청년	3.4	3.5	3.4	3.2	3.3	(1,000)
성별						
남	3.5	3.5	3.4	3.4	3.4	(522)
여	3.2	3.4	3.3	3.1	3.2	(478)
연령						
19~24세	3.7	3.6	3.6	3.4	3.5	(315)
25~29세	3.2	3.4	3.3	3.2	3.2	(336)
30~34세	3.2	3.4	3.2	3.2	3.2	(349)
지역						
수도권	3.4	3.5	3.4	3.2	3.3	(559)
비수도권	3.4	3.4	3.3	3.2	3.3	(44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3.4	3.5	3.4	3.3	3.4	(628)
비동거	3.2	3.5	3.3	3.2	3.2	(372)

주: 5점 척도로 측정됨. 1점~3점 미만: 부정 영향, 3점: 보통, 3점 이상~5점: 긍정 영향

제3절 부모 역할 확대에 대한 부모세대의 인식

1. 성장과 발전의 효과: “경제력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부모세대 자신의 청년기에는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된 원인이었지만, 유복한 환경에 있었던 경우에도 부모는 엄격하고 자녀와 정서적인 거리를 두기 마련이었다. 두 명의 자녀를 둔 63세 P9(남)는 30세가 넘는 자녀에게 지금도 지원해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이 겹겹적이지만, 과거와 달리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사회에서 부모가 더 많이 지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이상의 부모님들은 그야말로 고생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들을 만한(해줄 만한) 여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저 제 밑에 동생이 초등학교 5학년 그때 자취를 했어요. 그러니 뭐 그 밑에 또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그런 조언 같은 걸 기대를 안 했죠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P9, 63세, 고졸, 남성).

자녀가 그렇게 막상 이제 무슨 큰 문제 결혼이나 뭐 이런 게 있기 전에는 이렇게 부모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이제 생각해서 해주는 거고 저희가 또 부담을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우리가 받은 거에 비해서는 이제 너무나 이제 벅찬 면도 있고 힘들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 당시보다는 지금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력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금액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부모가 그래도 요즘 애들도 예전보다는 더 어려울 수 있고 사실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 뭐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P9, 63세, 고졸, 남성).

부모세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과거의 부모들과 비교하여 향상되었고, 교육수준도 높아져 자녀의 양육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녀수가 줄어들어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에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2. 초기 성인기 생애과업 이행의 현실적 어려움과 지원 불가피성: “아이들이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나 더 일반적인 인식은 현재 청년들이 교육, 취업, 독립 과정에서 실제로 부모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인식이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는, 피부로 느끼는 사회구조적 불평등 심화,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팍팍해지는 청년의 삶에 대해 누구보다도 공감하였고 가슴 아파하였기 때문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부모들은 본인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시작점이 다르기에, 부모의 지원과 간섭 없이는 사회에서 홀로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특히, 경제적 지원이야말로 필수불가결이라는 입장이었다.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미성년이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성인이잖아요.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되면 졸업을 하니까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거 뭐 잡이든 페이를 맞춰서 가든 어떻게 하든 그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부모가 끝까지 더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는 오히려 경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 저희 위의 부모 세대들은 부동산 투기도 가능했던 세대고 저희들은 이제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모으고 안 먹고 안 쓰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집 한 채라도 마련할 수 있었던 세대지만 지금의 2030 애들은 과연 개네가 그러니까 코인에 빠지고 유튜브 돼갖고 뭐 하고 싶어 하고 막 이런 거를 바라는 거고 결혼이라든가 배우자를 고른다. 어드바이스는 해줄 수 있어도 지네 인생이고 하니까 지네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네가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물론 요번에 얼마 전에도 뭐지 증여 같은 것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결혼하는 시점에서 1억5천까지 될 수 있고 그게 이제 과연 몇 명이나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도 얘기를 하지만 **못해 주는 부모님들은 또 이제 속이 상하죠. 속이 터지죠.** (...) 그러니까 어쭙잡은 참견보다 오히려 그게(경제적인 지원이) (...) 정말 현실적으로 저희도 살면서 힘들었잖아요.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어요(P3, 55세, 대졸, 여성).

청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부모의 지원, 간섭 그리고 개입은 청년 시기인 지금도 지속되며, 앞으로도 쉬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듯했다. 대부분 결혼 준비까지는 자녀에게 주거비용이든

결혼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였고, 심지어는 손자녀 돌봄을 자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생각한 거는 그 자녀를 이렇게 뒷바라지나 하여튼 그런 함에 있어서 대학교 졸업까지 직장 들어가기까지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는데 **끝이 없는 것 같아 어른들이 말하는 것처럼 손은 늙아 되겠다 이제 이제 개도 하나의 인격체로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하는데도 안 그래요.마음이 그렇고 손이 그렇고** 하느님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마음이 절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놓여지지 않는다는 거 밑으로 그냥 가면 갈수록 그 해마다 달마다 그 아이들한테 해줘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되는 하여튼 서포트해야 될 것들이 생각만 나지 이제 이거 손 끊어야 되겠다.끊어야 되겠다. 절대 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다짐하고 다르대더라(P5, 57세, 고졸, 여성).**

그리고 **아직도 숙제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어쩔 땐 슬프다는 거 끝입니다.끝이 없어 (P4, 52세, 고졸, 여성)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 아이가 결혼을 해서 거기까지는 갈 것 같고 개한테 말한 거는 아버지는 **애를 봐주겠다고 했어요** (P1, 54세, 대졸, 여성)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태어난 현재 부모세대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전통적인 가부장적 틀에서 규정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응답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부모와 성인자녀가 서로 독립적인 경제적 생활을 운영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아동기부터 초기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부모에서 자녀로의 자원이전 방향을 언젠가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응답자의 말처럼, 도무지 끝나지 않는 지원 관계에 직면하여 무기력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3. 가족의 지원을 당연시하는 정부 정책

부모응답자들은 청년 자녀 지원 부담에 직면하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보여주기식 프로그램은 종종 접할 수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응답자는 청년정책이 상위계층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이런 대책은 아니지만 잘은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실질적인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진짜 많이 해주는 거는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위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것만 하지,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P6, 57세, 전문대 중퇴, 여성).

또 다른 참여자(P8, 51세, 고졸, 여성, 자녀비동거)는 독립하여 살고 있는 딸아이가 최근 경험한 일을 소개하면서, 부모재산을 고려하여 청년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재산(소득인정액) 기준을 통해 이 상위계층을 선별하는 기능보다는 부모의 책임을 강제하는 효과를 낳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였다.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모 면접참여자들의 주장은, 그것만이 부모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저희 아이가 29살 때인가 나라에서 저기 임대 아파트 뭐죠? 사가지고 나라에서 사서 이렇게 해놓은 거(매입임대주택) 그게 보증금 100만 원에 방마다 크기가 좀 살짝 있어서 가격이 틀린데 29만 원인가 들어가는 거 엄청 좋은 거잖아요. 돈 없는 아이들한테는 그걸 들어가려고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신청)서류에 부모 재산까지 다 들어가더라고요. 내일 모레면 서른 살이 되는데 그래서 탈락이 됐거든요.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안 된대요.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 그럼 평생 부모한테 의지해서 살으라는 얘기에요? 뭐라고? 난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게 몇 살 넘으면 그 기준으로 자녀가 단독으로 세대로 구성했으니까 그 개 위주로 저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부모를 끌어들여서 어딴 집은 부모가 가지고 보증인도 아니고 좀 그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P8, 51세, 고졸, 여성, 자녀비동거).





제5장

부모 지원의 계층간 격차

제1절 주관적 계층 범주의 특징

제2절 부모 지원의 다차원적 격차

제3절 기대와 전망의 계층화



제 5 장 부모지원의 계층간 격차

제1절 주관적 계층 범주의 특징

이 장에서는 계층지위에 따른 부모의 청년자녀 지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계층지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이 조사에서는 개인과 가구수준에서 객관적인 사회계층적 특성을 파악하는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객관적인 계층지위를 측정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계층을 중심으로 계층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응답자 자신이 평가한 본인의 계층지위가 불충분한 객관적 지위지표(교육수준, 본인 또는 가구의 소득수준, 자산수준 등)보다 불평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인가구의 경제적 계층수준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가장 낮은 하층은 9.7%, 중하층은 39.2%, 중간층은 41.5%, 중상층은 9.2%, 상층은 0.4%로 조사되었다. 중간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하층이었다. 하층이거나 상층이라는 응답은 매우 낮았으며, 특히 상층이라는 응답비율은 거의 0에 가까웠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응답분포를 고려하여, 5점 척도로 응답한 결과값을 3점 척도로 재범주화한다. 하층과 중하층을 합하여 하층으로 분류하고, 중간층은 그대로 중간층으로 분류하며, 중상층과 상층을 합하여 상층으로 분리하였다. 이하에서는 주관적 계층의 3개 범주인, 하층(48.9%), 중간층(41.5%), 상층(10.2%)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검토하고, 이 조사의 주관적 계층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파악한다.

〈표 5-1〉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 응답 분포

(단위: 명, %)

구분	사례 수	비율
1. 하층	155	9.7
2. 중하층	627	39.2
3. 중간층	665	41.5
4. 중상층	147	9.2
5. 상층	7	0.4
전체	1,601	100.0

청년자녀가 있는 장년부모 응답자의 유배우 비율은 85.4%이고 이혼/사별/별거 등은 14.6%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 소속에 따른 응답자의 가구형태는 다음과 같다. 하층은 상대적으로 한부모가구(이혼/사별)의 비율(21.7%)이 높았으며, 상층은 상대적으로 은퇴자의 비율(11.7%)이 높았다. 모든 계층에서 맞벌이 비율이 외벌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2〉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별 가구형태 분포

(단위: %)

구분	한부모가구	부부가구			계	사례 수 (명)
		외벌이	맞벌이	은퇴		
하	21.7	30.2	41.6	6.5	100.0	(782)
중	8.4	36.7	44.7	10.2	100.0	(665)
상	5.2	37.7	45.5	11.7	100.0	(154)
전체	14.6	33.6	43.2	8.6	100.0	(1,601)

주관적 계층 응답결과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업 지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층은 판매/서비스직, 기계/운송/기능/단순노무의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고 경영관리직, 전문직의 비율은 낮았다. 반면 상층은 상대적으로 경영 관리직과 전문직의 비율이 높았고, 무직(은퇴)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표 5-3〉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별 가구형태 분포

(단위: %)

구분		하	중	상	Total	사례수 (명)
주관적 계층	농림어업종사	1.5	1.1	2.0	1.4	22
	자영업(9인이하)	10.4	9.6	9.7	10.0	160
	판매/서비스직	12.5	7.7	3.3	9.6	154
	기계조작/운송/기능/단순노무	16.5	13.1	7.8	14.2	228
	사무직(차장 이하, 5급 미만)	11.9	16.8	14.3	14.2	227
	경영관리직(부장 이상, 5급 이상)	2.7	6.6	16.2	5.6	90
	전문직	1.4	3.2	9.1	2.9	46
	전업주부	16.2	20.0	16.9	17.9	286
	기타 직업	14.7	10.1	8.4	12.2	195
	무직(퇴직, 은퇴)	12.2	11.9	12.3	12.1	193
	계	100.0	100.0	100.0	100.0	1,601
배우자 직업	농림어업종사	1.6	1.3	2.1	1.5	21
	자영업(9인이하)	10.6	11.3	13.7	11.3	154
	판매/영업/서비스직	10.3	8.1	2.1	8.4	115
	기계조작/운송/기능/단순노무	18.8	12.5	4.8	14.5	198
	사무직(차장 이하, 5급 미만)	11.8	13.5	8.9	12.2	167
	경영관리직(부장 이상, 5급 이상)	2.1	5.1	13.7	4.7	64
	전문직	2.3	5.4	8.9	4.4	60
	전업주부	9.6	11.8	13.7	11.1	151
	기타 직업	15.7	12.5	10.3	13.7	187
	무직(퇴직, 은퇴)	17.2	18.6	21.9	18.3	250
	계	100.0	100.0	100.0	100.0	1,367

청년 자녀가 있는 부모의 자산은 순자산 평균이 약 5억원, 중간값이 3억원으로 조사되었다. 부동산 자산은 평균 약 5억 5천만원, 중간값은 약 3억 4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은 가구의 순자산 및 부동산 자산 수준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층은 순자산 수준의 중간값이 2억원인 반면, 중간층은 4억원, 상층은 8억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5-4〉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별 순자산 수준

(단위: 만 원)

구분	순자산		부동산 자산	
	평균	중간값	평균	중간값
하	29,885	20,000	30,821	22,000
중	58,174	40,000	64,179	45,000
상	107,257	80,000	125,155	100,000
전체	49,853	30,000	54,680	34,200

교육수준도 주관적 계층과 체계적인 관련성을 보여준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일수록 주관적 계층이 상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별 본인과(또는) 배우자의 교육수준

(단위: %)

구분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전체
본인 교육수준	하	2.7	77.2	5.4	14.7	100.0
	중	1.8	61.2	4.2	32.8	100.0
	상	0.0	40.9	6.5	52.6	100.0
	전체	2.1	67.1	5.0	25.9	100.0
배우자 교육수준	하	5.2	62.3	12.4	20.1	100.0
	중	1.5	49.6	11.8	37.1	100.0
	상	3.4	32.9	11.6	52.1	100.0
	전체	3.4	53.5	12.1	31.1	100.0

이상에서 부모응답자의 주관적 계층 분포와 객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응답자 가구의 직업 및 경제활동상태, 자산수준, 교육수준 등과 주관적 계층 지위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하에서는 주관적 계층 범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기초하여, 부모와 청년자녀 사이의 다차원적 지원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의 계층적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2절 부모 지원의 다차원적 격차

1. 부모의 일상적 관여와 개입의 계층적 격차

가. 부모관심의 필요성 인지와 실제 부모 관여의 계층 격차: 자녀 응답을 중심으로

청년자녀의 응답에 따르면, 상위 계층일수록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모의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개입과 관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에서 부모의 일상적 관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생활습관,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영역으로서 62.2%의 부모가 관여한다고 응답했다. 금전조달에 대해서도 55.5%의 부모가 자녀가 필요자금을 마련하는 일에 관여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나 이성관계 등에 관여한다는 비율(각각 37.4%, 37.5%)은 낮은 수준이었다.

중위계층에서도 부모의 일상적 관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생활습관(68.8%)이었으며 금전조달(67.6%)과 재정관리(62.3%)도 부모가 많이 관여하는 영역 중 하나로 나타났다. 그 외의 영역에서도 부모의 일상적 관여 수준은 하위계층보다 높았지만, 50%에 미치지 못하였다.

상위계층에서 부모의 일상적 관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금전조달(83.5%)이었으며, 재정관리(76.5%), 생활습관(75.7%)의 비율도 높았다.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상위계층 부모의 관여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부모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수준도 계층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하위계층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부모의 관여와 개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동의비율이 낮았다. 하위계층 청년들이 중위계층이나 상위계층 청년들보다 더 독립적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신적 건강 영역에서는 자녀

의 부모조언 필요성 인식 면에서 계층 간 차이가 크지 않았고, 50% 이상이 계층과 상관없이 부모의 관여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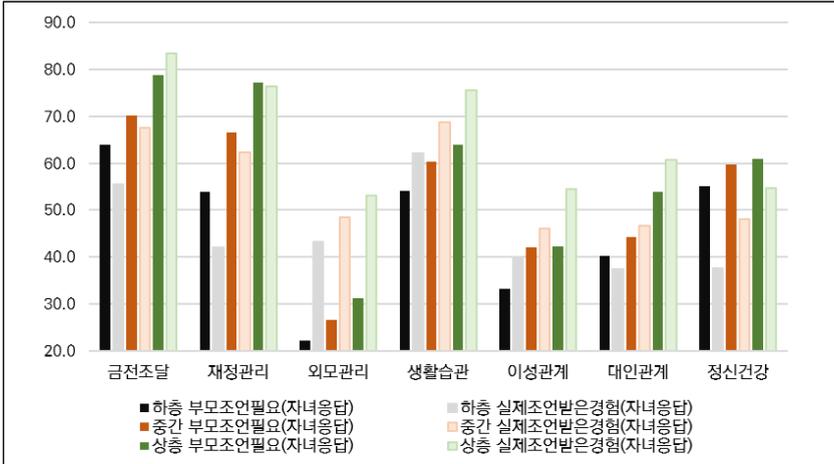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부모의 관여와 조언에서, 청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부모의 관여와 조언을 받은 경험 사이의 격차를 살펴보면, 영역에 따라, 그리고 계층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영역을 보면, 외모 관리, 생활습관, 이성관계 영역은 모든 계층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부모의 관여와 개입이 이루어졌다. 반면 정신적 건강 관리 영역은 모든 계층에서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것과 비교하여 실제 부모의 관여 수준이 낮았다.

이러한 영역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계층간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다. 상위계층은 금전 조달, 재정 관리, 대인 관계 등에서 청년 자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부모가 관여하고 개입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현재와 미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자녀들도 동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하위계층은 금전 조달과 재정 관리 측면에서 부모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만큼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계층 청년들이 경제적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인한 결핍감이 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위 계층에서는 자녀의 필요 인식 수준과 부모의 실제 지원제공 사이의 격차가 크지 않거나 부모가 더 높은 수준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위 계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자녀의 필요 인식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실제 지원제공이 높지 않아 둘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청년들이 부모의 관여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단지 경제적 필요와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정신건강을 비롯하여, 재정 관리, 생활 습관, 대인 관계 등에서도 부모의 관여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5-1] 자녀응답자의 부모조언 필요성과 실제 조언받은 경험의 계층간 격차

(단위: %)



주: 계층은 주관적 계층을 의미하며, 5점 척도 측정결과를 하층(1, 2), 중간층(3), 상층(4, 5)으로 구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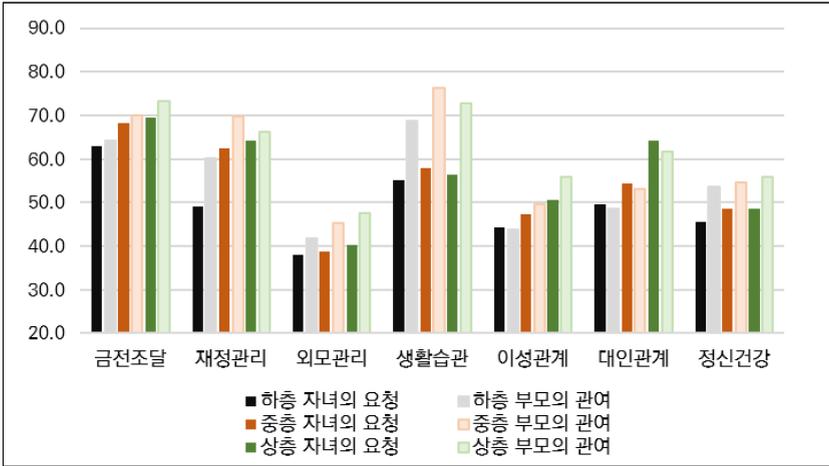
나. 자녀의 요청과 실제 부모의 관여: 부모 응답을 중심으로

부모응답자에게는 실제 부모가 관여했는지와 더불어, 자녀로부터의 요청이 있었는가를 질문한 바 있다. 그 각각의 수준을 계층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 [그림 5-2](〈표 5-6〉)이다. 이를 통해 실제 부모가 관여했는지의 여부와 자녀로부터 관여를 요청받았는지 여부를 비교해볼 수 있다.

부모의 응답결과에 따르면, 부모응답자들이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여하는 정도는 실제로 자녀로부터 관여나 조언을 요청받은 것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계층의 경우 자녀응답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부모가 제공하는 것 사이의 격차가 크다고 응답했으나, 부모의 응답에서는 그러한 계층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부모의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고 이미 요구수준을 조절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5-2] 부모응답자의 자녀 조인 요청과 실제 관여 계층간 격차

(단위: %)



<표 5-6> 부모응답자의 자녀 조인 요청과 실제 관여 계층간 격차

(단위 : %)

청년 자녀가 있는 부모	금전 문제에 대해 (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 지에 대해 (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외모·체형·웃차림 등의 문제에 대해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관련 문제에 대해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대인 관계 (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정신적 문제에 대해 (불안, 우울, 무기력 등)
자녀의 요청	65.8	56.1	38.5	56.4	46.1	53.0	47.1
하	62.9	49.1	38.0	55.1	44.2	49.6	45.6
중	68.3	62.4	38.7	58.0	47.3	54.3	48.6
상	69.4	64.2	40.3	56.4	50.6	64.3	48.7
부모의 제공	67.4	64.7	43.9	72.2	47.4	51.6	54.3
하	64.1	60.1	41.9	68.7	43.9	48.5	53.7
중	70.0	69.7	45.4	76.2	49.6	53.0	54.6
상	73.2	66.3	47.6	72.7	55.8	61.7	55.9

2. 초기 성인기 자녀와 부모의 정서적 유대의 계층간 격차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관계에서도 계층적 격차가 나타난다. 이러한 격차는 특히 청년자녀의 응답을 통해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부모가 청년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계층간 차이가 확인된다.

‘자녀가 성인이어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꼭 필요하다’는 문항에 대해 하층은 74.6%가 동의했고, 상층은 83.6%가 동의하여, 9.0%p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계층을 가로질러 정서적 지지에 대한 필요성은 널리 공유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험과 실천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약 20%p의 계층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하위계층일수록 부모에게 기분을 이해받거나 존중받으며, 감정적인 지원을 받는 경험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위해 취하는 가장 적극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관심사를 공유하기’와 같은 항목에서는 상위 계층의 71.1%와 중위 계층의 68.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하위계층은 48.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자녀는 부모와 정서적으로 좋은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서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데 있어 계층간의 격차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실제로 받은 경험의 비율 격차는 매우 컸다. 상층과 중층의 차이는 미미했고, 상층 및 중층과 하층의 차이가 컸다.

〈표 5-7〉 자녀응답자의 주관적 계층별 정서적 지원 수혜 비율

(단위: %)

구분	부모님은 내 기분을 존중한다	나는 부모님께 내 기분이나 감정을 편하게 이야기하거나 드러낼 수 있다	부모님은 대체로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부모님은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부모님은 내 관심사를 알고 함께 관심을 가져준다	자녀가 성인이어도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는 꼭 필요하다
전체	77.7	64.9	69.6	63.8	59.8	79.7
하	69.9	56.6	61.3	56.2	48.5	74.6
중	82.5	69.8	75.1	69.4	68.6	84.0
상	89.7	78.1	81.1	72.5	71.1	83.6

계속해서 청년응답자를 통해,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계층간의 큰 격차를 보여준다. 아버지와의 정서적 거리에 대해 상층은 65.7%가 가깝다고 응답했으나, 중층은 46.7%, 하층은 30.9%만이 가깝다고 응답했다. 5점척도 점수를 보면, 각각 3.8점, 3.3점, 2.8점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는 응답은 상층이 83.6%, 중층이 75.6%, 하층이 65.3%로 나타났다.

부모 응답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주관적 계층이 상층인 부모는 자녀가 친근하고 가깝다는 응답이 72.7%였으나, 중층은 65.7%, 하층은 57.9%로 조사되었다. 경제적으로 불리한 계층의 부모와 자녀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거리가 상대적으로 먼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주관적 계층별 아버지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

(단위:%, 점)

구분	① 서먹함, 불편함, 어색함	②	③	④	⑤ 매우 친근하다고 느낌	④+⑤	계	사례수 (명)	평균
전체	13.0	16.8	27.9	29.1	13.3	42.3	100.0	(900)	3.1
하	20.6	22.0	26.5	22.7	8.2	30.9	100.0	(392)	2.8
중	8.4	13.7	31.1	31.7	15.0	46.7	100.0	(389)	3.3
상	2.5	10.1	21.7	41.3	24.4	65.7	100.0	(119)	3.8

〈표 5-9〉 주관적 계층별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

(단위:%, 점)

구분	① 서먹함, 불편함, 어색함	②	③	④	⑤ 매우 친근하다고 느낌	④+⑤	계	사례수 (명)	평균
전체	4.3	4.7	18.9	38.9	33.2	72.1	100.0	(938)	3.9
하	7.0	6.2	21.4	35.4	29.9	65.3	100.0	(412)	3.8
중	2.3	2.7	19.5	41.3	34.2	75.5	100.0	(399)	4.0
상	1.6	5.5	9.3	42.7	40.9	83.6	100.0	(127)	4.2

〈표 5-10〉 주관적 계층별 자녀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

(단위:%, 점)

구분	① 서먹함, 불편함, 어색함	②	③	④	⑤ 매우 친근하다고 느낌	④+⑤	계	사례수 (명)	평균
전체	1.4	6.9	29.1	40.9	21.6	62.6	100.0	(1,600)	3.8
하	1.8	8.8	31.5	36.9	21.0	57.9	100.0	(782)	3.7
중	0.9	4.9	28.4	44.2	21.5	65.7	100.0	(665)	3.8
상	1.3	5.9	20.1	47.4	25.3	72.7	100.0	(154)	3.9

부모와 자녀사이의 정서적 의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도 의지하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조사했다. 청년 응답자의 65.8%가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한다고 응답했다. 상층은 77.3%, 중층은 74.7%, 하층은 54.5%만이 부모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모가 청년 응답자 자신에게 얼마나 의존하는가에서는 계층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상층 청년의 경우 부모가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한다는 비율이 70.3%이고 중층은 그보다 약간 높은 70.5%인데, 하층도 65.3%의 청년이 부모가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한다고 응답했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청년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68.1%)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부모에게 의지한다고(65.8%) 응답했다. 그러나 상층과 중간층은 그와 반대로 청년이 부모에게 더 많이 의지하며, 하층 청년이 부모가 자신에게 더 많이 의지한다고 응답하였다.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 관계에서도 계층간 차이는 뚜렷하다. 주관적 계층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거리가 가깝고 부모가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응답결과를 보면 하층 청년들도 절반 이상이 부모와의 정서적 관계가 가깝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위계층 청년들은 부모와 어색하거나 서먹하고, 부모에게 자신의 정서적 상황을 털어 놓고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다른 계층의 청년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제3절 기대와 전망의 계층화

1. 부모지원의 상대적 수준

지금까지 경험율을 통해 부모의 지원 경험을 살펴보았다면, 다음에서는 부모 지원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청년의 인식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청년응답자에게 본인의 부모님이 주변의 (친구) 부모님들보다 더 많거나 적게 지원하였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를 살펴본다. 우선, 일상생활이나 학업, 진로, 취업 등에 대한 부모님의 상대적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의 35.4%는 다른 부모와 비슷하게 지원해주었다고 답하였고, 30.6%는 다른 부모보다 더 적게 지원했다고 답하였으며, 24.6%는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답하였다.

〈표 5-11〉 주변 지원 수준 대비 본인 부모님의 지원 수준: 일상적 관여와 조언

(단위 : %)

구분	다른부모들보다 더 적게	다른 부모들과 비슷하게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이	모르겠음	계	사례수 (명)
청년	30.6	35.4	24.6	9.4	100.0	(1,000)
성별						
남	23.6	38.8	28.1	9.5	100.0	(522)
여	38.2	31.8	20.8	9.3	100.0	(478)
연령						
19~24세	25.7	36.1	29.5	8.8	100.0	(315)
25~29세	31.2	34.1	24.8	9.9	100.0	(336)
30~34세	34.4	36.1	20.0	9.5	100.0	(349)
지역						
수도권	31.4	33.1	27.0	8.6	100.0	(559)
비수도권	29.6	38.4	21.6	10.4	100.0	(44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23.8	37.9	29.2	9.1	100.0	(628)
비동거	41.9	31.2	16.9	10.0	100.0	(372)

다음으로 부모님과 주변 지인 부모님의 정서적 지원수준을 비교한 결과, 응답자의 37.5%는 다른 부모와 비슷하다고 답하였다. 특히, 25~29세의 40.8%가 다른 부모님 및 지인 부모님과 정서적 지원 수준이 비슷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35.2%였다. 특히, 남성(40.1%)과 19~24세(42.8%)는 더 많이 지원해주었다고 보았다. 전체 응답자의 19.4%는 본인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들보다 더 적게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여성(24.3%)과 30~34세 청년(37.5%) 그리고 부모와 비동거하는 청년(26.6%)에서 상대적으로 주변 지인 부모님보다 본인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인 지원과 지지가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고 보았다.

〈표 5-12〉 주변 지원 수준 대비 본인 부모님의 지원 수준: 정서적 지원

(단위 : %)

구분	다른부모들보다 더 적게	다른 부모들과 비슷하게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이	모르겠음	계	사례수 (명)
청년	19.4	37.5	35.2	7.8	100.0	(1,000)
성별						
남	15.0	37.8	40.1	7.0	100.0	(522)
여	24.3	37.1	29.9	8.7	100.0	(478)
연령						
19~24세	16.4	34.0	42.8	6.9	100.0	(315)
25~29세	17.8	40.8	30.9	10.5	100.0	(336)
30~34세	23.8	37.5	32.6	6.1	100.0	(349)
지역						
수도권	19.5	35.6	38.4	6.4	100.0	(559)
비수도권	19.3	39.9	31.2	9.6	100.0	(44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5.2	37.3	39.6	7.9	100.0	(628)
비동거	26.6	37.9	27.9	7.6	100.0	(372)

다음으로 부모님과 주변 지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응답자의 40.3%는 다른 부모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받았다고 하였다. 30.7%는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답하였다. 특히, 남성(36.4%)과 19~24세(37.1%)는 더 많이 지원해 주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21.6%는 본인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다른 부모들보다 적었다고 보았고, 특히, 부모와 동거하지 않은 청년들(27.7%)이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았다.

〈표 5-13〉 주변 지원 수준 대비 본인 부모님의 지원 수준: 경제적 지원

(단위 : %)

구분	다른부모들보다 더 적게	다른 부모들과 비슷하게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이	모르겠음	계	사례수 (명)
청년	21.6	40.3	30.7	7.5	100.0	(1,000)
성별						
남	17.3	39.1	36.4	7.2	100.0	(522)
여	26.2	41.6	24.4	7.8	100.0	(478)
연령						
19~24세	18.3	38.1	37.1	6.5	100.0	(315)
25~29세	21.3	41.5	28.5	8.7	100.0	(336)
30~34세	24.7	41.2	26.9	7.2	100.0	(349)
지역						
수도권	22.1	39.3	32.4	6.2	100.0	(559)
비수도권	20.9	41.6	28.5	9.0	100.0	(44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7.9	40.8	34.3	7.0	100.0	(628)
비동거	27.7	39.5	24.5	8.3	100.0	(372)

다음으로 부모님과 주변 지인 부모님의 전반적인 지원 수준을 비교해 본 결과, 응답자의 42.2%는 다른 부모와 비슷하게 지원해 주었다고 답하였다. 32%는 다른 부모님들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답하였다. 18.2%는 본인의 부모님이 다른 부모들보다 더 적은 지원을 받았다고 답하였다.

〈표 5-14〉 주변 지원 수준 대비 본인 부모님의 지원 수준: 전반적 지원

(단위 : %)

구분	다른부모들보다 더 적게	다른 부모들과 비슷하게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이	모르겠음	계	사례수 (명)
청년	18.2	42.2	32.0	7.7	100.0	(1,000)
성별						
남	14.3	39.7	39.8	6.3	100.0	(522)
여	22.4	44.9	23.4	9.2	100.0	(478)
연령						
19~24세	12.9	43.1	37.4	6.5	100.0	(315)
25~29세	18.7	42.4	30.3	8.6	100.0	(336)
30~34세	22.4	41.2	28.7	7.8	100.0	(349)
지역						
수도권	17.8	40.2	35.0	7.0	100.0	(559)
비수도권	18.6	44.7	28.0	8.6	100.0	(441)
부모 동거 여부						
부모 동거	14.7	40.5	36.9	7.9	100.0	(628)
비동거	24.0	45.1	23.7	7.3	100.0	(372)

2. 상대적 부모지원 수준 인식과 성인되기 전망의 관계

부모의 상대적 지원 수준에 대한 청년의 평가가 어른되기에 요구되는 자질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는 1)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 정립, 2) 경제적 자립능력, 3) 원하는 일을 (발견하고) 이루는 일, 4) 부모에게 어른으로 인정받음, 5) 타인으로부터 능력있다고 인정받음의 5가지 차원으로 어른되기의 자질과 성취를 측정하였다. 각 차원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차원에 접근하거나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한다.

부모 지원의 상대적 수준을 ‘남보다 적은 지원’, ‘남과 비슷한 지원’, ‘남보다 많은 지원’ 등 3개로 범주화하였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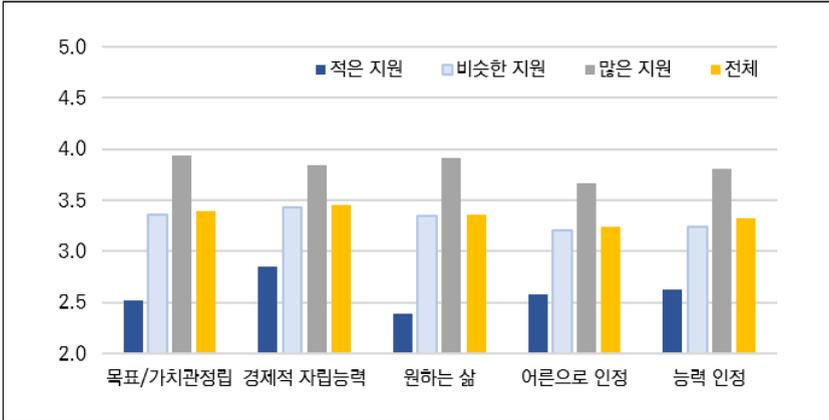
받았다고 인지하는 청년들은 그러한 부모지원이 5가지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특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과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부모의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경제적 자립능력을 갖추거나 어른으로 인정받는 일, 타인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는 일 등 사회적 관계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영역에 대한 점수는 다른 지원수준을 가진 청년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었지만, 타 영역의 점수보다는 낮았다.

반대로 부모의 지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그러한 지원수준이 자신의 성장과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응답했다. 모든 영역에서 부모 지원의 영향에 대해 3점(보통)보다 낮은 점수를 줬는데 이는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르면 경제적 자립능력에 대해서는 비교적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데 부모의 부족한 지원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청년들이 부모의 지원 수준에 대해 비교적 민감한 편이라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상대적 유리함과 불리함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 청년들은 부모의 더 많은 지원이 물질적 영역과 비물질적 영역 모두에 걸쳐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의 더 적은 지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림 5-3] 부모의 지원수준과 어른되기의 긍정영향 점수

(단위: 점)



주: 5점 척도로 측정됨. 1점~3점 미만: 부정 영향, 3점: 보통, 3점 이상~5점: 긍정 영향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제 6 장 결론

제1절 연구의 결론

현재 청년들은 대체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등 도구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서적인 지원과 일상적/비일상적 관리 또는 관여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도 청년기 자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강하고 이처럼 강한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도구적 지원과 일상적인 관여, 정서적 지원 등을 실천하며, 자녀의 진학, 취업, 독립, 결혼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상적으로 19~34세 청년은 (지원 항목에 따라 연령별 차이가 있지만) 일상적 생활유지와 미래의 자립을 위한 준비와 의사결정 등에 걸쳐 부모의 지원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 연구는 부모의 지원 동기, 자녀의 '부모지원' 필요성 인식 및 요구, 부모의 관여와 조언에 대한 자녀의 수용 등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여 초기 성인기 부모지원에 수반된 세대관계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성격이 부각된다. 첫째,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독립적인 성인이행 과업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는 부모와 자녀 양측의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청년 자녀는 부모의 지원이 자신이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고 원하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가치있는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 역시 청년 자녀에 대한 지원이 불가피하고 그것이 부모세대가 공감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상황인식을 자녀세대가

공유한 결과, 즉 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상호적 인식이 초기 성인기에 대한 세대간 연대 또는 부모지원 강도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전통적인 가족 동학에서 부모가 피부양자이면서 의존적인 자녀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주도권을 가지고 일방향적으로 소통하는 모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과 지원 방식과도 차이가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성인자녀가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에 내포된 갈등과 긴장을 강조해왔으며, 그런 점에서 다소 예외적이거나 임시적인 현상으로 평가해왔다(강유진, 2018; 이선이, 김현주, 이여봉, 2015). 또는 전통적인 가족주의나 한국적 세대관계, 희생적, 이타주의적 모성을 중심으로 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을 해석해왔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라는 생애단계의 제도적 환경과 그에 포함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세대간 연대라는 실천을 설명하는 핵심자원이 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최선영 외, 2023)에 기초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의 현실 인식에 대한 조사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실천을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초기 성인기 부모지원 실천은 세대관계 측면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모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초기 성인기 부모-자녀 관계는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가치관과 실제 부모지원에 대한 기대, 욕구, 실천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중화된 상태'에 놓여 있다. 부모와 성인 자녀는 모두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자립적 관계로 인식하거나 적어도 그것이 규범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 자녀는 대체로 부모의 지원(즉 자녀의 의존)이 자신의 성장, 성취, 심지어는 자율적 삶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과 긴 기간 동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부모세대에서도 확인된다. 부모세대는 자녀에 대한 지원 동기를 자녀의 독립과 자립을 후원하는

것으로 삼으면서도, 자녀의 성취(자립의 성공여부)에 대한 책임이 부모 자신에게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약 67%에 이르는 등 부모지원이 초기 성인기 자녀에게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지원과 관여는 지속적인 상호의존적 관계가 이상적인 세대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의 지원이 자녀의 자립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부모의 초기 성인기 자녀 지원은 자립의 기반을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형태이지만, 그것을 통해 자녀와 부모의 상호 자립이 가능한 관계의 기반이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규범과 실천이 이중화된 관계는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 규범과 불일치하는 실천을 지속하는 이유로서 현실적인 필요가 강조된다면 부모의 지원은 초기 성인기를 넘어 더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모의 지원 역량은 부모의 사회적 생애주기에 따라 제한될 것이므로 무한정 지속될 수 없으며, 상호자립성이 강조될수록 부모의 자녀 지원이 지속되는 기간은 짧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초기 성인기 부모와 자녀 사이의 지원관계와 세대간의 정서적 관계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구적 지원을 위해 둘 사이의 정서적 유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가족은 정서적 유대관계가 취약하고 도구적 수준에서만 연대하는 가족으로 특징지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부모 지원에서 정서적 유대는 밀접한 도구적 지원과 일상적 관여/조언 등의 중요한 기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가까움은 청년자녀가 부모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부모가 필요성을 인식하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자녀보다 부모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

의 밀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의 5장에서는 사회불평등의 관점에서 초기 성인기 부모지원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주관적 계층지위에 따라, 부모가 청년기 자녀를 지원하는 정도는 큰 차이가 있었다. 재정적 지원의 격차가 가장 중요한 격차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외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부모의 조연과 관심, 그리고 정서적 지원 면에서도 계층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하위계층 청년들은 부모에게 지원을 덜 요청하였고, 실제로 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 부모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목표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을 받는 것은 원하는 대로 사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대적 인식은 부모의 지원에 수반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공정하게 평가하기보다, 부모 지원이 절대적으로 가치있고 이로운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은 객관적인 불평등과 주관적인 불평등 인식의 괴리에 대해서도 합의하는 바가 있다. 앞서 말한 부모의 지원에 대한 인식이 이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험보다 부모의 '상대적' 지원에 대한 인식이 더 강조될 경우, 부모의 지원 자체가 도덕적인 선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모의 계층지위가 높을수록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은 것은 초기 성인기 자녀에 대한 지원이 빈곤이나 지위하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 기능이 아니라 이행의 지렛대(디딤돌)과 같이 자녀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초기 성인기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계층적 특권을 반영하는 경향은 성인 됨의 일반적 의미를 바꾸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지원이 노동시장 진입 실패, 소득 상실, 결혼, 출산, 이혼 등 가족

구성 변화 등 실제 지위하락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망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있는 집단이 특권을 강화하거나 우월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면, 지원 자체가 특권 내지는 규범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사회조사에서는 성인 됨의 기준에서 부모로부터의 자립을 포함하지 않는 경향도 발견되고 있다.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고 부모와 밀접한 정서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미성숙이나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성인 됨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인식되는 것이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년정책, 아동·청소년 정책 등이 대상자의 연령을 규정하기 위해 검토하는 자립과 의존 등의 범주에 대해 몇 가지 사실을 시사한다. 첫째, 초기 성인기에 대한 부모의 다차원적인 지원 사실은 초기 성인기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음을 실증한다. 둘째, 이러한 지원 필요성을 생물학적, 정신적 성숙정도에 대한 판단에서 구할 수는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부모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맥락은 자녀가 덜 자랐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조건에서 다음 생애국면(여기에서는 자립적인 성인)으로 이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정서적으로 가까운 상태에 있는 부모가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여 ‘아동, 청소년, 청년 등’의 사회적 욕구를 재정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적 조건과 위험은 개인들 사이에 차별적으로 분포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의 필터를 거쳐 인식되고 있다. 초기 성인기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널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원이 필수적인가는 논쟁적이다. 재정적인 여력이 높으며 자녀의 상

대적으로 더 우월한 지위획득을 열망하는 부모들에게서 ‘필수적’ 지원과 ‘과도한’ 지원의 경계를 위한 참조점을 얻기는 어렵다. 즉 무엇을 사회적 표준으로 삼고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의 논의에서, 현재 많은 중산층 부모들이 초기 성인기 자녀에게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무엇이 필수적인 지원인가를 선택하는 기준은 그 외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사적인 이자 관계 안에서 얼마나 독립적인가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청년기는 사회적 산물이고 청년세대가 필요로 하는 지원의 종류와 규모 역시 사회적 요구에 반응하여 만들어진다. 청년기를 정부 사회정책의 적극적인 대상으로 포함하고, 청년기의 복합적인 성격에 부합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부모-자녀 관계에 정부가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게 부과된 ‘초기 성인기 지원 책임’을 국가가 나누어 갖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과도한 경쟁과 개인(가족)책임의 문화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계층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초기 성인기에 대한 사적 가족의 영향력을 일반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러한 지향이 부재한 채로, 일부 저소득 취약 청년에 선별적으로 지원을 보완하는 것으로는 격차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성인이행의 과업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영역에서는 사적 가족의 영향력을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와 같이 취약청년에 초점을 맞춘 청년복지 정책은 계층간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전혀 기여할 수 없다.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발표되고 개선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년 복지정책은 여전히 선별성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일부 선택적인 ‘취약’ 청년에 대한 지원이 청년

기 소득 욕구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는 어렵다. 가족돌봄, 고립은둔, 자립지원 등에 해당되는 청년은 전체 청년층 중에서 더 두터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이외 절대 다수의 청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여전히 공백상태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 19~34세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에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는 정책의 불가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청년의 소득을 지원하거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계층적 지위가 고려되어야 하며, 자칫 역진적인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자신의 소득/재산과 더불어 부모의 재산/소득을 고려하여 계층지위를 판별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층에 따라 부모에 대한 의존의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현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청년들 내부의 격차를 감소하는 데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위계층은 자녀의 청년기 내내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최소한도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독립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청년지원 정책 대상자 선정을 살펴보면, 부모의 재산이나 자산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대구시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배우자 및 가족의 소득 및 자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본인과 부모 모두의 자산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 대상이 되기도 한다(한국토지주택공사, 2024). 뿐만 아니라, 국가 장학금의 경우에 부모의 소득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부모님이 이혼을 했거나 또는 서류상으로는 동거 중이라도 따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의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잡혀서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장혜승, 2022.5.17). 즉, 서류상 가족은 있지만 여러 사정상 실질적으로 독립해 사는 청년들은 국가장학금 제도의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친 개념인데, 여기에서 부모의 실업급여를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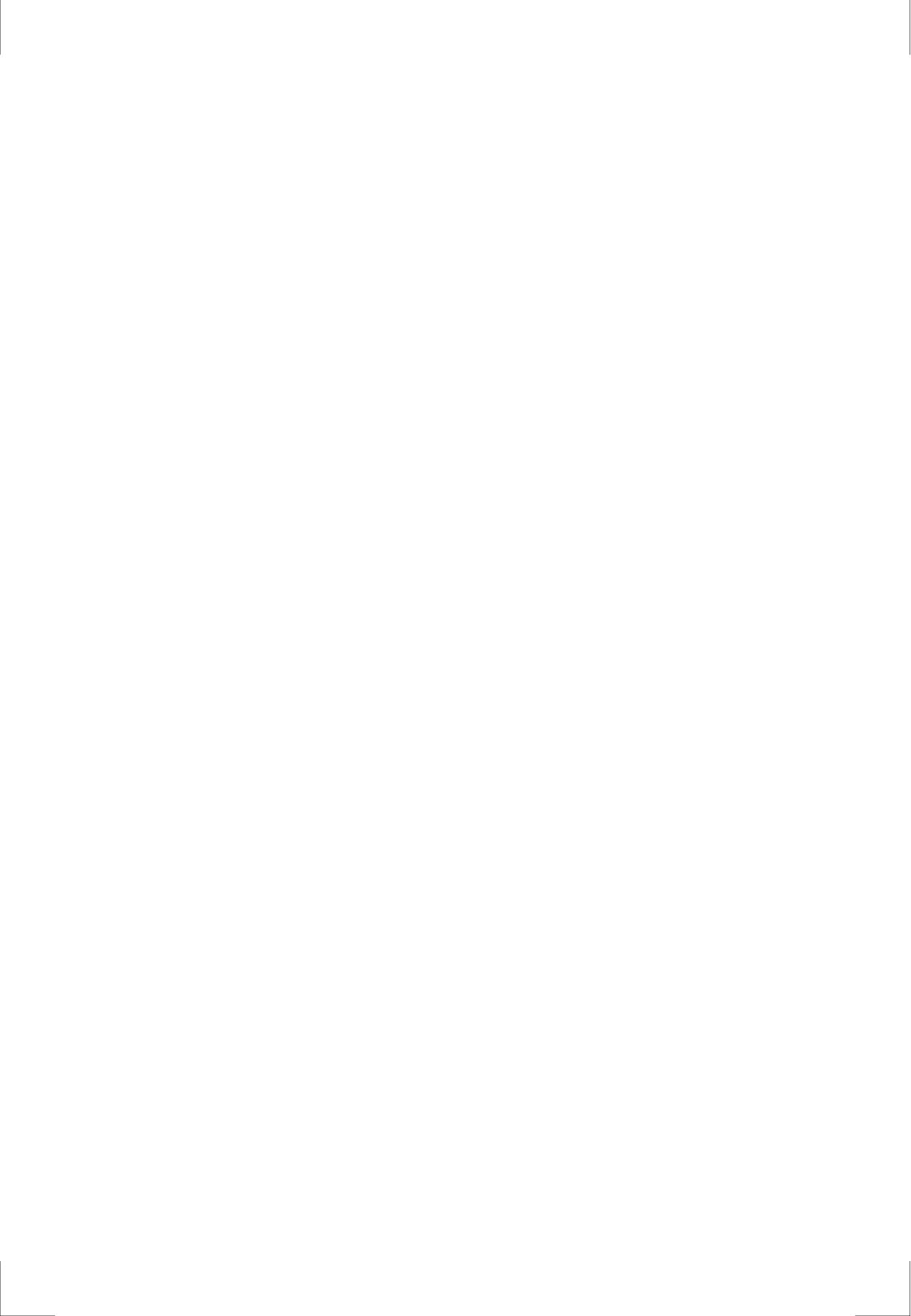
산하거나 갑작스런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현금성 자원이 없어 등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허점들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이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중요한 사회적 욕구 중 비물질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를 강조하였다. 실제 부모의 지원 영역 중에서도 경제적 지원 못지 않게 정서적 지원과 생애과정 의사결정에 적절한 조언과 관여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청년정책이 일자리, 주거 등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청년의 정서적 지원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부족하다. 물론,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서는 청년 마음 건강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항목 확대할 것을 발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4.3.29., p.26). 이처럼 마음 돌봄도 중요하지만, 청년 시기는 여러 생애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과도기 단계로서, 취업, 진로, 가족 형성, 미래 등 다양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청년 정책 상에는 채용 상담,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자립준비청년의 맞춤형 주거 상담, 고졸 청년 진로 상담 등 매우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프로그램만이 존재한다. 이를 통합하여 일상 생활에서 편히 여러 고민과 문제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의 이행을 지원하는 여러 정책프로그램들이 통합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성인으로 이행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행(직업적 이행), 가족으로부터 독립적 생활(주거지 이행)과 원가족에서 새 가족 형성(가구 이행)을 수반한다(Galland, 1984, 1991). 이는 어느 한 영역의 정책 만으로 구현되기 어려우며, 서로 다른 영역의 정책이 적

절하게 조율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청년 정책은 영역별 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초기 성인기는 사적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 미시적인 가족관계 차원에서 부모의 자녀 지원은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을 주거나 받는 주체들에게 필요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자족성이 초기 성인기에 대한 부모지원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미시적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초기 성인기의 과업이 부모에 대한 의존을 극복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 양쪽 주체들 모두가 이러한 자립성을 규범적인 이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는 초기 성인기는 모순적일 수밖에 없으며, 부모의 지원을 떠받치는 사적인 자원도 무한히 공급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적인 지원체계가 갖는 불평등성에 대한 인식 역시 중요하며, 불평등 심화를 억제하고 사회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에서도 이러한 초기 성인기 부모 지원의 구체적 실태와 함의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내 문헌]

- 강유진. (2016). 부모동거 미혼성인자녀의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관련요인: 세대 간 지원교환, 가족부양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8565(3), 387-403.
- 강현선. (2018). 성인기 자녀의 부모의존 동거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지**, 29(3), 9-52.
- 고용24. (2024). **고용정책-국민내일배움카드**.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51&systClId=SC00000004>
- 관계부처합동. (2024. 3. 29.).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관계부처합동.
- 교육기술과학부. (2012).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전략**. 교육기술과학부.
- 교육부. (2023.9.1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3**」 결과 발표[보도자료]. <https://if-blog.tistory.com/14465>
- 교육부. (2024. 9.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4 결과 발표**[보도자료].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96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 국토교통부. (2024). **청년주택드림청약**.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 기획재정부. (2019.7.17.). 「**제20차 경제활력대책회의의 겸 2019년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보도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29092&menuNo=4010100
- 김규식. (2021). 청년 정책, 우리의 시선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있는 것은 아닐까?, **한국지역개발학회 웹진**, 28. <http://www.krda.org/newsletter/no28/>

sub2-2.html

- 김기현. (2017). 청년 정책의 현황 진단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017(2), 54-68.
- 김신영, 김용련. (2014). 대학의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분석 연구. **교육평가연구**, 27(3), 783-807.
- 김정은, 오영교. (2022). 대학생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유형과 관련요인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022(1), 1-40.
- 김정인. (2018). **대학과 권력: 한국 대학 100년의 역사**. 휴머니스트.
-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준. (2020). '교육성공신화'의 역설: 기만당한 세대들의 기원에 대하여. **경제와사회**, 125, 124-160.
- 김혜지, 이재림. (2021). 35세 이상 성인자녀와 부모의 동거: 세대관계 특성과 생활 만족도의 관련성. **Human Ecology Research(HER)**, 59(3), 369-386.
- 남춘호, 남궁명희. (2012). 생애과정의 탈표준화 경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 성인 기이행의 구조변동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91-128.
- 뉴스스. (2024.9.10.). **대졸 청년 OECD 1위 한국... '노는 대졸 청년' 비율도 최상위권**.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0_0002883466
- 박미희, 홍백의. (201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과 그 결정요인. **사회복지정책**, 41(4), 21-49.
- 박중서, 최선영, 김유경, 변수정, 조성호, 김주현, 노현주, 염아림. (2020).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기열. (2023. 8. 1.). 무자녀 솔로들도 아파트 준다? 39세 이하 청년 특별공급 주목.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7301942i>
- 성미애, 이재림, 최연실, 최새은 (2017). 아버지 부재 비혼 딸과 어머니의 동거 경험: 일방적 의존과 상호적 의존의 경계에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3), 81-98.

- 송인주. (2023). 애착육아의 역사적 연원: 20세기 미국 육아법의 아동중심성 변천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140, 165-223.
- 송혜미. (2024.8.27.). 원거리 대학생에 월 20만원 주거비 지원, 기준은? 2025년 예산안 Q&A.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0827/126712494/1#:~:text=%E2%80%95%EC%8B%A0%EC%84%A4%EB%90%98%EB%8A%94%20%EC%A3%BC%EA%B1%B0%EC%95%88%EC%A0%95%EC%9E%A5%ED%95%99%EA%B8%88,%EC%9D%84%20%EB%B0%9B%EC%9D%84%20%EC%88%98%20%EC%9E%88%EA%B2%8C%20%EB%90%9C%EB%8B%A4>.
- 윤혜준, 황성수, 민주홍, 백원영, 이지은, 손희전, 김혜정, 윤종혁. (2020). **한국 교육고용패널조사II(2020)**.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병희, 장지연, 윤자영, 성재민, 안선영. (2010).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 우리나라의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선이, 김현주, 이여봉. (2015). 성인기 이행과정의 부모자녀관계 유형: 군집분석. **가족과 문화**, 27(3), 191-223.
- 이영대, 윤영한. (2007).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활성화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이정봉. (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철선, 하은솔, 이상림. (2020). **청년정책 영역별 기초방향 수립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경섭, 진미정, 성미애, 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합의: 소득보장, 교육, 돌봄 영역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7(3), 1-38.
- 장혜승. (2022.5.17.). 5조원 넘게 쏟아부은 청년정책, 보편성 부족·정책 효과도 '의문'.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28233>
- 정세정, 김형용, 송나경, 최권호, 최보라, 강예은, 최준영. (2019). **생애과정 관점의 수요자 중심 청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재현, 정연순, 송수중, 김태환, 김기현, 전예원, 이해나, 양찬주. (2021). **청년 고용정책 시각지대 발굴 및 정책 제언**. 한국고용정보원.
-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2024).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https://earlyuniv.kr/>
- 지표누리. (2023). **취학률**.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5>
- 최선영, 이원진, 권영지, 윤태영. (2023). **성인이행기의 생애과정 위험과 가족의 대응실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선영, 이지혜, 윤태영. (2022). **가족형성과 사회불평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2023. 11. 27).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보도자료]**.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200&bid=203&act=view&list_no=428215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 **대학알리미-평균등록금**. <https://www.academinfo.go.kr/main/main0680/doInIt.do?programId=main0760>

[외국 문헌]

- Billari, F. C., & Liefbroer, A. C. (2010). Towards a new pattern of transition to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5*(2-3), 59-75.
- Fingerman, K. L., Miller, L. M., Birdett, K. S., & Zarit, S. (2009). Giving to the good and the needy: Parental support of grow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1*, 1220 - 1233.
- Furstenberg, F. F. (2010). On a new schedule: Transitions to adulthood and family change. *Future of Children, 20*(1), 67-87.
- Galland, O. (1984). *Les Jeunes*. Editions La Decouverte.
- Galland, O. (1991). *Sociologie de la Jeunesse: L'Entree dans la Vie*. Armand Colin
- Kins, E., Beyers, W., Soenens, B., & Vansteenkiste, M. (2009). Patterns of home leaving and subjective well-being in emerging adulthood:

- The role of motivational processes and parental autonomy support. *Developmental Psychology*, 45(5), 1416-1429. <https://doi.org/10.1037/1288-0199.45.5.1416>
- Lareau, A. (2011). *Unequal childhoods: Class, race, and family lif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zurik, K., Knudson, S., & Tanaka, Y. (2020). Stuck in the nest? A review of the literature on coresidence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Marriage & Family Review*, 56(6), 491-512.
- Pew Research Center. (2023a). *Survey of parents with children ages 18-34*. https://www.pewresearch.org/social-trends/wp-content/uploads/sites/3/2024/01/ST_2024.01.25._Parents-Young-Adults_Topline-Parents.pdf
- Pew Research Center. (2023b). *Survey of adults ages 18-34*. https://www.pewresearch.org/social-trends/wp-content/uploads/sites/3/2024/01/ST_2024.01.25_Parents-Young-Adults_Topline-Parents.pdf
- Pew Research Center. (2024). *Parents, Young Adult Children and the Transition to Adulthood*. <https://www.pewresearch.org/social-trends/2024/01/25/parents-young-adult-children-and-the-transition-to-adulthood/>
- Swartz, T. T. (2009). Intergenerational Family Relations in Adulthood: Patterns, Variations, and Implications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5(1), 191-212.
- Swartz, T. T., Kim, M., Uno, M., Mortimer, J., & O'Brien, K. B. (2011). Safety Nets and Scaffolds: Parental Suppor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3(2), 414-429.

[데이터 세트]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 마이크로데이터.



[부록 1] 부모 대상 조사표

초기 성인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조사 : 부모 대상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입니다.

저희 한국리서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만19~34세 청년과 청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초기 성인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청년기 자녀와 부모의 경험에 기반을 둔 정책 개발과 학술연구의 자료로 학술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친절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정책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기관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최선영 부연구위원
- 조사수행기관 :  **Hankook Research** 조사담당자 : 000 수석

A. 기본 사항

※ 귀하와 자녀의 신상에 관한 기본 정보를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A1. 귀하의 출생년도, 월은 언제입니까?

()년 ()월

A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A3.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A4.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배우자 있음(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② 미혼

③ 사별

④ 이혼

A5. 귀하에게 자녀가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 설문중단

A5-1. 귀하의 자녀 수는 총 몇 명입니까?

()명

[로직: A5-1의 응답 자녀수 만큼 보기 제시]

A6. 귀하의 자녀에 대해 성별, 생년월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앞선 응답하신 [제시: A5-1]명의 자녀를 나이순으로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	성별	출생연월
1) 첫째 자녀	① 남성 ② 여성	()년 ()월
2) 둘째 자녀	① 남성 ② 여성	()년 ()월
3) 셋째 자녀	① 남성 ② 여성	()년 ()월
4) 넷째 자녀	① 남성 ② 여성	()년 ()월
5) 다섯째 자녀	① 남성 ② 여성	()년 ()월

→ 만19~34세(2024년 8월 31일 기준) 자녀가 없는 경우 조사 종료

[로직: A6에서 응답한 자녀 중, 만19~34세 자녀만 제시]

A6-1. 귀하의 청년 자녀에 대해 학력, 취업 여부, 결혼 여부, 출산 여부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자녀	최종 학교	수학 구분	취업 여부	결혼 여부	자녀 유무
1) 첫째 자녀 (제시:A6_1의 출생연도)년생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 ② 아니요
2) 둘째 자녀 (제시:A6_2의 출생연도)년생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 ② 아니요
3) 셋째 자녀 (제시:A6_3의 출생연도)년생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 ② 아니요
4) 넷째 자녀 (제시:A6_4의 출생연도)년생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 ② 아니요
5) 다섯째 자녀 (제시:A6_5의 출생연도)년생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 ② 아니요	① 네 ② 아니요

P. 청년자녀와의 관계

[※ 만19~34세 청년 자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청년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임의의 자녀 1명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로직: A6에서 응답한 만19~34세 자녀 중(A6-1에서 제시한 자녀 중), 1명 랜덤 제시]

SP1. 다음 문항부터는 아래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자녀를 확인하셨다면 해당 자녀 보기를 선택하여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주세요.

응답 기준 자녀	n째(랜덤) 자녀 (제시:A6_n의 출생연도)년생, [제시:A6_n의 성별]
-------------	-----------------------------------------------

▶ 관여와 조언 ◀

[카테고리(P1-1~P1-3): 다음 보기는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험한 것을 응답해 주세요.]

P1-1. 다음의 상황에 대해 귀하의 자녀는 부모의 의견을 묻거나 조언을 구하는 편이었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금전 문제에 대해(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				
2)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 지에 대해(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3) 외모·체형·옷차림 등의 문제에 대해				
4)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관련 문제에 대해				
5)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6) 대인 관계(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7) 정신적 문제에 대해(불안, 우울, 무기력 등)				

P1-2. 다음의 상황에 대해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셨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금전 문제에 대해(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				
2)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 지에 대해(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3) 외모·체형·옷차림 등의 문제에 대해				
4)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관련 문제에 대해				
5)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6) 대인 관계(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7) 정신적 문제에 대해(불안, 우울, 무기력 등)				

[P1-2에서 3,4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P1-3. 다음의 상황에서 귀하의 관여와 조언을 귀하의 자녀는 잘 수용해주었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금전 문제에 대해(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				
2)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 지에 대해(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3) 외모·체형·옷차림 등의 문제에 대해				
4)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관련 문제에 대해				
5)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6) 대인 관계(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7) 정신적 문제에 대해(불안, 우울, 무기력 등)				

[카테고리(P2-1~P4-3): 다음 보기는 청년 자녀가 학교진학이나 취직 과정에서 준비 하거나 결정해야 할 일들입니다. 귀하가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험한 것을 응답해 주세요.]

P2-1. 다음의 상황에 대해 귀하의 자녀는 부모의 의견을 묻거나 조언을 구하는 편이었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대학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2) 대학입시 준비 방법(내신, 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등)에 대해				
3)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에 대해				

P2-2. 다음의 상황에 대해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셨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대학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2) 대학입시 준비 방법(내신, 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등)에 대해				
3)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에 대해				

202 초기 성인기의 부모-자녀 관계와 사회계층적 차이

[P2-2에서 3,4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P2-3. 다음의 상황에서 귀하의 관여와 조언을 귀하의 자녀는 잘 수용해주었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대학에 가야 하는 지에 대해				
2) 대학입시 준비 방법(내신, 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등)에 대해				
3)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에 대해				

[로직: SP1에서 선택한 자녀의 최종학교(A6-1)가 5,6,7,8인 경우만]

P3-1. 다음의 상황에 대해 귀하의 자녀는 부모의 의견을 묻거나 조언을 구하는 편이었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수강과목을 선택하거나 학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2) 외국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해외교환학생 등)에 대해				
3)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4) (대학 재학 중)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입사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로직: SP1에서 선택한 자녀의 최종학교(A6-1)가 5,6,7,8인 경우만]

P3-2. 다음의 항목에 대해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하셨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개입이나 조언 없이, 경제적인 비용만 대주신 경우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② 그렇지 않다'에 응답해 주세요.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수강과목을 선택하거나 학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2) 외국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해외교환학생 등)에 대해				
3)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4) (대학 재학 중)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입사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P3-2에서 3,4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P3-3. 다음의 항목에서 귀하의 관여와 조언을 귀하의 자녀는 잘 수용해주었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수강과목을 선택하거나 학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2) 외국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해외교환학생 등)에 대해				
3)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4) (대학 재학 중)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입사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로직: SP1에서 선택한 자녀의 취업여부(A6-1)가 '① 네'인 경우, P4=1 자동 코딩]

P4. [제시: SP1]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는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① 있다 → P4-1

② 없다 → P5

P4-1. 다음의 상황에 대해 귀하의 자녀는 부모의 의견을 묻거나 조언을 구하는 편이었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 권유				
2) 채용일정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3) 채용시험(면접, 자기소개서 등) 도움				
4)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소개				
5) 자기계발(외국어능력, 자격증, 대학원, 인턴십) 조언 또는 권유				
6) 취업관련 자격증, 입사시험 준비 등 (전문자격증취득준비나 공무원시험 등)				

P4-2. 다음의 상황에 대해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하셨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 권유				
2) 채용일정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3) 채용시험(면접, 자기소개서 등) 도움				
4)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소개				
5) 자기계발(외국어능력, 자격증, 대학원, 인턴십) 조언 또는 권유				
6) 취업관련 자격증, 입사시험 준비 등 (전문자격증취득준비나 공무원시험 등)				

[P4-2에서 3,4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P4-3. 다음의 상황에서 귀하의 관여와 조언을 귀하의 자녀는 잘 수용해주었습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 권유				
2) 채용일정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3) 채용시험(면접, 자기소개서 등) 도움				
4)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소개				
5) 자기계발(외국어능력, 자격증, 대학원, 인턴십) 조언 또는 권유				
6) 취업관련 자격증, 입사시험 준비 등 (전문자격증취득준비나 공무원시험 등)				

P5. 귀하가 과거 19~34세였을 때, 귀하의 부모님은 다음 보기 항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하셨습니까?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금전 문제에 대해(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				
2) 자산 관리에 대해(재테크, 저축 등)				
3) 진학에 대해(고교, 대학, 유학 등)				
4) 전공, 직업 선택에 대해				
5) 일자리나 경력에 대해(취업, 이직 등)				
6) 정신적 건강에 대해				
7) 신체적 건강에 대해				
8) 대인 관계에 대해(친구,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9)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 정서적 유대관계 ◀

※ 귀하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관계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서적 유대란 상대방의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우울, 무기력 등 다양한 감정상태에 관여하고 공유하며, 부정적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P6. 다음은 귀하와 [제사: SP1] 사이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보기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나는 자녀의 기분을 존중한다				
2) 자녀가 편하게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배려한다				
3) 가능하면 자녀의 기분에 맞춰주려고 노력한다				
4) 자녀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5) 자녀와 대화를 늘리기 위해 자녀의 관심사를 쫓거나 공부한다				
6) 자녀가 성인이어도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P7. 전반적으로, 귀하의 자녀는 귀하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 ②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
- ③ 때때로 의지한다
- ④ 많이 의지한다

[로직: A4=1인 경우만]

P7-1.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배우자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 ②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
- ③ 때때로 의지한다
- ④ 많이 의지한다

P7-2. 귀하는 귀하의 자녀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 ②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
- ③ 때때로 의지한다
- ④ 많이 의지한다

P8. 귀하는 평소 자녀와 가깝고 친하다고 느끼십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서먹함, 불편함, 어색함 등을 느낌	←	---	→	매우 친근하다고 느낌
①	②	③	④	⑤

P8-1. 귀하가 청년(19~34세)이었을 때 그 당시에 부모님과 가깝고 친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서먹함, 불편함, 어색함 등을 느꼈음	←	---	→	매우 친근하다고 느꼈음
①	②	③	④	⑤

▶ 청년자녀와의 동거 ◀

P9. 귀하는 [제시: SP1]와 같이 살고 있습니까?

① 네

② 아니요 → P12

P10. 귀하가 청년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다음 항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질문	매우 부정적인	약간 부정적인	보통인	약간 긍정적인	매우 긍정적인
	①	②	③	④	⑤
1) 나와 자녀의 관계에 000 영향을 준다					
2) 나의 경제적 상황에 000 영향을 준다					
3) 자녀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000 영향을 준다					
4)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 000 영향을 준다					

P11. 귀하가 청년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보기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세요. [제시: SP1]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①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여건이 안되어서
- ② (자녀가) 지출을 줄이고 자산을 모으도록 하기 위해
- ③ 자녀에게 가사(식사, 청소, 빨래 등) 도움을 주기 위해
- ④ 자녀의 소득 또는 돌봄이 필요해서
- ⑤ 한 가족이니까 가능한 한 오래 함께 지내고 싶어서
- ⑥ 기타 ()

▶ 경제적 지원 ◀

P12. 귀하의 [제시: SP1]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까?

전혀 독립하지 않음	←	---	→	완전히 독립함
①	②	③	④	⑤

P18. 다음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의견입니다. 아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응답해 주세요.

질 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1) 자녀의 대학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자녀가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자녀가 취업을 해도 부모가 능력이 있는 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P19. 귀하는 귀하의 자녀와 관련된 다음 항목에 대해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질문	있다	없다
	①	②
1) 주택임대나 구입 비용 지원		
2) 자녀의 결혼 자금 지원		
3) 손자녀의 교육비 지원		
4) 손자녀의 돌봄 지원		

▶ 부모 역할 인식 ◀

※ 다음은 귀하가 평소 갖고 있던 생각과 의견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P20. 귀하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에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별로 그렇지 않다
- ③ 대체로 그렇다
- ④ 매우 그렇다

P21. 귀하는 자신의 청년기와 비교하여 자녀의 청년기는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 ② 달라지지 않은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달라진 편이다
- ⑤ 많이 달라졌다

P22. 귀하는 자녀의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 ② 결혼하는 것이 좋다
- ③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결혼하지 않는 게 좀 더 낫다
- 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 ⑥ 모르겠다

P23. 귀하는 자녀의 출산(부모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접한 것으로 선택해 주세요.

- 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
- ② 아이가 있는 게 좋다
- ③ 아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 ④ 아이가 없는 게 좀 더 낫다
- ⑤ 아이를 갖지 말아야 한다
- ⑥ 모르겠다

P24. 다음 보기 중 자녀에게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이상적인 모습부터 순서대로 3개를 응답해 주세요(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
- ② 부모 자신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부모
- ③ 자녀와 여가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
- ④ 자녀의 교육, 취업, 결혼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부모
- ⑤ 자녀에게 충분한 경제적 자산을 물려주는 부모
- ⑥ 부모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

P25. 현재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성인이 된 자녀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부모가 자녀를 지원하는 관계
- ② 자녀가 부모를 지원하는 관계
- ③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독립적인 관계
- ④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

P26. 귀하의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지 않다
- ② 별로 좋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좋다
- ⑤ 매우 좋다

P27. 전반적으로 귀하는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다	←	--	--	보통	--	--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D.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D1.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그 학교를 이수하셨습니까?

1) 최종학교	2) 수학 구분
① 무학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교(2~3년제)	
⑥ 대학교(4년제)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로직: A4=1인 경우만]

D2. 귀하의 배우자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그 학교를 이수하셨습니까?

1) 최종학교	2) 수학 구분
① 무학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교(2~3년제)	
⑥ 대학교(4년제)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D3. 귀하의 직업(일)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① 농림어업 종사자
- ② 자영업자(상업,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 택시 운전 등)
- ③ 판매/영업/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 ④ 노무/기계조작/운송/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운전사, 선반, 목공 등)
- ⑤ 사무직(기업체 차장 이하, 5급 공무원 미만 등)
- ⑥ 경영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 ⑦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 ⑧ 전업주부 (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 → D4
- ⑨ 학생 (일하지 않고 학업 중) → D4
- ⑩ 다른 직업
- ⑪ 무직, 퇴직, 은퇴 (현재 일하지 않음) → D4

[로직: D3=2는 1번 보기 미제시]

D3-1. 귀하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임금근로자
-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D4
-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D4
- ④ 무급가족종사자 → D4

D3-2. 귀하는 현재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A4=2,3,4인 경우, 응답 후 D6으로 이동]

[로직: A4=1인 경우만]

D4. 배우자의 직업(일)으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① 농림어업 종사자
- ② 자영업자(상업, 종업원 9인 이하의 소규모 장사 및 개인 택시 운전 등)
- ③ 판매/영업/서비스직(상점 점원, 세일즈맨 등)
- ④ 노무/기계제작/운송/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운전사, 선반, 목공 등)
- ⑤ 사무직(기업체 차장 이하, 5급 공무원 미만 등)
- ⑥ 경영 관리직(5급 이상 공무원, 기업체 부장 이상 등)
- ⑦ 전문직(의사, 법조인, 교수, 언론인 등)
- ⑧ 전업주부(일하지 않고 가사에만 종사) → D5
- ⑨ 학생(일하지 않고 학업 중) → D5
- ⑩ 다른 직업
- ⑪ 무직, 퇴직, 은퇴(현재 일하지 않음) → D5

[로직: D4=2는 1번 보기 미제시]

D4-1. 배우자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임금근로자
-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D5
-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D5
- ④ 무급가족종사자 → D5

D4-2. 배우자는 현재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자동코딩 문항(A4=1인 경우만)//

D5. 귀하의 가구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외벌이 가구(본인이 소득활동)
- ② 외벌이 가구(배우자가 소득활동)
- ③ 맞벌이 가구
- ④ 부부 모두 경제활동 하지 않음(무직, 퇴직, 은퇴 등)

[로직: A4=2,3,4 경우 D6_2(배우자) 보기 미제시]

D6. 귀하의 월평균 세후 소득과 배우자의 월평균 세후 소득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모든 소득을 합하여 응답해 주세요)

- 1) 본인 : 약 () 만 원
- 2) 배우자 : 약 () 만 원

D7. 귀하 가구가 보유한 자산과 부채는 현금으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의 금액입니까?

※ 부동산 자산(주택, 건물 등), 금융자산(예금, 주식, 채권 등)으로 구분하여 응답해 주세요

① 부동산 자산	약 () 만 원
② 금융 자산	약 () 만 원
③ 총부채	약 () 만 원

D8. 한국사회에서 사회계층을 다음과 같이 하층(1)에서 상층(5)까지 5개 계층으로 구분할 때, 본인의 계층수준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 심층면접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다음의 설명문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귀하께서는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심층 면접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청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조사 방법 : 집단 면접
- ▷ 면담 일시 : 10월 1주~2주 중 하루 (추후 확정 시 참여 희망자에게 개별 전달 예정)
- ▷ 면담 소요 시간 : 1~2시간 내외
- ▷ 사례비 : 10만원
- ▷ 면담 내용 :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해, 관심 등
- ▷ 비고 : 집단 면접 형식으로 진행

① 있다

② 없다 → 설문중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심층 면담 관련 좌담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심층 면담과 관련하여 개별로 연락을 드릴 수 없어 참석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동의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름, 성별, 연령, 지역, 핸드폰번호	심층 면담 참여 관련 개별 안내	조사 후 3개월
※ 심층 면담 참여 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거부 시 심층 면담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심층면담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직접 안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① 동의

② 비동의 → 설문중단

DQ9. 귀하의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십시오.

① 성함: ()

② 연락처: () - () - ()

[부록 2] 자녀 대상 조사표

초기 성인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조사 : 청년(만19~34세) 대상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입니다.

저희 한국리서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만19~34세 청년과 청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초기 성인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청년기 자녀와 부모의 경험에 기반을 둔 정책 개발과 학술연구의 자료로 학술자료로 활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친절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들은 정책 연구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통계법 제33조 및 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기관 :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최선영 부연구위원
- 조사수행기관 :  **Hankook Research** 조사담당자 : 000 수석

A. 기본 사항

※ 귀하와 부모님의 신상에 관한 기본 정보를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A1. 귀하의 출생년도, 월은 언제입니까?

()년 ()월

A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A3. 현재 살고 계신 곳은 어느 지역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⑰ 세종

A4.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그 학교를 이수하셨습니까?

1) 최종학교	2) 수학 구분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교(2~3년제) ⑥ 대학교(4년제)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B. 부모 기본 사항

B1. 현재 귀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십니까?

① 두 분 모두 계심

② 아버지만 계심 → B2-1

③ 어머니만 계심 → B2-2

④ 두 분 모두 안계심 → 설문중단

[로직: B1=1인 경우만]

B2. 귀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두 분 모두와 함께 살고 있음
- ② 아버지만 함께 살고 있음
- ③ 어머니만 함께 살고 있음
- ④ 두 분 모두와 함께 살지 않음

[로직: 응답 후 C1로 이동]

[로직: B1=2인 경우만]

B2-1. 귀하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네
- ② 아니요

[로직: B1=3인 경우만]

B2-2. 귀하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 ① 네
- ② 아니요

C. 부모-자녀 관계

▶ 관여와 조언 ◀

[카테고리(C1-1~C1-3): 다음 보기는 청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귀하가 최근 3년 동안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것을 응답해주세요.]

C1-1. 귀하는 일상생활에서 다음 일에 대해 부모님의 관여나 조언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금전 문제에 대해(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				
2)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 지에 대해(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3) 외모·체형·옷차림 등의 문제에 대해				
4)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관련 문제에 대해				
5)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6) 대인 관계(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7) 정신적 문제에 대해(불안, 우울, 무기력 등)				

C1-2. 다음 일에 대해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주시는 편입니까?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금전 문제에 대해(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				
2)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 지에 대해(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3) 외모·체형·옷차림 등의 문제에 대해				
4)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관련 문제에 대해				
5)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6) 대인 관계(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7) 정신적 문제에 대해(불안, 우울, 무기력 등)				

[C1-2에서 3, 4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C1-3 (1-2 문항에서 3,4에 응답한 사람만 응답함) 부모님의 관여와 조언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질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금전 문제에 대해(학비, 부채, 전세 및 월세 자금 등)				
2)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 지에 대해(지출관리, 자산형성 등)				
3) 외모·체형·옷차림 등의 문제에 대해				
4) 건강관리, 일상적 생활습관 관련 문제에 대해				
5) 배우자나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6) 대인 관계(친구, 선후배, 직장 동료, 상사 등과의 관계)에 대해				
7) 정신적 문제에 대해(불안, 우울, 무기력 등)				

[카테고리(C2-1~C4-2): 다음 보기는 진학, 취업 준비 또는 취업 과정에서 준비하거나 결정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개입하셨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주신 적이 있다면, 귀하가 이를 받아들였는지와 상관없이 '그렇다(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해 주세요.]

C2-1.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부모님은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대학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2) 대학입시 준비 방법(내신, 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등)에 대해				
3)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에 대해				

[C2-1에서 3,4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C2-2. (C2-1에서 3, 4에 응답한 경우만) 부모님의 관여와 조언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대학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2) 대학입시 준비 방법(내신, 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등)에 대해				
3) 대학교, 학과, 전공 등 진로 선택에 대해				

[로직: 최종학교(A4)가 5, 6, 7, 8인 경우만]

C3-1. (대학에 진학한 사람만 응답) 대학에 재학 중일 때 다음의 사항에 대해 부모님은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 개입이나 조언 없이, 경제적인 비용만 대주신 경우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② 그렇지 않다'에 응답해 주세요.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수강과목을 선택하거나 학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2) 외국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해외교환학생 등)에 대해				
3)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4) (대학 재학 중)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입사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로직: 최종학교(A4)가 5,6,7,8인 경우만]

C3-2. (C2-3에서 3, 4에 응답한 경우만) 부모님의 관여와 조언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수강과목을 선택하거나 학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2) 외국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학원수강, 해외어학연수, 해외교환학생 등)에 대해				
3) 대외활동, 인턴십,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				
4) (대학 재학 중) 취업관련 자격증 취득, 입사시험 준비 방법에 대해				

C4.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르바이트는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① 있다 → C4-1

② 없다 → C5

C4-1. 귀하가 취업을 준비할 때(아르바이트는 제외함), 아래의 사항에 대해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개입하거나 조언을 해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 권유				
2) 채용일정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3) 채용시험(면접, 자기소개서 등) 도움				
4)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소개				
5) 자기계발(외국어능력, 자격증, 대학원, 인턴십) 조언 또는 권유				
6) 취업관련 자격증, 입사시험 준비 등 (전문자격증취득준비나 공무원시험 등)				

[C4-1에서 3,4(그렇다)에 응답한 항목만 제시]

C4-2. (C4-1에서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응답자의 경우) 부모님의 관여나 권유는 귀하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유망하거나 괜찮은) 직업 권유				
2) 채용일정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한 취업정보제공				
3) 채용시험(면접, 자기소개서 등) 도움				
4) 국민취업지원 제도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소개				
5) 자기계발(외국어능력, 자격증, 대학원, 인턴십) 조언 또는 권유				
6) 취업관련 자격증, 입사시험 준비 등 (전문자격증취득준비나 공무원시험 등)				

▶ 정서적 지지 ◀

※ 부모님이 귀하를 얼마나 정서적으로 지지하는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여기에서 정서적 지지란 상대방의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우울, 무기력 등 다양한 감정상태에 관여하고,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리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C5. 다음은 귀하와 부모님 사이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보기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 부모님은 내 기분을 존중한다				
2) 나는 부모님께 내 기분이나 감정을 편하게 이야기하거나 드러낼 수 있다				
3) 부모님은 대체로 내 기분을 좋게 하려고 노력한다				
4)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부모님은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5) 부모님은 내 관심사를 알고 함께 관심을 가져준다				
6) 자녀가 성인이어도 부모님의 정서적 지지는 꼭 필요하다				

C6. 전반적으로, 귀하는 부모님께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 ②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
- ③ 때때로 의지한다
- ④ 많이 의지한다

C6-1. 전반적으로,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에게 정서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까?

- ① 전혀 의지하지 않는다
- ②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
- ③ 때때로 의지한다
- ④ 많이 의지한다

[로작: B1=2인 경우만 응답]

C7-1. 귀하는 아버지¹와 가깝고 친하다고 느끼십니까?

서먹함, 불편함, 어려움 등을 느낌	←	---	→	매우 친근하다고 느낌
①	②	③	④	⑤

[로작: B1=3인 경우만 응답]

C7-2. 귀하는 어머니²와 가깝고 친하다고 느끼십니까?

서먹함, 불편함, 어려움 등을 느낌	←	---	→	매우 친근하다고 느낌
①	②	③	④	⑤

▶ 부모와 함께 살기 ◀

C8. 귀하는 가족생활에서 다음 항목의 기여를 하고 계십니까?

질문	네	아니요
	①	②
1) 장보기 비용이나 공과금 등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		
2) 주택구매비용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일부) 부담하였다		
3) 부모님에게 따로 생활비를 드리고 있다		
4) 정기적으로 가사일(청소, 장보기, 세탁, 음식준비) 중 하나 이상을 하고 있다		
5) (건강이 안 좋은) 부모님을 신체적으로 돌보고 있다.		

C13. 부모님이 제공한 지원금은 다양한 항목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난 1년 동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금이 다음 항목에(도) 사용되었습니까?

질 문	네	아니요
	①	②
1) 주거비 (주택구입비, 전월세 보증금, 월세 등)		
2) 취업관련 비용 (자격증 취득시험, 입사시험 준비 비용 등)		
3) 외국어능력 및 해외체류경험 관련 비용 (해외대학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외국어교육비 등)		

C13-1. 지난 1년 동안 (2023년 9월 1일 이후 현재까지) 귀하가 사용한 생활비(식비, 주거비, 의복비, 공공요금 등)는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최대 3개**를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

※ 교육에 필요한 부가적인 비용(등록금, 수강료 등)은 제외해 주세요.

- | | |
|-----------|-----------|
| ① 내가 번 수입 | ⑥ 정부보조 |
| ② 부모 | ⑦ 대출 |
| ③ 조부모 | ⑧ 장학금 |
| ④ 형제/자매 | ⑨ 기타() |
| ⑤ 배우자 | ⑩ 해당사항 없음 |

C13-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교육(대학교, 학원 포함)에 필요한 비용(등록금, 기숙사비, 수강료 등)은 어떻게 조달하였습니까?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최대 3개**를 보기에서 골라 주십시오

※ 고등학교 졸업 후 더 이상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다니지 않은 경우에는 “⑩ 해당사항 없음”을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내가 번 수입 | ⑥ 정부보조 |
| ② 부모 | ⑦ 대출 |
| ③ 조부모 | ⑧ 장학금 |
| ④ 형제/자매 | ⑨ 기타() |
| ⑤ 배우자 | ⑩ 해당사항 없음 |

C14. 귀하가 생각하기에, 현재 귀하는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경제적으로 독립했습니까?

전혀 독립하지 않음	←	---	→	완전히 독립함
①	②	③	④	⑤

C15. 귀하가 19세 이후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다음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질 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1)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2) 가족 전체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3) 부모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4) 부모로부터 받은 만큼 내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부모의 노후에는 내가 부모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C16. 다음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문장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질 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1)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자녀가 취업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부모가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자녀가 취업을 해도 부모가 여력이 있는 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부모의 도움 경험 ◀

C17.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 주변의 (친구) 부모님들보다, 귀하에게 더 많이 지원(관여, 지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더 적게 지원(관여, 지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래 항목에 대해 응답해주세요.

질 문	다른 부모들보다 더 적게	다른 부모들과 비슷하게	다른 부모들보다 더 많이	모르겠음
	①	②	③	④
1) 일상생활이나 학업, 진로, 취업 등에 OOO 관여하거나 조언을 해주셨다				
2) OOO 정서적으로 지지해주셨다				
3) OOO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셨다				
4) 전반적으로 내 부모님은 OOO 지원해주셨다				

C18. 부모님의 (많거나 부족했던) 지원이 귀하의 청년기 삶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거나 앞으로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 문	매우 부정적	약간 부정적	보통	조금 긍정적	매우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1)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2) 경제적인 자립능력을 갖추는 데					
3)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데					
4) 부모님으로부터 어른으로 인정받는 데					
5) 남들로부터 능력있다고 인정받는 데					

▶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모의 생각 ◀

※ 다음은 귀하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귀하의 혼인 상태와 상관없이 부모님의 평소 생각이나 태도라고 느낀 것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C19. 다음 보기 중 부모님이 귀하의 결혼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해 주세요.

- ①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
- ② 결혼하는 것이 좋다
- ③ 결혼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 ④ 결혼하지 않는 게 좀 더 낫다
- 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 ⑥ 모르겠다

C20. 다음 보기 중 부모님이 귀하의 자녀출산(부모되기)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가장 근접한 것을 선택해주세요.

- ① 반드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
- ② 아이가 있는 게 좋다
- ③ 아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 ④ 아이가 없는 게 좀 더 낫다
- ⑤ 아이를 갖지 말아야 한다
- ⑥ 모르겠다

C2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누구에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지인: 직장 동료, 동호회, 이웃 등)

질문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애인	지인*	SNS 친구	공공기관, 사회복지단체 등	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 몸이 아파서 식사 준비나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2) 큰 돈을 갑자기 빌릴 일이 생길 경우							
3)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들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경우							

C22. 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 항목 중 청년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3개 항목을 선택해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및 조언
- ② 가족이나 친구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
- ③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대학, 대학원 등)
- ④ 취업준비 기간 동안의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
- ⑤ 전공, 직업, 일자리 등 정보제공 및 조언
- ⑥ 해외어학연수, 해외유학, 해외교환학생 등 기회
- ⑦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대외활동 등 사회경험 기회
- ⑧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
- ⑨ 여행, 문화생활 등 지원
- ⑩ 저축, 투자 등 돈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조언

C23. 다음 중 귀하가 제공받지 못했거나 부족함을 느꼈던 지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랜덤][복수]**

- ① 정신적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및 조언
- ② 가족이나 친구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
- ③ 원하는 만큼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대학, 대학원 등)
- ④ 취업준비 기간 동안의 생활비나 교육비 지원
- ⑤ 전공, 직업, 일자리 등 정보제공 및 조언
- ⑥ 해외어학연수, 해외유학, 해외교환학생 등 기회
- ⑦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대외활동 등 사회경험 기회
- ⑧ 독립적이고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
- ⑨ 여행, 문화생활 등 지원
- ⑩ 저축, 투자 등 돈 관리에 대한 교육이나 조언
- ⑪ 없음

C24. 다음 보기 중 청년기 자녀에게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자녀에게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부모
- ② 자녀에게 경제적 자산을 물려주는 부모
- ③ 자녀와 여가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
- ④ 자녀가 교육, 취업, 결혼 등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부모
- ⑤ 부모 자신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 부모
- ⑥ 부모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

C25. 전반적으로 귀하는 현재 삶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다	←	--	--	보통	--	--	→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C26. 다음 항목은 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중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중 귀하가 직접 혜택을 받은 정책이 있습니까?

청년 대상 정부정책	네	아니요
	①	②
1) 청년자산형성 및 재기지원 (청년도약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햇살론 유스 등)		
2) 취업 및 창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3) 주거 (공공분양 또는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대출, 월세지원 등)		
4) 건강 (마음건강 사업, 신체건강검진, 천원의 아침밥 등)		
5) 교육 (국가장학금 등)		

D.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위해, 귀하와 부모님에 대해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응답 내용은 모두 비밀이 보장되오니, 최대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D1.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 ① 미혼
- ② 배우자 있음
- ③ 사별
- ④ 이혼
- ⑤ 비혼동거

D2. 귀하는 현재 소득을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① 일하고 있음 → D3
- ② 일하고 있지 않음 → D2-1

D2-1. 현재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 ① 전업주부 (일하지 않고 가사/육아에만 종사)
 - ② 학생 (일하지 않고 학업 중)
 - ③ 구직 중(창업 준비 포함)
 - ④ 무직, 퇴직, 은퇴, 건강상 이유로 요양 (현재 일하지 않음)
- [로직: 응답 후 D6 이동]

D3. 귀하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① 임금근로자
- ②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D5
- ③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D5
- ④ 무급가족종사자 → D5

D4. (D3의 1 응답) 귀하는 현재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 ① 정규직
- ② 비정규직

D5. 귀하가 일을 통해 버는 소득은 월평균으로 어느 정도이십니까?

약 () 만 원

D6. 아버지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현재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에도 알고 있는 출생년도를 응답해 주세요.

- ① ()년
- ② 모름

D7. 아버지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그 학교를 이수하셨습니까? 현재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에도 알고 있는 최종학력을 응답해 주세요.

1) 최종학교	2) 수학 구분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교(2~3년제) ⑥ 대학교(4년제)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⑨ 모름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⑨ 모름

D8. 어머니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현재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에도 알고 있는 출생년도를 응답해 주세요.

- ① ()년
 ② 모름

D9. 어머니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그 학교를 이수하셨습니까? 현재 어머니가 안 계신 경우에도 알고 있는 최종학력을 응답해 주세요.

1) 최종학교	2) 수학 구분
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전문대학교(2~3년제) ⑥ 대학교(4년제) 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⑨ 모름	① 재학 ② 휴학 ③ 중퇴 ④ 수료 ⑤ 졸업 ⑨ 모름

D10. 부모님 가구의 순자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순자산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합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① 1억 원 미만
 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③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④ 10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⑤ 15억 원 이상 ~20억 원 미만
 ⑥ 20억 원 이상~
 ⑦ 잘 모르겠다

D11. 한국사회에서 사회계층을 다음과 같이 하층(1)에서 상층(5)까지 5개 계층으로 구분할 때, 부모님의 계층수준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층	중하층	중간층	중상층	상층
①	②	③	④	⑤

D12. 귀하의 형제·자매는 어떻게 되십니까? 몇 남, 몇 녀 중 몇 째이십니까? (돌아가신(사망한) 형제·자매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외동인 경우에는 '1남 0녀' 또는 '0남 1녀'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 남 2) () 녀 3) () 째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가 심층면접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다음의 설명문을 천천히 읽어보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귀하께서는 아래 설명문에 있는 심층 면접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청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조사 방법 : 집단 면접
- ▶ 면담 일시 : 10월 1주~2주 중 하루 (추후 확정 시 참여 희망자에게 개별 전달 예정)
- ▶ 면담 소요 시간 : 1~2시간 내외
- ▶ 사례비 : 10만원
- ▶ 면담 내용 :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이해, 관심 등
- ▶ 비고 : 집단 면접 형식으로 진행

① 있다

② 없다 → 설문중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심층 면담 관련 좌담회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고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귀하께서는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심층 면담과 관련하여 개별로 연락을 드릴 수 없어 참석이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동의서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름, 성별, 연령, 지역, 핸드폰번호	심층 면담 참여 관련 개별 안내	조사 후 3개월

※ 심층 면담 참여 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거부 시 심층 면담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 심층면담 진행과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직접 안내 전화를 드릴 예정입니다.

① 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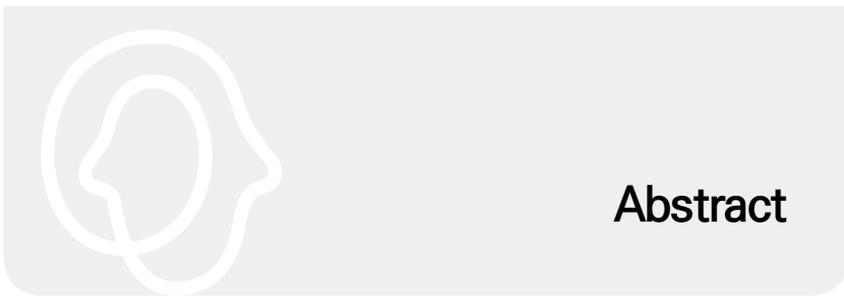
② 비동의 → 설문중단

DQ9. 귀하의 성함과 연락처를 입력해 주십시오.

① 성함: ()

② 연락처: () - () - ()





Abstract

Parental Support in Young Adulthood: Dimensions of Support and Social Inequality

Project Head: Choi, Sunyoung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al support during young adulthood, a critical life stage where the transition to independence ha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and prolonged. Based on an original social survey designed and conducted for this research, the findings reveal that parental support extends beyond financial assistance to include emotional support, advice, and involvement, with strong emotional bonds facilitating greater instrumental support.

This study finds that parents and children view an ideal relationship as one based on autonomy rather than mutual dependence. Parental support during emerging adulthood is driven not by altruism or traditional norms but by practical needs related to education, employment, and housing. Consequently, children also recognize the value of parental support, not as a matter of moral obligation but as a crucial factor influencing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The study also highlights class-based disparities in parental support. Higher-class families exhibit stronger emotional ties and provide higher levels of financial and advisory support,

Co-Researchers: Kwak, Yoonkyung, Noh, Hyunju, Yang, Eunjung

whereas lower-class families show weaker bonds and lower-than-expected support. This growing reliance on parental resourc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risks deepening socioeconomic inequalities across multiple dimensions.

Given rising demands in education and employment, emerging adulthood increasingly resembles a dependent stage. The study calls for further research on this life stage and a systematic analysis of parental support within institutional contexts.

Key words: young adulthood, parental support, youth and inequality,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